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정성 및 공적 책무 진단

2025.1.

한국언론학회

〈목 차〉

요약문	1
I. YTN의 공정성 논의	14
1. 방송 공정성의 원칙과 정의	14
1) 정확성(Accuracy)	14
2) 객관성(Objectivity)	16
3) 균형성(Balance)	18
4) 책임성(Accountability)	21
2. 방송과 신문의 공정성 차이	23
1) 매체의 특성 차이	23
2) 사회적 영향력 차이	23
3) 규제와 책임의 차이	24
3. 방송 공정성과 관련한 해외 사례	25
1) 영국의 방송 공정성	25
2) 미국 방송의 공정성	26
4. YTN의 공정성	27
1)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정성	27
2) 기계적 균형성과 적당한 불편부당성	27
3) YTN의 공정성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 제언	28
II. YTN의 공적 책임	29
1. 방송의 공적 책임 개념	29
1) 공익성	29
2) 다양성	29
3) 공정성	29
4) 책임성	29
5) 투명성	30

2. 방송의 공적 책임 부여 근거	30
1) 공공수탁론	30
2)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31
3. 방송의 공적 책임 종류	31
1) 정보 제공 책임	31
2) 공공의 이익 추구 책임	32
3) 광고의 공정성 책임	32
4)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	32
5)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33
6) 기술적 책임	33
7) 방송사 내부 윤리적 책임	34
4. YTN의 공적 책임 방향	34
1)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적책임	34
2) 공적 의무에 대한 철저한 준수	34
Ⅲ.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용자 심층인터뷰 분석	37
1. 조사개요	37
1) 참석자 선발 및 구성	37
2) 집단별 참석자 구성	39
3) FGI 진행 및 일정	40
2.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용 행태	41
3.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	43
4.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 공정성과 공적 책임	46
1) 시사교양 프로그램 주제 선택의 공정성	46
2) 시사교양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공정성	49
3)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 책무 1 - 상식과 공론장	56
4)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 책무 2 - 다양성	62
5)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 책무 3 - 지식	67

6)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 책무 4 - 교육	70
IV. 결론 및 제언	76
1. 분석결과 요약	76
1) 주제 선택의 공정성	76
2) 내용 구성의 공정성	77
3) 공적 책무 - 상식과 공론장	78
4) 공적 책무 - 다양성	80
5) 공적 책무 - 지식과 학습의 고양	81
6) 공적 책무 - 교육적 가치	82
2. 종합 제언	83
참고문헌	86
별첨 1. FGI 녹취록 - 그룹A (20대, 30대)	88
별첨 2. FGI 녹취록 - 그룹B (40대 이상)	115

<표 차례>

<표 1> YTN의 공적책임 제언	35
<표 2> FGI를 위한 사전 시청 프로그램 목록	38
<표 3> 20대~30대 FGI 그룹 참여자	39
<표 4> 40대 이상 FGI 그룹 참여자	40
<표 5> FGI 진행 일정 및 참여자	40
<표 6> FGI 기본 질문 가이드	41

<그림 차례>

<그림 1> FGI 인터뷰 참석자 선발 기준	38
--------------------------------	----

< 요약 문 >

I. YTN의 공정성 논의

1. 방송 공정성 원칙과 정의

- 방송 공정성은 여론 형성과 사회 신뢰 유지를 위한 필수 개념
-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제공하며, 특정 사안에 편향되지 않도록 하는 것

■ 공정성의 핵심 원칙

1) 정확성 (Accuracy)

- 사실을 기반으로 보도하며, 왜곡·과장을 해선 안됨
- 검증 가능성과 맥락을 고려해 정보를 전달해야 함
- 시간·상업적·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요

2) 객관성 (Objectivity)

- 사실과 의견을 명확하게 구분
- 중립적 시각을 유지하며, 독립적 검증이 가능해야 함
- 출처의 다양성 확보 및 시청자 피드백 반영 필요

3) 균형성 (Balance)

- 다양한 관점과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해야 함
- 방송의 공공성과 정치적 다양성 유지
- 편집권 독립과 규제 및 모니터링 필요

4) 책임성 (Accountability)

- 공익 실현, 투명성 확보
- 오류 인정 및 수정, 외부 규제에 따른 감시
- 상업화와 정치적 압력,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한 대처 필요

■ 공정성을 위협하는 요인

- 시간 압박: 실시간 보도의 긴박함으로 인해 검증 절차 누락 우려
- 상업적 압력: 광고 수익과 시청률 압박으로 인한 왜곡 가능성
- 정치적 압력: 특정 이념·집단 편향 우려
- 디지털 환경: 전통적인 방송사의 책임이 약화되는 추세

■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

- 신뢰할 수 있는 출처 활용 및 검증 강화
- 다양한 관점 반영 및 정치적 중립성 확보
- 독립적 편집권 보장 및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정부 및 독립 규제 기관의 지속적인 감시

■ 소결

- YTN 등 방송사의 공정성은 정확성, 객관성, 균형성, 책임성을 토대로 대중 신뢰를 유지하고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해야 함
- 상업적·정치적 압력, 디지털 환경 변화 등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방송과 신문의 공정성 차이

1) 매체 특성

- 방송은 대중의 접근성이 높고, 실시간 보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성이 중요
- 신문은 독자의 능동적 탐색이 요구되는 매체로 공정성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

2) 사회적 영향력

- 방송은 시청각적 전달로 설득력 강하기 때문에 여론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끼침
- 신문의 경우 정보 제공 방식이 방송에 비해 덜 즉각적임

3) 규제와 책임

- 방송은 전파를 이용하기 때문에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법적 규제가 강조됨
- 신문은 사적 소유 기반을 갖고 있으며, 규제가 적음

3. 해외 사례

1) 영국

- 법적 기반: 「통신법」, 「방송법」 통해 정치·상업적 중립 규제
- 제도적 장치: 오프콤(Ofcom)이 공정성 감시
- 한계: 디지털 플랫폼 공정성 규제 부족

2) 미국

- 법적 기반: 과거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 1987년 폐지
- 현황: 시장 자율성 강조, 특정 방송사 편향 비판 증가

4. YTN의 공정성

1) 법적 기반

- 방송법: 차별 금지, 균형성, 소수 의견 반영 강조
- 방송심의 규정: 사실과 의견 구별 요구
- YTN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기계적 균형성뿐만 아니라, 적당한 불편부당성 포함

2) YTN의 공정성 개념

- 정확성: 사실 기반, 왜곡 금지
- 균형성: 대립 사안 양적 균형 유지
- 불편부당성: 당파적 이익 치우침 방지
- 차별 금지: 소수 의견 충실 반영
- 의견의 표시: 의견과 사실 명확히 구분
- 객관성: 주관적 판단 배제

3) 실천 방안

- 다양한 출처 활용
- 전문가 의견 반영
- 내부 점검 메커니즘 구축

■ 소결

- 방송의 공정성은 신뢰와 민주주의 여론 형성을 위한 필수 요소로, YTN은 법적·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며 독립성과 균형을 유지해야 함

II. YTN의 공적책임

1. 방송의 공적책임 개념

- 공적 책임은 방송이 공공의 이익과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사회적·윤리적·법적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

■ 핵심 요소

- 공익성: 사회적 통합과 공익 증진.
- 다양성: 소수자·약자 대변 및 다양한 문화 반영
- 공정성: 균형 잡힌 정보 제공
- 책임성: 콘텐츠의 사회적 영향에 책임
- 투명성: 운영 과정 공개

2. 방송의 공적책임 근거

- 공공수탁론: 희소 자원인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사의 공적 책무 강조
- 사회적 영향력: 방송의 파급력으로 인한 책임 부여

3. 방송의 공적책임 종류

- 1) 정보 제공 책임: 정확하고 균형 잡힌 보도, 다양한 관점 제시
- 2) 공공 이익 추구: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존재
 - 교육적 책임: 사회적 통합 및 교육 콘텐츠 제공
 - 문화적 책임: 문화적 다양성 반영
- 3) 광고 공정성: 허위·과장 광고 방지, 아동·청소년 보호
- 4) 표현의 자유와 공공 이익 균형: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자유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 유지

- 혐오 발언 방지
- 사회적 불평등 문제 해결 지향
- 5)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정치적 편향 금지, 독립성 보장
- 6) 기술적 책임: 최신 기술 활용, 고화질 및 디지털 방송 확대
- 7) 내부 윤리적 책임: 부패 방지 및 자율 규제

4. YTN의 공적책임 방향

- o 법적 규정 준수: 방송법, 방송심의 규정 기반 공적 책임 수행

<YTN의 공적책임 제언>

공적 책임에 대한 법률 규정	차원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헌법	민주주의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 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알권리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평등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인권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 규범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민족/국제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문화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안전

■ 실천 방안

- 헌법적 책무: 민주적 기본질서, 국민 알 권리 수호
- 사회적 책무: 갈등 조장 방지, 공익 증진
- 문화적 책무: 민족문화 창조·계승, 국제친선 증진
- 개인적 책무: 명예 훼손 및 권리 침해 방지

■ 소결

- 방송사는 법적·윤리적 의무를 기반으로 공공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하며, 다양한 사회적 역할 수행 및 책임성을 유지해야 함

Ⅲ.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용자 심층인터뷰 분석

1. 조사 개요

- 목적: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 분석

<FGI를 위한 사전 시청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	내용
팩트추적	'그들'에게 더 가혹한 겨울, '기후 불평등'
	'사장님의 눈물'과 서글픈 '반쪽 호황'
	황혼의 삶을 옥죄는 노노(老老)간병
	"보복 두려워 합의" 목숨 건 이별, '교제 폭력'
	"31년 뒤면 곳간 바닥"...기로에 선 '연금 개혁'
	새만금 잼버리 폐막 1년... "뒷수습 과정도 논란"
다큐24	1화_당신은 요즘아빠인가요?
	2화_위드 치매
	4화_모두가 예술
	5화_오늘은 쉬어도 돼_청년자립보고서
	복덩이 된 'K-콘텐츠'...배우 할리우드 진출도 ↑
컬처 인사이드	"방구석 오타쿠는 옛말"...'취향 존중' 성지가 된 홍대
	매트리스 남은 천으로 조끼를?...'지구 구하기' 나선 패션업계
	'책 붐' 속 출판계 민낯도...한강 신드롬이 남긴 것
	엔데믹에도 '뜨개인' 증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성취감"
	MZ는 '숯폼' 중독?...다시 뜨는 '고전 SNS' 블로그
	직접 배우고, 아이돌처럼 열광...K-무용 '인기'
	"예능 아닌 드라마"...'흑백요리사' 이유 있던 돌풍

- 방법: FGI(Focus Group Interview) 활용
 - 대상: 20~60대, 주 1회 이상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청자
 - 선발 기준: 성별, 직업, 언론 모니터링 경험 우대
- 프로그램: 팩트추적, 다큐24, 컬처인사이드 선정

<FGI 기본 질문 가이드>

대분류	소분류	질문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용	시청 패턴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청 빈도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청 패턴
중요 요소	평가 기준 중요도 인식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신속성, 중립성, 객관성, 심층성, 다양성, 균형성 등)
총평	인상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인상평가
공정성	주제	프로그램 주제 선택의 적절성
		- 주제 선택에 적절한 시의성이 있는가? - 주제 선택이 편파적이지 않았는가?
	내용	내용구성의 적절성
		-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 프로그램의 내용이 편향적이지 않은가? - 프로그램의 내용이 윤리적 상식에 부합하는가? - 다수의 의견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공적책무	상식과 공론장	상식과 공론장
		- 시청자들에게 공통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포괄하고 있는가?
	다양성	다양한 정보제공
		- 시청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다양한 생각과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가?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지식
	교육	지식과 학습의 고양
		- 시청자들에게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교육적 가치	
	- 프로그램이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는가?	

2.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용 행태

- 20~30대: 유튜브·스마트폰 이용 빈도 높음, 알고리즘 의존성 강화
- 40대 이상: TV 시청 선호, 특정 시간대에 맞춘 시청 경향
- 차이점: 젊은 층은 알고리즘 의존, 중·장년층은 직접 검색 및 시청

3. 시사교양 프로그램 주요 평가 요소

- 공정성: 기본 요소로 인식
- 심층성·교육성: 젊은 층에서 심층성, 중·장년층에서 교육적 정보 요구 높음
- 기계적 중립 비판: 결과 명확한 사안에 대한 기계적 중립 비판

4.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 공정성과 공적책임

1) 시사교양 프로그램 주제 선택의 공정성

○ 팩트추적

- 주제 설정의 공정성에 대해 포괄적인 주제 선택으로 인해 공정성 문제가 크지 않다는 의견이 우세
- 방송사 내부 규정으로 인해 포괄적인 주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제작 환경 지적
- 포괄적인 주제가 기억에 남지 않는다는 비판과 차별성 부족 문제 제기
- 공정성 문제는 드러나지 않지만, 시청자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제작에 한계

○ 다큐24

- 초반 제작 편수가 적어 심도 깊은 논의는 어려웠으나, 주위에서 발생 가능한 일상적 문제를 주제로 삼았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 '휴먼다큐' 성격으로 육아, 치매, 장애인 예술 등 일상적 주제를 다룸
- 시간과 러닝타임의 장점을 활용해 심층적인 주제 선택 필요성 제기
- 주제 다루는 방식에서 편향성 문제와 주제 처리 방식에 대한 의견 갈림

○ 컬처인사이드

- 문화, 연예, 스포츠 등 다양한 가벼운 주제를 다룸
- 주제 선택 및 내용 구성에서 가장 공정하고 긍정적이라는 평가

2) 시사교양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공정성

○ 팩트추적

- 젊은 층은 내용의 공정성에 있어 편향적으로 보지 않음
- 40대 이상은 사실 누락에 더 민감하게 반응
- 기획 의도와 자원 한계를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인식
- 심층성과 다양성을 보완하기 위한 대안 요구

o 다큐24

- 휴먼다큐 형식에서 어두운 면의 누락과 공감 부족 문제 지적
- 기획의도와 형식적 특성 고려 필요

o 컬처인사이드

- 수치로 측정 어려운 주제를 다루며 프로그램 성격에 적합
- 당파성에서 자유롭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

3)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책무 1 - 상식과 공론장

o 팩트추적

- 상식과 공론장 형성에 있어 심층성 요구
- 인터넷 등 다른 미디어와 차별화된 심층적 정보 전달 필요

o 다큐24

- 주제의 이면을 통해 공감을 유발하며, 깊이 있게 다룰 필요성 제기
- 너무 다양한 사례보다는 하나의 사례에 집중 필요

o 컬처인사이드

- 연령대에 따라 평가가 다름. 젊은 층은 마이너한 주제에 공감 부족
- 40대 이상은 상식 형성에 도움을 준다는 긍정적 평가

4)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책무 2 - 다양성

o 팩트추적

- 심층적 내용 기반의 수직적 다양성과 의견 사례 반영의 수평적 다양성 요구
- 정책, 후속조치, 다양한 사례와 근거 활용 필요성 제기

o 다큐24

- 긍정적: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희망적 사례 제시
- 부정적: 지나치게 많은 정보 제공으로 혼란 야기
- 주요 사례에 집중하며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보 필요

o 컬처인사이드

- 다양한 주제와 트렌디한 내용 구성으로 긍정적 평가

5)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책무 3 - 지식

o 팩트추적

- 부족했던 분야 지식 습득에 도움
- 추가적 정보 및 교육 효과 강화 필요
- 시각 자료 노출 시간 증가 등 정보 이해 도움 방법 제안

o 다큐24

- 사회적으로 소외된 부분에 대한 정보 제공으로 긍정적 평가
- 정보의 체계적 구성 및 실질적 도움 제공 필요성 제기

o 컬처인사이드

- 40대 이상은 긍정적, 젊은 층은 이미 알고 있는 지식으로 평가 제한

6)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책무 4 - 교육

o 팩트추적

- 주제에 대한 생각 유발과 교육용 자료 활용 가능성 평가
- 단순 설명에서 그치는 경우 교육적 효과 한계

o 다큐24

- 긴 호흡으로 다양한 관점 제시하는 등 교육적 역할 강화 가능성 평가
- 정책, 지원 방법, 사각지대 정보 보완 필요성 제기

o 컬처인사이드

- 젊은 층에서 긍정적 평가, 40대 이상은 익숙하지 않은 주제로 교육적 효과 제한
- 리사이클링 등 특정 주제에서 교육적 효과 발생 가능성 언급

IV. 결론 및 제언

1. 분석 결과 요약

1) 주제 선택의 공정성

- o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편향된 시각에서 제작되지 않아야 함
- o YTN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전반적으로 책임성을 갖고 제작되었다는 평가
- o 새로운 주제를 발굴하고 심층적으로 다룰 필요성 강조

- 방송사별 시사교양 프로그램 내용 유사성으로 인해 차별성 요구됨
- <팩트 추적>, <다큐 24>, <컬처 인사이드> 등 프로그램이 공감 가능한 주제로 구성
- 연령대별 평가 차이 존재
 - 20~30대: <컬처 인사이드>, <팩트 추적>, <다큐 24> 순으로 선호
 - 40~60대: <팩트 추적>, <다큐 24>, <컬처 인사이드> 순으로 선호
- 각 프로그램의 주요 평가
 - <팩트 추적>: 시의성 있는 주제와 교육적 가치를 지닌 구성으로 긍정적 평가
 - <다큐 24>: 방대한 주제와 심층적 접근으로 공감 유발하나 명확한 인상 부족
 - <컬처 인사이드>: 부담 없는 시청과 짧은 영상 구성으로 젊은 층에 높은 선호도

2) 내용 구성의 공정성

- 일부 주제에서 편향성 문제 제기
 - 장애인과 비장애인 관련 주제에서 균형 부족
 - 자립 준비 청년 주제에서 혜택에 대한 시각지대 문제 지적
- 주제 선정 과정에서 시청자 의견 수렴 필요
 - 게시판 댓글 활용 및 분기별 시의성 있는 주제 제작 제안
- 프로그램별 차별성 필요
 - <팩트 추적>: 현상 이면의 숨겨진 사실 발굴 요구
 - <다큐 24>: 감성적 표현으로 공감 자아내는 접근 방식 강조
- 구체적 문제 제시와 해결책 제공 부족 문제 지적

3) 공적책무 - 상식과 공론장

- 주제의 대중성 및 공감 유발 필요
 - <컬처 인사이드>: 대중문화보다 마이너한 문화 주제 치우침 지적
 - <팩트 추적>: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 주요 정보 놓치는 문제 제기
 - <다큐 24>: 어두운 현실 강조 부족으로 문제 해결책 제시 한계

4) 공적책무 - 다양성

- <팩트 추적>
 - 사회적 문제 심각성 알리며 해결책 제시 필요성 강조
 - 심층적 사례 분석 및 시각 자료 활용 부족 지적

o <다큐 24>

- 다양한 사례를 한꺼번에 다뤄 방향성 모호해지는 문제 제기
- 주제별 집중과 세대 간 공감 유발 필요성

o <컬처 인사이드>

- 소프트한 문화 활동 소개로 부담 없는 시청 가능
- 새로운 문화 트렌드 소개에 긍정적 평가

5) 공적책무 - 지식과 학습의 고양

o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 수행

- <팩트 추적>: 함축적인 구성 및 연속 기획 프로그램 필요성 제안
- <다큐 24>: 케이스 과잉으로 인한 주제 모호성 문제
- 경계성 지능 청년 관련 프로그램에서 정보 전달 구체화 필요

6) 공적책무 - 교육적 가치

o 정보 출처 표기와 신뢰성 확보

- <팩트 추적>: 간병, 연금 관련 주제에서 실질적 정보 부족 문제
- <다큐 24>: 치매, 자립 청년 주제에서 교육적 정보 제공 필요성
- <컬처 인사이드>: 자원 리사이클링 등 교육적 효과 높은 주제에 긍정적 반응

2. 종합 제언

- o 새로운 주제 발굴과 차별화된 접근 방식 필요
- o 시청자 참여를 통한 주제 선정과 의견 수렴 중요
- o 세대별 공감과 대중성 고려한 구성 방향 제시
- o 심층적 문제 분석과 해결책 제시 강화 필요

1. 방송 공정성의 원칙과 정의

방송의 공정성(fairness)은 매체의 공적 책임과 윤리적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개념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형성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방송의 공정성은 학문적, 법적, 사회적 관점에서 다각적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각 국가와 학자들에 따라 다소 다른 기준을 가지기도 한다.

1) 정확성(Accuracy)

공정성을 지키는 주요 원칙으로써 정확성은 ‘방송 내용은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과장된 정보를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맥퀘일은 “정확성은 공정성을 보장하는 기초적인 요건으로, 정보 제공 과정에서 사실의 왜곡을 방지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된다(McQuail, 1992). 맥퀘일의 정확성 개념은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진다.

(1) 정보의 사실성과 진실성

정확성은 제공되는 정보가 객관적 사실에 기반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퀘일은 언론이 사실(facts)과 의견(opinions)을 명확히 구분해야 하며, 사실의 전달에 있어 어떠한 왜곡이나 과장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언론이 특정 이념이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사실을 의도적으로 편향되게 전달할 경우, 대중의 알권리와 민주적 의사결정이 위협받는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정치적 사건을 보도할 때 객관적 데이터(투표 수, 정책 내용)를 정확히 제시해야 하며, 이를 특정 시각으로 왜곡하여 대중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방송 분야로 확장해서 본다면, 현장의 사실을 있는 그대로 화면에 담는 것이나 화면에서

출처나 촬영 시기 등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2) 검증 가능성

맥퀘일은 정확성을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 과 연결하여 설명했다. 이는 방송사가 제공하는 정보가 독립적인 검증 과정을 통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의 보도는 대중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신뢰를 저하시킬 위험이 있다. 따라서 언론인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보도 전에 사실 검증(fact-checking) 과정을 거쳐야 한다. 맥퀘일은 이러한 검증 절차가 언론의 신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최근 한국에서도 다양한 팩트체크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와 관련된 검증이 얼마나 충실한가도 공정성의 주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3) 맥락의 정확성

맥퀘일은 정확성이 단순히 개별 사실을 올바르게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정보를 맥락(context) 속에서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통계 데이터나 사건 보도에서 특정 부분만 발췌하여 보도할 경우, 전체 맥락이 왜곡될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대중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만들 수 있다. 이에 맥퀘일은 “정보의 정확성을 보장하려면 사건의 전후 맥락과 배경을 포함하여 보도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맥퀘일이 보기에 정확성은 공정성(fairness)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었다. 공정성은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해야만 공정성이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정확한 정보는 특정 관점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여 편향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맥퀘일은 정확성을 위협하는 몇 가지 요인을 지적하며, 언론이 이를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첫째, 시간 압박이다. 방송은 실시간 보도 특성상 정보 검증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24시간 생방송으로 뉴스를 전달하는 YTN에 있어서 충분히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둘째, 상업적 압력이다. 시청률 경쟁이나 광고 수익 추구는 정보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언론이 겪고 있는 딜레마라고 할 수 있다.

방송의 경우에도 채널끼리의 경쟁도 불가피하지만, 최근 들어 방송광고 시장 자체가 침체하고 있기 때문에 상업적 압력에 굴복하기가 쉽다. 광고 수익을 위해서 정보원과 관련된 주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다루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

셋째, 정치적 영향이다. 특정 정치 세력의 압박은 정보의 편향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YTN의 경우 민영화 진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발생하기도 했고, 정치적 맥락에서 접근하는 논의도 많았다. 그러나 오히려 민간 상업방송이 정치적 외압에서 더 독립적일 수도 있다. 정치적 외압에 대해서 정확한 객관보도의 원칙을 저항적 논리로 이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맥퀘일은 언론이 정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할 것’,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할 것’, ‘정보의 맥락과 배경을 충분히 설명할 것’, ‘독립적인 검증 과정을 거칠 것’을 강조하였다.

종합적으로 보면, 맥퀘일이 주장한 정확성은 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정보의 사실성, 검증 가능성, 맥락의 정확성을 포함한다. 정확성은 공정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언론은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독립적이고 철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주주의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을 지원하는 데 기여한다.

2) 객관성(Objectivity)

슈드슨은 객관성을 “사실(facts)과 의견(opinions)을 명확히 구분하고, 편향되지 않은 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으로 정의했다(Schudson, 2001). 그는 객관성이 단순히 개인적 중립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저널리즘의 구조적이고 전문적인 실천을 통해 달성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객관성은 개인적 가치와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에 기반하여 정보를 평가하고 보도하려는 체계적 접근이다. 방송사는 개인적이거나 조직적인 편견에서 자유로워야 하며, 주관적 해석이 아닌 사실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슈드슨은 객관성이 다음과 같은 주요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1) 사실 중심적 보도

객관성은 언론이 사실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슈드슨은 “사실 중심 보도는 대중의 신뢰를 얻기 위한 첫걸음이며, 공정성의 전제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언론은 검증 가능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 이러한 개념은 맥케일이 언급한 ‘검증 가능성’ 과도 일맥상통한다.

(2) 중립적 시각

객관성은 기자가 특정 이념이나 이해관계에 기울지 않고 중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슈드슨은 “중립적 보도는 다양한 관점을 공평하게 다룸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대중의 합리적 판단을 돕는다” 고 설명했다.

(3) 검증 과정

슈드슨은 객관성이 검증 가능성(verifiability)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했다. 언론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독립적으로 검증하여 보도해야 한다. 이 과정은 사실과 허구를 구별하고, 대중에게 신뢰받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필수적이다.

(4) 맥락 제공

객관성은 단순히 사실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맥락(context)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슈드슨은 “객관적 보도는 사건의 배경과 맥락을 설명하여 대중이 정보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다만 맥락을 제공함에 있어서 기자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맥락만을 강조한다면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슈드슨은 객관성이 공정성(fairness)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는 “공정성은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하고, 객관성은 그 기반을 제공하는 개념” 이라고 주장했다. 즉, 객관성을 통해 사실을 정확히 전달할 때, 공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그가 생각하는 객관성을 위협하는 요소는 맥케일과 같은 맥락으로, 상업적 압력, 정치적 압력, 시간 압박 등이다.

상업적 압력 차원에서 광고 수익과 시청률 경쟁으로 인해 언론이 선정적인 보도나 특정 이익을 대변하는 보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업적 압력은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언론이 특정 집단이나 사상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보도를 하게 될 경우, 객관성이 훼손될 수 있다. 특히 방송 언론은 실시간 보도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아 충분한 검증 과정을 거치지 못하고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슈드슨은 객관성을 실현하기 위해 언론이 다음과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출처의 다양성 확보이다. 정보 수집 과정에서 다양한 출처를 활용하여 편향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둘째, 독립적 검증 과정 도입이다. 모든 보도 내용이 객관적으로 검토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전문 교육 강화이다. 기자들이 객관성과 윤리적 보도 원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넷째, 시청자와의 소통 강화이다. 피드백을 수렴하고 오류를 인정하며 수정하는 과정을 통해 대중의 신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종합적으로 보면 슈드슨이 주장한 객관성은 언론이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사실에 기반하여 편향 없이 정보를 전달하려는 구조적이고 전문적인 접근을 의미한다. 그는 객관성이 공정성과 상호 보완적 관계를 가지며, 이를 통해 대중의 신뢰를 확보하고 민주적 사회의 건강한 여론 형성을 지원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상업적·정치적 압력과 같은 도전 과제 속에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언론은 지속적으로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

3) 균형성(Balance)

할린과 만치니는 방송의 공정성에 대해 균형성(balance) 개념을 중심으로 설명하며, 이 개념이 민주적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균형성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집단의 관점과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하려는 언론의 노력을 의미한다(Hallin & Mancini, 2004). 그들은 주로 언론과 정치 체제의 관계를 분석하며, 이 과정에서 언론이 균형성을 유지하는 방식과 그것이 공정성과 연결되는 방식을 다뤘다. 이에 균형성은 언론이 다양한 관점을 대중에게 노출시킴으로써 민주적 토론을 촉진하는 과정의 핵심적 요소였다.

할린과 만치니는 균형성을 ‘특정 이념이나 집단에 치우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을 공평하게 반영하여 정보를 전달하려는 저널리즘의 실천’으로 정의했다. 이들은 특히 방송 매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의 주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균형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균형성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정의된다:

(1) 다양한 관점의 반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언론은 한쪽 입장만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모든 주요 관점을 공정하게 다뤄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기계적 균형에 대한 논쟁이 나타날 수 있지만, 다양성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

(2) 이익의 균형 유지

언론은 특정 집단이나 이익만을 대변하지 않고, 공공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이는 일종의 불편부당성과도 이어지는 개념인데,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함을 의미한다.

할린과 만치니는 방송이 신문 등 다른 매체보다 균형성을 유지하는 데 더 높은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고 보았다. 이는 방송이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며, 대중이 접근하는 주요 정보원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균형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3) 방송의 공공성

방송은 전파를 통해 대중에게 정보를 전달하며, 전파는 공공 자원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방송은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공공 전체의 이익을 반영할 책임이 있다. 다만 YTN의 경우 전파의 공공재적 특성과는 다른 관점에서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는 지분 구조에 있어서 공공기관이 지배적인 주주로 있었기 때문에 공공성을 통한 균형이 중요하게 여겨졌지만, 민영화 이후에는 다른 관점의 공공성 추구가 필요하다. 특히 폭스뉴스와 같은 정파성을 가진 뉴스 전문 채널이 발달한 미국 사례와 비교해볼 때, 공공성 논의는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

(4) 정치적 다양성 반영

방송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균형 있게 다룸으로써 대중이 특정 정파에 치우치지 않은 정보를 바탕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다원적 사회에서 균형성은 갈등을 완화하고 민주적 합의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5) 대중적 접근성

방송은 다른 매체보다 대중적 접근성이 높아, 공정하지 못한 정보가 전달될 경우 그 영향이 훨씬 더 광범위하게 미친다. 균형성을 유지함으로써 방송은 정보의 왜곡을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방송의 대중적 접근성이 크게 축소된 상황으로 방송의 대중적 영향력만으로 균형성을 요구하기 어려워졌다.

할린과 만치니는 균형성을 방송 공정성(fairness)의 핵심 요소로 간주하며, 균형성이 공정성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보았다. 공정성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려는 균형성의 실천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 대중은 충분히 정보화된 상태에서 민주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러한 균형성을 실현하기 위해 그들은 크게 네 가지의 원칙을 제시하였다.

첫째, 다양한 관점의 보도이다. 언론은 특정 사건이나 이슈에 대해 한쪽 입장만을 보도해서는 안 되며, 상반되는 모든 주요 관점을 포함해야 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는 사건을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정치적 중립성이다. 특히 공영방송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이념에 치우치지 않은 보도를 해야 한다. 이는 방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셋째, 편집권의 독립성이다. 언론의 편집권이 정치적·상업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는 균형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다. 넷째, 규제와 모니터링이다. 방송의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나 독립적인 규제 기관이 공정성과 균형성 준수를 감시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할린과 만치니는 앞서 맥퀘일, 슈드슨과 마찬가지로 균형성을 위협하는 요소로 정치적, 상업적 압력을 꼽았는데, 그 외에도 문화적 편향과 관련된 문제도 제기했다.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회에서는 특정 문화나 이념이 과도하게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균형성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다문화 사회로 이행하고 있는 한국사회 방송 저널리즘의 역할과 관련해 주목할 부분이다.

종합하여 보면 할린과 만치니의 균형성 개념은 방송의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 다양한 관점을 공정하게 반영하고 공공의 이익을 고려한 보도를 강조한다. 균형성은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정치적·상업적 압력과 같은 위협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와 언론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된다.

4) 책임성(Accountability)

방송의 책임성은 방송사가 제공하는 콘텐츠와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에 대해 책임을 지는 윤리적·제도적 원칙을 말한다. 이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대중과 사회에 대한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개념을 포함한다. 방송의 책임성은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신뢰를 형성하고, 민주적 사회의 공익을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대중은 방송의 신뢰성을 바탕으로 정보에 접근하므로, 방송사는 이를 의식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책임성은 방송사가 자신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 답변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맥퀘일은 책임성을 “언론과 대중 간 신뢰를 유지하고, 공익을 위해 보도와 콘텐츠의 질적 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정의했다(McQuail, 1992). 이는 방송이 제공하는 정보와 오락물이 대중의 권리와 사회적 가치에 부합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런 책임성은 크게 세 가지 범주로 나뉘는데, 법적 책임은 방송사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고, 윤리적 책임은 방송사가 사회적 가치와 규범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 도덕적 의무이며, 사회적 책임은 대중의 알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 의무이다. 책임성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1) 공익 실현

방송은 단순히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public interest)을 실현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공익은 사회적 통합, 문화적 다양성 존중, 정치적 참여 촉진과 같은 요소를 포함한다. 슈드슨은 “방송은 대중이 공공 문제를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chudson, 2001).

(2) 투명성

책임성을 유지하려면 방송사가 투명한 운영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이는 대중이 방송사의 의사결정 과정과 콘텐츠 제작 과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한다.

(3) 오류 수정

방송사는 보도나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를 인정하고, 이를 수정할 책임이 있다. 이는 대중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방송사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4) 규제와 모니터링

책임성을 유지하기 위해 방송사는 정부, 독립적인 규제 기관, 또는 시민단체의 감시를 받을 수 있다. 맥퀘일은 “책임성은 방송사의 자율성과 외부 규제의 균형을 통해 실현된다”고 설명했다(McQuail, 2010).

방송의 책임성은 다음의 세 가지 이유로 중요하다. 첫째, 대중의 신뢰 유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책임성은 방송사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대중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핵심적이다. 신뢰가 결여되면 방송은 대중의 지지를 상실하고, 사회적 역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다.

둘째, 민주주의 지원 측면에서 중요하다. 책임성 있는 방송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이 민주적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다. 이는 대중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공공 문제에 대한 논의의 질을 높인다.

셋째, 사회적 책임 수행 측면에서 중요하다. 방송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고,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갈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성은 다음의 세 가지 조건에 의해서 위협받기도 하는데, 상업화와 정치적 압력, 디지털 미디어 환경 등이다. 상업화와 정치적 압력은 앞서 맥퀘일, 슈드슨, 할린과 만치니의 연구에서도 언급된 바 있는데, 이 외에도 현재의 디지털 환경 변화도 책임성을 위협한다.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정보의 생산과 유통이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전통적인 방송사의 책임성이 약화될 위험이 있다. 실제로 많은 언론이 레거시 미디어 외에 유튜브 등의 디지털 채널을 운영하면서 윤리적 책임을 방기한다는 비판을 듣기도 한다.

2. 방송과 신문의 공정성 차이

방송의 공정성은 신문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매체의 특성과 사회적 영향력, 대중성과 같은 요인에 기인한다. 방송은 접근성, 실시간성, 시각적·청각적 전달 방식 등의 특성으로 인해 여론 형성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특성이 방송 공정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거가 된다.

1) 매체의 특성 차이

(1) 접근성

방송은 신문에 비해 더 광범위한 대중에게 접근할 수 있다. TV나 라디오 같은 방송 매체는 문자 해독 능력이나 특정 기술적 지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소비할 수 있다(Thussu, 2000). 특히 방송은 농촌 지역이나 고령층 등 정보 취약 계층에서도 널리 소비된다.

방송의 높은 접근성은 공정성의 필요성을 강화한다. 만약 편향된 정보가 제공된다면, 이는 대중의 왜곡된 인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반면, 신문은 독자의 선택과 능동적인 탐색을 요구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정성 문제가 덜 부각된다.

(2) 실시간성

방송은 실시간으로 뉴스를 전달하며, 사건이 발생하는 순간 바로 보도할 수 있다. 이는 정보의 즉각성을 강조하지만, 동시에 공정성을 훼손할 가능성을 높인다. 실시간 보도에서 오류나 편향이 발생할 경우, 이는 대중에게 빠르게 퍼져 잘못된 여론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신문은 주로 하루 단위로 발행되므로, 정보 검증과 편집 시간이 상대적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방송의 실시간성은 신문에 비해 공정성의 중요성을 더 크게 만든다(Bertrand, 2000).

2) 사회적 영향력 차이

(1) 시청각적 전달 방식

방송은 영상과 음성을 통해 정보를 전달하므로, 신문보다 더 생생하고 설득력 있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McQuail, 1992). 이러한 전달 방식은 시청자의 감정과 의견 형성에 강한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특정 정치적 견해를 지지하는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노출하거나, 특정한 어조와 편집 방식을 사용해 사실을 과장하거나 축소할 경우, 시청자들의 인식은 쉽게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의 공정성은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사회적 영향력의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2) 여론 형성의 핵심적 역할

방송은 신문에 비해 여론 형성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은 대중이 사회적, 정치적 문제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디어 의존 이론(Media Dependency Theory)에 따르면, 사람들이 정보에 의존하는 정도는 매체의 중요성과 관련된다(Ball-Rokeach & DeFleur, 1976). 방송은 신뢰성과 대중성을 바탕으로 주요 정보원으로 기능하며, 따라서 공정성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거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대변할 위험이 있다.

3) 규제와 책임의 차이

(1) 공공재로서의 방송

방송은 공공의 전파를 사용하므로, 공익을 위한 책임이 강조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방송을 법적으로 규제하며, 공정성을 중요한 원칙으로 설정한다. 반면 신문은 사적 소유와 시장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며, 표현의 자유라는 원칙 아래 비교적 규제의 제약이 적다. 따라서 방송은 법적·사회적 규제의 대상이 되며, 이는 공정성 유지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만든다.

(2) 방송사의 공적 책임

공영방송은 공익을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특히 높은 수준의 공정성을 요구받는다. 공영방송은 세금이나 공공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특정 정치적·상업적 이해관

계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반면, 민간 신문은 시장 논리에 따라 운영되며, 이윤 추구와 특정 독자층을 겨냥한 편향성을 어느 정도 용인받는다 (Humphreys, 1996).

방송의 공정성이 신문에 비해 중요한 이유는 방송의 특성과 사회적 역할, 그리고 규제와 책임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방송은 접근성과 실시간성을 통해 더 많은 대중에게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시청각적 전달 방식으로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다. 또한,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법적 규제를 통해 공정성을 더욱 강조받는다.

따라서 방송은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더욱 엄격한 윤리적·법적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 이는 단순히 사실 전달의 차원을 넘어, 민주주의와 사회적 신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방송 공정성과 관련한 해외 사례

방송의 공정성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수적인 가치로, 이를 보장하기 위해 각국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국가별로 각기 다른 정치·사회적 배경을 기반으로 방송 공정성을 규정하고 실행하며, 이러한 차이는 국가의 방송 환경과 규제 철학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는 공영방송이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영국과 상업방송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1) 영국의 방송 공정성

(1) 법적 기반

영국은 방송 공정성을 매우 엄격히 규제하며, 그 법적 기반은 「통신법」(Communications Act 2003)과 「방송법」(Broadcasting Act 1990)에 명시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에 따르면 ‘모든 방송은 정치적·상업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또 ‘공공 서비스 방송(PSB)은 공익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해야 하며, 다양한 관점을 균형 있게 다루어야 한다.’

(2) 제도적 장치

영국은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운영한다. 오프콤(Ofcom)은 방송 콘텐츠를 규제하는 독립 기구로, 방송사가 공정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엄격한 제재를 가하는 기구로 작동한다. OFCOM은 방송사가 정치적, 상업적, 문화적 편향 없이 공정하게 정보를 전달하도록 규제한다.

또 공영방송 체제가 공정성의 핵심으로 작동하는데, BBC를 포함한 공영방송 시스템이다. BBC는 칙허장(Royal Charter)에 따라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다양한 의견을 공정하게 다루도록 규정한다.

(3) 문제점 및 한계

영국의 공정성 규제는 엄격하지만,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공정성 규제가 전통적 방송사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지적된다. 특히,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공정성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2) 미국 방송의 공정성

(1) 법적 기반

미국은 방송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과거에 「공정성 원칙(Fairness Doctrine)」을 도입했다. 이 원칙은 연방통신위원회(FCC)가 1949년에 채택한 정책으로, 방송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다양한 시각을 공정하게 보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1987년 FCC는 공정성 원칙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폐지했다.

(2) 제도적 장치

미국에서는 방송 공정성을 직접적으로 규제하기보다는, 시장의 자율성과 언론의 자유를 강조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방송의 공정성을 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첫째, 공공의 전파 사용과 관련한 부분이다. 방송사는 연방정부로부터 전파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둘째, FCC의 라이선스 갱신 제도이다. 방송사는 일정 기간마다 FCC로부터 라이선스를 갱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공익성 평가를 받는다.

(3) 문제점 및 한계

미국은 공정성 원칙 폐지 이후 특정 방송사가 편향적인 보도를 하거나, 정치적 논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증가했다. 특히, 폭스뉴스와 MSNBC 같은 방송사들이 특정 정치적 입장에 강하게 치우친 보도를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4. YTN의 공정성

1)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정성

우리나라의 방송법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제2항에서 방송편성의 차별 금지, 소수 이익 보장, 정치적 의견 개진에 있어 균등한 기회 보장 등이 언급¹⁾되어 있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은 ‘대립된 사안에서 균형성’, ‘방송편성의 차별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또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0조(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에서는 공정성에 대한 직접적 문제제기는 아니지만, 방송에서 사실과 의견을 구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기계적 균형성과 적당한 불편부당성

YTN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기계적 균형성뿐만 아니라, ‘적당한 불편부당성’에 가까운 개념으로 내부 구성원들이 끊임없이 조율하는 절차로 작동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되,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문제로 여겨지는 논쟁적 사안에 대해서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견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1) 제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②방송은 성별·연령·직업·종교·신념·계층·지역·인종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방송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⑨방송은 정부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공표하는 경우 의견이 다른 집단에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에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3) YTN의 공정성을 구성하는 주요 개념 제언

앞서 살펴본 저널리즘 이론과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기반한 YTN이 추구하는 공정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1) 정확성

방송 내용이 반드시 사실에 기반해야 하며, 왜곡 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팩트체크 등의 절차를 제도화 해야 한다.

(2) 균형성

대립되는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동일 프로그램에서 입장을 양적으로 균형적으로 배분하되, 그렇지 못할 시에는 전체 편성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

(3) 불편부당성

특정한 당파적 이익에 치우쳐 다루지 않되, 허용하는 이념적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주요 견해는 적절하게 비중을 두어 보도해야 한다.

(4) 차별금지

민주적 다원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소수의견을 다룰 때 기계적 균형에 얽매이지 말고 비중을 두어 충실하게 반영

(5) 의견의 표시

사실이 아닌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 의견임을 구별함으로써 시청자의 오해를 방지

(6) 객관성

방송 제작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사실에 기반해서 제작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YTN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요소를 6가지로 세분화하였다. 일부 개념들의 경우 의미가 중복되는 부분도 있으나 차이점을 중심으로 해당 공정성을 강조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실천적 측면에서 구성한다면 크게 세 가지 방법들을 제시할 수 있는데, 첫째, 다양한 소스 활용으로 동일한 주제를 다룰 때, 다양한 출처에서 정보를 얻어 균형을 맞추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전문가 의견 반영으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자기 점검 메커니즘을 갖는 것이다. 언론사가 내부적으로 편향성을 점검하고 시청자의 피드백을 반영함으로써 가능하다.

II YTN의 공적 책임

1. 방송의 공적 책임 개념

방송의 공적 책임(public responsibility of broadcasting)은 방송사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며, 공익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회적, 윤리적, 법적 의무를 뜻한다. 이 개념은 미디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여론 형성과 공론장 역할을 수행하며, 단순한 상업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이와 관련해 맥퀘일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는 미디어의 역할’로 정의하며, 이를 위해 방송사가 공익성, 공정성, 다양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McQuail, 1992). 즉, 방송은 대중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사회적 통합과 공공선의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따른 공적 책임의 주요 요소는 아래와 같다.

- 1) 공익성: 방송은 사회적 통합과 공공의 이익을 증진해야 한다.
- 2) 다양성: 다양한 의견과 문화를 반영하고, 소수자 및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
- 3) 공정성: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관점에서 균형 잡힌 보도를 제공해야 한다.
- 4) 책임성: 콘텐츠 제작과 보도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5) 투명성: 대중에게 의사결정 과정과 운영 방식을 공개하고, 정당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공적 책임 개념은 20세기 초 공영방송의 등장과 함께 발전했다. 영국 BBC는 1927년 설립 당시부터 ‘국민의 이익을 위한 공공 서비스’를 강조하며 공적 책임의 선구적 역할을 했다. BBC는 칙허장(Royal Charter)을 통해 공정성, 정확성, 공익성이라는 핵심 가치를 유지하도록 규정되었다.

민영방송의 확산 이후에도 공적 책임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로 남아 있다. 민영방송은 상업적 이익을 추구하지만,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일정한 법적·제도적 규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방송사업자의 공적책임 준수 여부를 평가, 점검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의 확산은 방송의 공적 책임에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했다. 전통적 방송사뿐만 아니라 OTT 서비스와 소셜 미디어 플랫폼도 공적 책임의 범주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레저시 미디어인 방송의 콘텐츠가 디지털 형태로 유통될 때 공적책임의 영역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의 판단도 중요해지고 있다.

2. 방송의 공적 책임 부여 근거

1) 공공수탁론

공공수탁론은 방송사업자가 희소한 공적 재화인 주파수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특혜를 받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공적 책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과거 지상파 방송사업자가 주파수를 통해서만 신호를 보냈던 상황에서 적용된 이론으로 국민의 재산인 전파를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송사로서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접근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지상파 방송의 직접수신율은 2.2%에 불과하며, 2017년 도입 첫째 5.3%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2018년 4.2%, 2019년 2.6%, 2020년 2.3%로 해마다 직접수신율이 하락해왔다. 가구당 UHD TV 보급율이 2017년 4.1%에서 2021년 14.7%로 해마다 증가한 것과 대비되는 수치이다. 또한 대다수의 국민들은 유료방송을 통해 지상파를 시청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수탁론 개념은 YTN의 공적 책임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다만 지상파인 YTN FM 채널의 경우 공공수탁론 개념에서 접근할 수 있다.

2)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

불특정 다수에게 무차별적으로 산포되는 영상 정보들이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이 강력하기 때문에 방송사업자에게 공적 책무를 지워야 한다는 논리이다. KBS, MBC, SBS 등 지상파 방송이 유일한 영상 매체였던 시기의 방송의 파급력은 막대했으며, 방송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 등이 설정한 우리 사회의 주요 의제들은 국민들에게도 주요 의제로 수용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방송의 영향력이 막대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지상파 전성 시대의 방송의 공적 책임성의 근거였다. 이러한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기조는 다채널 시대가 되어 유료방송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OTT나 유튜브 등 통신망을 주로 이용하는 방송 형태의 콘텐츠 사업이 활성화된 이후에도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3. 방송의 공적 책임 종류

1) 정보 제공 책임

정보 제공 책임은 방송의 핵심적인 공적 책임이다. 방송사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대중에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방송이 대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뉴스 보도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보도에서 정확성과 공정성은 매우 중요하다.

뉴스의 공정성에 있어서 방송 뉴스는 사실에 기반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보도를 해야 한다. 편향된 보도는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정치적 편향이나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 왜곡된 보도를 방지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방송은 다양한 관점에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한 정치적 이익을 위한 정보 제공이 아니라, 모든 시청자가 다양한 시각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방송은 정보의 균형을 맞추고, 그 정보가 사실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보장해야 한다(김광수, 2017).

2) 공공의 이익 추구 책임

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해야 한다. 방송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 방송사는 그 콘텐츠가 공공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해야 하며, 사회적 약자와 소외된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는 교육적 책임과 문화적 책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교육적 책임은 방송이 교육적인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아동, 청소년, 성인 등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방송은 사회적 통합과 개인의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공공 캠페인이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윤리를 전달할 수 있다.

문화적 책임은 방송이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송은 사회적,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를 반영하는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이는 사회의 문화적 풍요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박인호, 2018).

3) 광고의 공정성 책임

방송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지만, 그 광고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해야 한다. 광고의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일 경우, 이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고, 방송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방송사는 광고가 공정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허위 광고 방지의 의무가 있다. 방송사는 광고가 과장되거나 허위가 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허위 광고는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아동과 청소년 보호에 힘써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광고는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이들은 광고에 대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의 보호는 더욱 중요하다(김상호, 2019).

4)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이익 간의 균형

방송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하지만, 그 자유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춰야 한다. 표현의 자유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면, 사회적 갈등이나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는 그 자유를 행사할 때 공공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혐오 발언(hate speech) 방지에 힘써야 한다. 방송사는 혐오 발언이나 차별적인 발언을 방지해야 하는데, 혐오 발언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정 집단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

방송에는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책무도 부여된다. 방송은 성차별, 인종차별, 성적 지향 차별 등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다룰 때,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건설적인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방송은 문제를 부추기기보다는 사회적 개선을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다루어야 한다(이종석, 2020).

5)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방송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유지하고,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은 특정 정치적 입장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편향을 보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방송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다.

우선 정치적 편향성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사는 특정 정치적 입장이나 정당을 지지하는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 방송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며, 균형 잡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사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방송사는 정부나 기업의 압력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방송사의 독립성은 국민에게 신뢰를 주고, 민주적 절차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박인호, 2018).

6) 기술적 책임

방송사는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더 나은 품질의 방송을 제공해야 한다. 기술적 발전을 반영한 방송은 시청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방송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디지털 방송, 고화질 방송 등은 방송사의 중요한 기술적 책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방송사는 방송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HD 방송, 4K 방송 등 고화질 방송을 제공함으로써 시청자에게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 방송은 디지털 방송의 확대 책무도 부여받았다. 디지털 방송 기술을 활용하면 더 많

은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다양한 지역과 계층의 사람들에게 방송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방송사는 디지털 방송을 확장하고, 이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김상호, 2019).

7) 방송사 내부 윤리적 책임

방송사는 외부의 공적 책임을 다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한다. 방송사는 부패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방지하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이에 방송사는 내부적으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방송사의 윤리적 기준은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방송 콘텐츠 제공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 또한 내부 검열과 자율 규제도 필요하다. 방송사는 자율적인 검열과 규제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해하고, 방송사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미리 예방하고, 투명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종석, 2020).

4. YTN의 공적 책임 방향

1)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적책임

우리나라 방송법 제5조(방송의 공적 책임)는 5개의 세부 항목, 제3조(시청자의 권익 보호)에서 공중 시청자의 권익보호 측면에서 공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는 16개 항목을 통해 방송법에 비해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공적 책임은 ‘규제적 의무’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제작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준칙(가이드라인)을 갱신해 나가고, 이는 내부 구성원들의 숙의를 통해 체계화될 필요가 있다.

2) 공적 의무에 대한 철저한 준수

방송법,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에 기반한 YTN이 수행해야 하는 공적 책임을 다시 분류하면 ‘헌법 차원’, ‘개인 차원’, ‘민족/국제 차원’, ‘문화 차원’, ‘사회 규범 차원’, ‘안전 차원’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표 1> YTN의 공적책임 제언

공적 책임에 대한 법률 규정	차원	
다양한 의견과 사상을 적극적으로 다루어 사회의 다원화에 기여하여야 한다.	헌법	민주주의
국민의 화합과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세대간·계층간·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국민의 화합과 민주적 여론형성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기본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국민이 필요로 하고 관심을 갖는 내용을 다룸으로써 공적 매체로서의 본분을 다하여야 한다.		알권리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평등
조화로운 국가의 발전 및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국민의 윤리의식과 건전한 정서를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사회 규범	
환경보호에 힘써야 하고 자연보호 의식을 고취하여야 한다.		
노동의 가치와 직업의 존귀함을 존중하여야 한다.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민족의 주체성을 함양하고 민족문화의 창조와 계승, 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민족/국제	
남북한 통일과 문화교류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인류보편적 가치와 인류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국제친선과 이해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 문화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문화
바른말을 사용하여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인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 또는 제작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방송의 결과가 시청자의 이익에 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재해 또는 재난에 관한 사실을 신속하고 정확하며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안전

YTN이 구현하고자 하는 공적 책임은 방송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 등에서 제시하는 규제 형태의 의무를 따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르면 YTN은 인간 존엄 가치와 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방안, 민주적 여론형성 방안, 명예훼손 및 권리침해 방지 방안, 범죄·부도덕 행위·사행심 방지 방안, 청소년 유해 콘텐츠 방지 방안에 대한 구체적 실천안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FGI 형태의 심층인터뷰 방법론을 사용하면서 추상적인 개념보다는 현실 적용 가능한 범위로 공적책임 요소들을 축소하였다. 이를 통해서 측정을 위한 공적 책임은 ‘상식과 공론장 제공’, ‘다양한 정보 제공’, ‘지식과 학습의 고양’, ‘교육적 가치 부여’ 등으로 제시되었다.

III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용자 심층인터뷰 분석

1. 조사개요

YTN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실시하였다. FGI는 참여자 그룹을 구성하여 토론과 분석을 통해 연구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질적 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의 하나로 주요 이슈를 파악하는데 활용된다(이은혜, 2024)

FGI 방법을 선택한 이유는 우선 짧은 기사들이 연속적으로 방송되는 뉴스 프로그램과 달리 시사 프로그램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주제를 뉴스보다 상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순 내용분석과 같은 양적 방법보다 이용자의 인식이나 의견을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질적 방법이 더 유효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연구 대상이 되는 YTN 시사 프로그램의 경우 대부분 방송을 시작한지 1년 미만인 경우가 많으며, 타 지상파 및 종합편성채널 시사 프로그램 대비 시청률이 낮아 직접적인 시청경험이 있는 시청자를 대상으로 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아울러 본 연구의 핵심인 공정성이나 공적 책무와 같은 개념들이 추상화 수준이 높은 개념으로 개별 프로그램 시청자마다 이해하고 있는 개념이나 판단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질적 방법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이다.

YTN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과 공적 책무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위해 FGI 전문 업체인 그로쓰헬퍼(Growth Helper)를 통해 FGI 참여 인원을 모집하였다. 사전에 설정된 조건에 따라 적합한 참석자를 선발하였고, FGI를 위한 질문 가이드를 작성하였다. 질문 가이드는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이 되는 공정성과 공적 책무라는 큰 범위보다 이를 구성하는 하위 개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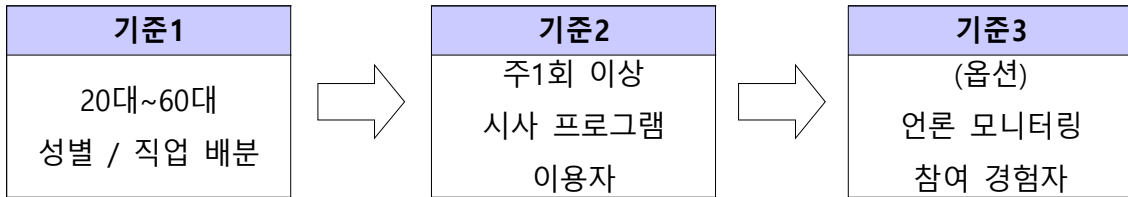
이를 통해 모집된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진들이 FGI를 진행하였으며 인터뷰 후 녹취록을 바탕으로 YTN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과 공적책임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 정리, 분석하였다.

1) 참석자 선발 및 구성

FGI 참석자는 주 1회 이상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사람으로 한정하였으며 필수

사항은 아니었으나 기존에 언론모니터링과 같은 관련 경험이 있는 경우를 우대하여 선발하였다. 이는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자기 나름대로의 내부적 기준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의견 교환 등을 통해 풍부한 인터뷰 결과를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림 1> FGI 인터뷰 참석자 선발 기준



참석자 선발 이후 3개 시사 프로그램에서 총 18편의 콘텐츠를 선정 한 후 모든 참석자들에게 YTN 시사 프로그램 9편의 링크를 전달해 해당 프로그램을 모두 시청한 후 FGI 참석하도록 했다. 사전에 선정한 3개 시사 프로그램은 팩트추적, 다큐24, 컬처인사이드로 해당 프로그램을 선정한 이유는 다른 YTN 시사 프로그램의 성격이 연성 뉴스 중심이거나 시사와 큰 관련성이 없는 캠페인성 프로그램이거나 진행방식과 내용구성이 대담이나 인터뷰 형식인 경우가 다수였기 때문이다.

FGI를 2그룹으로 나눠 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해당 프로그램들에서 총 18편의 콘텐츠를 선정한 후 참여자들에게 9편을 시청하도록 사전에 미리 고지하였다. FGI는 20대~30대와 40대~60대 2개 그룹으로 진행되었으며 개별 그룹내에서는 동일한 콘텐츠를 시청했으나 2개 그룹 간에는 겹침 없이 서로 다른 콘텐츠를 시청하도록 하였다. 세부 시청 콘텐츠 선정은 연령과 성별 등을 고려해 FGI 참여자의 관심을 끌 수 있거나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소재를 다루는 콘텐츠를 주로 선정하였다.

<표 2> FGI를 위한 사전 시청 프로그램 목록

프로그램명	내용	방송날짜
팩트추적	'그들'에게 더 가혹한 겨울, '기후 불평등'	2024-12-18
	'사장님의 눈물'과 서글픈 '반쪽 호황'	2024-11-20
	황혼의 삶을 옥죄는 노노(老老)간병	2024-10-02
	"보복 두려워 합의" 목숨 건 이별, '교제 폭력'	2024-09-11
	"31년 뒤면 공간 바닥"...기로에 선 '연금 개혁'	2024-08-29
	새만금 잼버리 폐막 1년... "뒤틀수습 과정도 논란"	2024-08-07

다큐24	1화_당신은 요즘아빠인가요?	2024-06-29
	2화_위드 치매	2024-07-27
	4화_모두가 예술	2024-09-28
	5화_오늘은 쉬어도 돼_청년자립보고서	2024-10-26
컬처 인사이드	복덩이 된 'K-콘텐츠'...배우 할리우드 진출도 ↑	2024-11-30
	"방구석 오타쿠는 옛말"...'취향 존중' 성지가 된 홍대	2024-11-23
	매트리스 남은 천으로 조끼를?...'지구 구하기' 나선 패션업계	2024-11-16
	'책 붐' 속 출판계 민낯도...한강 신드롬이 남긴 것	2024-11-09
	엔데믹에도 '뜨개인' 증가 ..."돈으로 살 수 없는 성취감"	2024-11-09
	MZ는 '숯폼' 중독?...다시 뜨는 '고전 SNS' 블로그	2024-11-02
	직접 배우고, 아이돌처럼 열광...K-무용 '인기'	2024-10-26
	"예능 아닌 드라마"...'흑백요리사' 이유 있던 돌풍	2024-10-19

2) 집단별 참석자 구성

FGI 참석자는 전문 업체를 통해 필요 인원의 2배수를 1차 모집한 후 연령, 성별, 직업, 언론 및 언론 모니터링 경력 등을 고려해 총 10명을 최종 확정했으며 연령을 기준으로 20대와 30대를 첫 번째 집단으로, 40대 이상을 두 번째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최종 선발된 FGI 참여자는 연령별로 20대 2명, 30대 3명, 40대 2명, 50대 2명, 60대 1명이었으며 성별 기준으로는 여성 4명, 남성 6명이었다. FGI 참여자 중 기존에 뉴스나 방송 프로그램 모니터링 유경험자는 전체 참여자의 50%인 5명이었다.

<표 3> 20대~30대 FGI 그룹 참여자

그룹	참석자	성별	직업	모니터링 경험
A 그룹	20대 A	여성	대학생	○
	20대 B	남성	대학생	
	30대 A	여성	강사	
	30대 B	남성	대학원생	
	30대 C	남성	프리랜서	○

<표 4> 40대 이상 FGI 그룹 참여자

그룹	참석자	성별	직업	모니터링 경험
B 그룹	40대 A	남성	직장인	○
	40대 B	남성	회계사	○
	50대 A	여성	공무원	
	50대 B	여성	프리랜서	
	60대 A	남성	직장인	○

3) FGI 진행 및 일정

FGI는 2025년 1월 7일 오후 1시와 4시에 각각의 집단별로 광화문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개별 그룹 당 인터뷰는 2시간 동안 진행되었으며 연구진이 참여하여 사전에 작성된 질문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터뷰를 진행하였으며 질문에 따라 참석자들이 충분히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주요 질문들은 시사 프로그램 시청 패턴을 시작으로 사전에 시청한 프로그램에 대한 총평, 주제와 내용의 공정성, 다양성, 지식과 교육 같은 정보 특성 등 공적 책무와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기본적으로 작성된 가이드를 기준으로 질문이 진행되었으나 참여자 응답에 따라 질문순서 변경 및 제외, 추가 질문 등이 이루어졌다.

<표 5> FGI 진행 일정 및 참여자

	그룹A	그룹B
일시	2025년 1월 7일 오후 1시	2025년 1월 7일 오후 4시
연령대	20대 ~ 30대	40대 이상
성별	남성 3, 여성 2	남성 3, 여성 2
참석인원	5명	5명

<표 6> FGI 기본 질문 가이드

대분류	소분류	질문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용	시청 패턴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청 빈도	
		시사교양 프로그램 시청 패턴	
중요 요소	평가 기준 중요도 인식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 (신속성, 중립성, 객관성, 심층성, 다양성, 균형성 등)	
총평	인상평가	프로그램에 대한 인상평가	
공정성	주제	프로그램 주제 선택의 적절성	
		- 주제 선택에 적절한 시의성이 있는가? - 주제 선택이 편파적이지 않았는가?	
	내용	내용구성의 적절성	
		- 프로그램의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가?	
		- 프로그램의 내용이 편향적이지 않은가?	
		- 프로그램의 내용이 윤리적 상식에 부합하는가? - 다수의 의견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공적책무	상식과 공론장	상식과 공론장
			- 시청자들에게 공통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포괄하고 있는가?
다양성		다양한 정보제공	
		- 시청자들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 다양한 생각과 신념을 반영하고 있는가?	
		-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제공하고 있는가?	
지식		지식과 학습의 고양	
		- 시청자들에게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교육		교육적 가치	
		- 프로그램이 교육적 가치를 담고 있는가?	

2. 시사교양 프로그램 이용 행태

FGI 참여자들의 시사 프로그램 이용행태를 살펴보면 연령대에 따라 시사 프로그램 시청을 위한 미디어와 이용 방식 등에 차별성이 나타나도 있었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통해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고 있었으며 이는 기본

적으로 유튜브(Youtube)를 통한 시청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별도의 TV가 없는 경우 가족 단위 시청 행태도 일부 나타났다.

반면, 40대 이상 연령대의 경우 유튜브를 활용하기도 했으나 모바일 디바이스보다 가정 내 TV를 통해 방송 시간에 맞춰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했다.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는 경우 방송시간을 놓친 경우나 회사 사무실 등 TV로 시사프로그램 시청이 힘든 경우였다.

시사 프로그램 시청 디바이스나 미디어 외 다른 연령별 차별점은 알고리즘에 대한 의존성이었다.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의 경우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계기가 자신의 알고리즘에 관심 있는 주제의 시사 프로그램이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으나 40대 이상 연령층 응답자들은 알고리즘보다 직장 등 시사 프로그램을 유튜브로 볼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직접 검색을 통해 시청한다고 응답했다.

알고리즘에 뜨면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브에서 알고리즘에 뜨는데 화면 자체나 그 카테고리가 제가 흥미가 있다면 이제 클릭하게 되는 것 같아요(30대 A)

유튜브 알고리즘이 뜨느냐 안 뜨느냐 왜냐하면 그거를 한 번 보면 다시 알고리즘 또 뜨고 창이 계속 뜨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아예 접근성 자체가 안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30대 B)

아버지가 집에서 TV 보실 때 가끔 좀 흥미로운 주제가 있으면 그 옆에서 보는 편입니다. (20대 A)

시사프로그램을 보는 편이긴 한데 TV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편입니다. 알고리즘에 뜨면 보는 경우보다 직접 검색해서 시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50대 B)

다른 시사프로그램들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주로 TV로 시청하는 편입니다. 그 외에는 일을 하면서 모니터 두 개를 사용하다 보니

한 쪽에 시사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TV는 생방송으로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유튜브 틀어놓고 들으면서 일하면서 듣는 편입니다. (60대 A)

3.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중요 요소

공정성, 사실성, 객관성, 심층성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시사 프로그램들이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 FGI 참여자들은 공정성과 객관성은 당연히 갖추어야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히려 심층성이나 교육적 정보와 같은 요소들이 더 필요하다는 응답이 주를 이루었다.

사실에 기반해야 하고 편향성이 있으면 안된다. 같은 부분들은 시사 프로그램이랑 상관없이 당연히 지켜야 될 원칙 같은거라고 생각을 해요. (20대 B)

중립을 잘 지키느냐 양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상들도 봤을 때 장애인을 다루는 영상들이 있을 텐데 장애인 시선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또 일반인 시선에서 다루는 것도 조금 차별점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어서 양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대 A)

시사 프로그램들이 의견에 대한 근거나 증거가 좀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시사 프로그램에 의견이 들어가는 건 물론 할 수 있죠. 그런데 들어갈 수는 있는데 우리가 논문 쓰듯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서론 본론으로 나오잖아요. 주장들이 좀 공정하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60대 A)

현재 어떤 이슈가 있고 장점과 단점 같이 서로 대립된 의견이 있으면 그걸 공정하게 소개시켜주면서 그런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40대 B)

이러한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나타나는 또 다른 인식 중 하나는 젊은 연령대 응답자를 중심으로 공정성이 전제된 상황에서 심층성을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단순한 ‘정보’에 대한 욕구로 인식할 수도 있겠으나 유튜브 등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많아진 미디어 환경 속에서 타 매체에 비해 방송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요소를 전문성에 기반을 둔 ‘심층성’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사안을 깊게 다루고 다른 데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시사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사들도 많이 만드니까 사실은 어디서나 비슷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성이 좀 있고 세세하게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30대 B)

사건 같은 것들을 다룰 때도 좀 그냥 있었던 일 그냥 소개하고 말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짧은 영상은 사실 쇼츠로 보고 그게 아니면 좀 깊이있는 영상을 보고 싶을 때 저는 룬폼을 본다고 생각해서 깊이가 있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대 A)

40대 이상 높은 연령대 응답자들의 경우 20대와 30대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공정성을 중요한 요소로 인식하고 있으나 주제나 이슈에 대한 이해를 돕는 내용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회적 의견 대립이나 정치적으로 첨예한 문제일수록 서로 다른 입장에 대한 단순 서술보다 사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적 정보에 대한 욕구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보다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텐데 두서 없이 주장만 말하면 별로 공감이 안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초반에 주제에 대해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충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50대 B)

공정성이나 사실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사 프로그램들을 보면 항상 자기들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서로 대립만 하고 있으니까 실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60대 A)

반면, 기계적 중립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도 일부 존재하고 있었다. 결과에 대한 판단이 명확한 경우에도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기계적 중립을 YTN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신은 기본이지만 너무 기계적인 중립을 내세우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잘못된 거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전부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YTN 같은 경우가 좀 약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구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0대 B)

4.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 공정성과 공적 책임

1) 시사교양 프로그램 주제 선택의 공정성

(1) 팩트추적

팩트추적 주제설정에 대한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들은 우선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기보다 포괄적인 주제 선택으로 인해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평가하는 의견이 우세했다. 또한 방송사 내부 규정 등 공정성에 대한 방송사의 의무나 규정들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주제가 다루어질 수밖에 없는 제작 환경을 언급하기도 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고루 잘 다루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20대 B)

오히려 공정성이나 공적책임에 더 제일 부합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의 목적이 공정성이나 공적책임과 같은 의무에 부합해야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주제 선택과 같은 부분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40대 B)

반면, 포괄적이고 평이한 수준의 주제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실제 참여자들은 팩트추적이라는 프로그램을 이름에서 기대하는 주제선택의 성격이 있었으나 포괄적인 주제를 한정된 시간 내에 다루면서 기억에 남지 않고 휘발되는 현상이 발생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프로그램의 성격으로 인해 차별성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던게 사실이고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후 불평등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

했던 이미지랑 실제 방송에서 보여줬던 콘텐츠 내용이 좀 이질적이라는 다소 이질적인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 C)

주제보다는 구조 자체가 해결책이나 이런 미래의 방향성 부분이 굉장히 휘발적으로 그냥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저희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겪을 일은 사실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잘 안 갔던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10년 전에 틀었다고 해도 솔직히 뭐 10년 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보여줘도 다른 느낌이 딱히 안 들 것 같거든요. (30대 B)

이러한 포괄적인 주제선택에 대한 인식은 공정성 문제를 드러나지 않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으나 시사프로그램으로서의 차별성,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되기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로 인해 내용 측면에서의 공정성 관련 질문에서도 유사한 지적이 이어졌으며 자연스럽게 ‘심층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기도 했다.

(2) 다큐24

다큐24의 경우 프로그램 방송 시작부터 FGI 날짜까지 제작 편수가 6편에 불과해 주제 선택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나갈 수는 없었으나 참여자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고 주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주제로 삼았다는 부분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이는 다큐24가 지닌 ‘휴먼다큐’에 가까운 프로그램 성격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참여자들에게 사전 시청을 요청한 다큐24의 주제가 육아, 치매, 장애인 예술, 청년자립과 같은 일상적인 문제였기 때문이다.

반면, 다큐24의 주제 선택에 대한 의견 중 제작과 취재에 시간에 충분하고 러닝타임도 상대적으로 길다는 특성을 고려해 시간이 제한된 팩트 추적과 달리 심층적으로 다룰 수 있는 주제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편향성에 대해서 큰 이견이 없었던 주제선택에 대한 의견과 달리 내용적인 부분에

서는 편향성에 대한 인식이 드러나고 있었으며 이는 선택한 주제를 어떤 방식으로 다룰 것인가에 대한 문제제기로 이어졌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노노 간병 같은 거 보면 요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제작 쪽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사실 기후 위기나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사회적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들 수 있는 범위가 거기서 거기일 수밖에 없지 않나 사실 주제는 딱히 선정할 만한 게 좀 따로 없지 않나 그나마 교제 폭력이나 간병 문제가 과거 시사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발굴을 해서 한 주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30대 B)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 것 같고 그리고 누구나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런지 약간 분위기는 어두운 면을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특정 다수의 모두에게 일어날 일들이니까 잘 선정을 했다고 생각해요. (40대 A)

다큐24는 그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특정된 사례나 좀 그런 거에 대해서 다뤄주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20대 B)

(3) 킨치 인사이드

킨치 인사이드의 경우 문화, 연예, 스포츠 등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고 있었으며 선택한 프로그램 중 상대적으로 가벼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때문에 주제 선택에 대한 편향성 의견은 인터뷰 및 논의 과정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았으며,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공정성과 편향성 측면에서는 가장 긍정적인 응답을 받기도 하였다.

편향성적인 측면에서 컬처인사이드가 그래도 좀 덜 편향되었던 것 같거든요.(30대 C)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 다들 자극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그런 거를 만드는데 YTN에는 컬처인사이드 같이 그러지 않는 게 장점이고 힘이거든요. (50대 A)

2) 시사교양 프로그램 내용 구성의 공정성

(1) 팩트추적

상대적으로 젊은 20대와 30대 연령층의 경우 공정성을 ‘설명이나 근거의 편향성’으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았다. 오히려 수치와 시각화된 근거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가 존재했으며, 포괄적인 주제 선정과 이에 따른 내용 구성으로 인해 중요한 사실들이 일부 누락되거나 다루어지지 않는 측면에 보다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 불평등이 있으면 사실 저는 그 생태계 유해종이나 이런 거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붉은귀거북 대량 발생과 같은 이슈도 심각하다고 보는데 좀 차라리 기후 불평등이라는 대주제 말고 좀 소주제로 넘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20대 A)

서론만 거창하고 결과나 과정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한데 향후 예상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이미 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시다. (30대 A)

포괄적인 부분도 있고 딱히 해결책이나 뭐 그런 게 딱히 제시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항상 듣던 얘기 항상 어민들이나 농민들 항

상 당하던 불평등 그냥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오히려 관심이 더 안 갔던 것 같아요.

사실 관련된 거는 사실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넘어가지만 표나 그런 것도 그래프나 이런 걸 보여주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그런지 제가 확인을 하면서 시청자 입장에서 확인을 하면서 지나가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이겠거니 어느 정도 신뢰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30대 B)

반면 40대 이상 참가자의 경우 공정성을 사실에 대한 객관적 설명,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균형 등과 같이 인식하기보다 ‘설명해야 하는 사실의 누락’으로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 때문에 사전 시청을 요청했던 프로그램 중 연금개혁편에 대해 직장인과 전혀 다른 환경에 처해있는 자영업자에게 적용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었다는 부분을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자영업 폐업 관련 콘텐츠에 대해서도 폐업하는 자영업과 이와 관련된 폐업 전문 철거업체의 현황에 경중을 두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프로그램이나 개별 콘텐츠의 ‘기획의도’를 필요한 사실의 누락이 발생하는 하나의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이는 방송사의 한정된 시간과 자원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점이였다. 그리고 음악과 같은 영상이나 설명 외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실제 내용이나 화면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 ‘불일치’ 또한 공정성의 저해 요인으로 인식했다.

내용 자체의 흐름이 지금 방송사에서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쪽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들이 이런 걸 하려고 취재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모으고 모은 정보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게 아니라 자기들이 처음부터 기획했던 거를 오늘은 팩트 추적에서 이 부분만 결론을 내겠다. 그런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이 흡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연금개혁도 마찬가지로 연금 개혁이 필요한데 서로 세대 간 갈등도 많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사실 내용을 보면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도 직장인들은 50%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자영

업자는 100%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자영업 관련 내용도 자영업자가 망해가는 과정을 쓰고 뒤에 철거 업체가 이렇게 우리는 흥한 거지만 좀 안타깝다. 근데 그게 흐름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흐름이 사실은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진짜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지 맨날 야 어디 망할 놈 없어 찾아 다니는 건지 그런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연계 해서 하는 게 좀 똑같은 시간을 비중을 두고 여기서 하는 게 무리 수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요. (60대 A)

뉴스는 정말 밥먹으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보는데 시사 프로그램은 선택적으로 방송을 섭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하지만 밸런스가 살짝 안 맞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여러 입장을 조금씩 다루고는 있는데 그래도 방송 시간으로 이렇게 보면 약간 하나의 입장이 조금 더 부각되고 인터뷰도 좀 그쪽 사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자체가 편집된 거니까 그걸 분량으로 보면 그것도 만약에 의도된 편집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40대 A)

연금 개혁 이슈를 예로 들면 세대별 인터뷰를 다 해가지고 하는 건 좋았는데 자영업자의 의견 자체는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다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편향이라고 보기에는 심층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수밖에 걸랄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뭔가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계속 우리는 공정하다. 우리는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다는 거를 계속 이렇게 수치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50대 B)

음악이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자영업자 관련 내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약간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것처럼 그런 주제는 아닌데 음악이 약간 좀 으시시하다고 그럴까 그게 좀 거슬리긴 했어요.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처음에 사장님의 눈물과 서글픔 그거 할 때 좀 약간 이렇게 무슨 심각한 그런 음악처럼 좀 들리긴 했어요. (50대 B)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인식은 내용구성의 심층성과 다양성에 대한 요구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한정된 짧은 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부분은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나 정책이나 드러나 현상에 대한 후속 조치, 대안, 시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소주제별 분할 등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했다.

짧은 시간 안에 넣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저도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시사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가져야 하니까 미래적인 부분이나 방향성이나 아니면 해결책 아니면 최근에 어떤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거 위주로 짚다든지 아니면 이 편을 그냥 따로 제작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0대 B)

자료나 숫자 같은 건 출처나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나름 있기는 했는데 제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20분 정도의 제한 시간 안에 그걸 다 옥여넣어야 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후속 조치나 아니면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비중보다 현상 설명에 대한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게 되면서 진행 상황이나 아니면 후속 조치나 이런 거 아니면 이제 해결 방안 이런 부분이 좀 비중이 적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또 사례를 많이 들고 있긴 했는데 너무 깊이가 얕아진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사례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30대 C)

(2) 다큐24

다큐24 내용 구성에 대한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서도 팩트추적과 마찬가지로 ‘사실의 누락’을 편향성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다만, 휴먼다큐 형식을 지니고 있는 다큐24의 성격과 사전 시청을 요청한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치매, 장애, 청년 자립과 같은 주제의 특성으로 인해 주제가 지니고 있는 어두운 면들이 누락되고 있다는 지적도 연령과 관계없이 언급되고 있었다는 점이 팩트추적과의 차이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프로그램에서 보여주거나 설명이 부족했던 어두운 면의 경우 단순한 ‘설명’의 부재를 넘어 그렇지 않은 현실을 인식하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는 공감감이 안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약간 편향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장애인도 그렇고 자립 준비 청년도 그렇게 그분들이 거의 힘든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다시 본 가정으로 돌아가서 괜찮은 생활을 하는 이면도 있다고 많이 들어가시고 좀 다양한 면을 보여주기보다 너무 힘든 면만 너무 약간 부각된 느낌은 받았던 것 같아요.

자립 준비 청년에 한정해서 말을 하자면 자립 준비 청년이 사실상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맞긴 한데 그 자립 준비 청년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넓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과거에는 자립 준비 청년이 시설에 3년인가 4년 이상 있었어야지 자립 준비 청년으로 인정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많이 줄어서 사실상 자립 준비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 혜택을 다 받아서 그 혜택으로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명품 숭에 가서 쇼핑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복지상에서 많이 문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 달에 거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이면들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저는 좀 약간 그들의 힘든 점만 좀 나열되어 있고 진짜 복지를 못 누리는 사각지대를 얘기를 안 하고 뭔가 뭉뚱그려 놓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20대 A)

아쉬운 게 거기에 나온 장애인 분들께서는 조금 장애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만 나오신 또 그걸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등급이 좀 높다면 어떤 예술을 하셨을지 그런 것도 다루는게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장애인 예술을 조금 더 유심히 보던 와중에 한 여성 장애인분께서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 않나라고 생각했던 발언이 있었어요. 우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어요. 근데 장애인이니깐 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비장애인들은 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될 필요성이 없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 자체가 조금 위험한데라고 느꼈어요. 아무리 장애인 예술을 다루더라도 조금 편향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시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30대 A)

잘 사는 사람 보통인 사람한테 100원 주는 거 하고 못 사는 사람한테 100원 주는게 다르듯이 그런 사람은 알아서 잘할 테니 좀 어두운 면이긴 하더라도 조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조명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힘들게 혜택을 보려고 했지만 혜택이 제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크도 좋다고 봐요. (40대 A)

시설 관련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그냥 이렇게 치매환자도 이렇게 관리하니깐 뭐 충분하더라 이 정도 아니에요. 현실적인게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현실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목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육아휴직자의 일상 생활 그 정도 수준인데 육아휴직이 좋은 점 뭐 그런 거 그냥 홍보하는 역할인 것 같은데... 물론 자신이 실제 그러면 다크가 되는 거지... 한 쪽 측면 만의 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60대 A)

반면, 다크24가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지적도 유의미하지만 프로그램의 특성과 기획의도, 주제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애초 기획의도에 ‘이성

적 논리와 감성적 표현' 이 언급되어 있는 만큼 기획의도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으며 주제를 다루는 방식 자체가 팩트추적과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이질감이 있죠. 근데 그게 프로그램이 다루고 보여주는 부분에서 외면당한 그런 부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련된 좀 더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사회적 이슈를 다뤘을 때 그게 모든 사람의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모습처럼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것도 유의미하다고 봐요.

잼버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치매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힘들고 그거를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죠.

다루고 있는 문제는 같은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는 잘못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잘못을 안 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이지만 다큐24는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루는 방향 자체가 다르고요. 이런 방향성을 감안해서 기획하신 것 같아요. (40대 A)

(3) 컬처 인사이드

컬처인사이드의 경우 프로그램 특성 상 수치로 직접 측정하거나 통계를 제시하기 어려운 주제들이 다수인 점과 반드시 주류로 자리잡은 문화적 현상들만 다룰 필요는 없다는 점을 고려해 가장 프로그램 성격에 맞는 방향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또한 많은 경우 뉴스나 시사프로그램들이 당과성을 지니고 있는데 반해 컬처인사

이드의 경우 이러한 당파성에서 YTN이 자유로울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마이너하지만 문화이기도 하니까 오히려 통계 자료를 보여줘서 이게 미묘하다는 걸 보여주면 오히려 생각보다 별로인데 이려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통계 자료나 이런 걸 안 쓰는 거는 오히려 잘하는 게 아닌가 통계를 내기도 좀 어렵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세 가지 중에 가장 방향성이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30대 B)

섭외부터 그렇게 만들어 가면 계속 중립성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물론 제작 의도나 이런 거에서 조금 노출이 되기는 하는데 중립성을 최대한 하는 게 YTN의 앞으로의 지금도 그렇고 장점이고 그게 강력한 무기라고 보거든요. 다른 방송사에서는 너무 편파적인 걸 하는데 여기서 그냥 정말 사실에 최대한 가깝게 얘기를 하는구나. 프로그램들이 뉴스 아니더라도 그런 걸 좀 믿고서 볼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다고 보죠.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40대 A)

3)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 책무 1 - 상식과 공론장

(1) 팩트추적

시청자들에게 공통의 기준점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관점과 의견을 포괄하고 있는지를 묻는 공적책무 중 상식과 공론장 관련 질문에 대해 20대와 30대 젊은층의 경우 기존 심층성에 대한 요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반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전보다 향상된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 맞춘 방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었으며, 팩트추적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주목을 환기시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때문에 단순한 지식 전달의 역할에서 그치지 않고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향후 방향이나 해결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고 사회적 집단지성이 발현하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프로그램 자체가 좀 방대하게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좀 깊게 들어가기가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사례 하나만 집중적으로 해서 조금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한다면 차라리 좀 여러 개를 다루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대 B)

결국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팩트추적 같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알려주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살펴보세요.", "어느 동네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여주고 같이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자고 이야기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정치적으로 참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도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대 A)

방송도 이제 국민들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를 좀 봐야 한다는 거죠. 자기들 눈만 보는 게 아니고 국민들 수준을 봐야 해요. 국민들이 딱 봐가지고 방송 이거 뭐 뻔하네 이러면 안 볼거 아니에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국민들 그 수준을 좀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실이라는게 필요하긴 한데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은 뭐 이거 별로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보기에 새로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보는 사람 생각과 성향에 따라 다른 거죠.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만한 것, 놓치고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런 거를 좀 집어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60대 A)

이러한 의견들은 공정성에 대한 의견에서 나타나듯 심층성에 대한 요구로도 이어졌다. 다시 말해 인터넷과 같은 다른 미디어를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설명과 정보로는 ‘상식과 공론장’이라는 공적책무를 충족하기 힘들다는 것이며, 사회적 논의로 발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전달을 통해 시민들의 상식을 함양하고 이를 사회적 논의 차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단순 사실에 대한 설명에서 그쳐서는 안되며 정제된 정보의 전달, 체계적인 전달 방식, 다양한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다른 미디어와 차별성을 지닐 수 있는 심층성이 갖추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상황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조사를 하면 유튜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이나 이런 것도 요즘은 찾아가서 인터뷰 하고 그런 것도 다 유튜버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YTN이든 다른 방송사든 그런 곳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건데 유튜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면 사실 전문성에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나 이런 시청자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는 거면 어느 정도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보기 위한 건데 그게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 사실 볼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 해결책이나 기자나 이런 분들만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30대 B)

기획 방향을 가지고 방송 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가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식이나 상식을 함양하기 위한 정보들을 지금보다 더 정제해서 제공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뉴스처럼 그냥 사실만 짚 나열해 주고 연금 같은 것도 각 자영업자랑 일반 근로자 관련 그래프나 표로 앞으로 몇 년 후 고갈되는 그래프를 다 일일이 설명만 해주고 “평가는 여러분이 하세요”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40대 A)

그래픽을 내보내고 수치를 내보내고 이걸 40%고 일본이 64세에 받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모니터 하면서 계속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따라가려면 내가 메모를 하면서까지 이런 거를 봐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50대 A)

팩트추적이라는 방송을 하면은 뭐가 팩트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목 그대로 팩트추적인데... 근데 뭐가 팩트인지를 내가 모르니까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쭉 해버리고 방송할 때 기획 의도를 명확하게 정해놓지 아무것도 없이 한 쪽으로 몰아가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추적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60대 A)

(2) 다큐24

상식과 공론장 형성 측면에서 평가한 다큐24에 대한 의견은 프로그램 자체의 성격과 기획의도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본적인 의견들은 심층성을 강화해 시청자들이 미처 바라보지 못했던 이면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으나 주제의 이면을 통해 사람들에게 공감을 일으켜야 한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때문에 서로 다른 상황에 처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을 너무 많이 보여주기보다 한 가지 사례에 집중하면서 더 깊게 주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한 한쪽 측면에 집중하다보면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정보가 일정 수준 이상인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다.

40분 동안 차라리 깊게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또 경계성 지능인 분들도 장애 혜택을 저는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실생활에서 20살 전까지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다가 20살 딱 되고 나서 혜택을 못 받는 현실을 차라리 사례로 보여준다던가 차라리 그런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해요. (20대 A)

저는 복잡함보다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울 필요는 없는데 그 단어에 대해서 더 깊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30대 A)

너무 좋은 것만 하니까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공감을 못하죠. 공감이 떨어지죠. 보는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공감을 못하죠. (60대 A)

(3) 컬처 인사이드

컬처 인사이드에 대한 평가는 연령에 따라 의견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20대와 30대 응답자의 경우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대중적인’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미미한 주제에 다소 치우져있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실제 주위에서 컬처인사이드가 다루고 있는 문화들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감을 일으키기 어려운 내용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양한 시각 자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예술 관련 경험이 있는 참여자의 경우 컬처인사이드가 다루는 주제들이 주위에서 직접 경험했던 내용들이 다수라는 의견이 있었다.

반면, 4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그 동안 잘 모르고 있었던 상식’,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대화를 위한 소재’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일부 기존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주제에 대해서는 최근 흐름에 맞는 트렌디한 내용 구성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즉, 젊은 연령층의 경우 마이너한 문화에 대한 상식,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그동안 모르고 있었던 분야에 대한 상식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과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공감도 안 되는데 진짜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건 MZ세대가 블로그를 한다든지 근데 그게 내용이 블로그가 현실적으로 봤을 부업이 된다든지 뭐 이런 얘기도 아니고, 옛날에 그런 추억과 이런 정적인 것들을 느끼고 싶다던가 하는 약간 교과서에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그럴까 왠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나 한국 무용에 관심이 있다는 사람들은 처음 듣는 얘기긴 한데... (30대 B)

컬처 인사이드라고 했을 때 사실 처음 드는 느낌은 컬처가 어쨌든 대중 문화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다루는 주제들은 어찌 보면 살짝 마이너한 쪽으로 치우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30대 C)

그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블로그 하시는 분을 이제 인터뷰 해가지고 작성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했는데 왜 블로그가 유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잘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아니면 다른 분이나 아니면 통계상 블로그가 왜 유명해지는 것 같은지 MZ세대 기준으로 이런 게 조금 다뤄지거나 통계 자료가 보여졌으면 시각적으로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30대 A)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가 보다 뭐 그 정도죠 필요하긴 필요하죠. 어차피 사회에 좀 흘러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누구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필요하긴 좀 필요하지.
등장하는 세대를 보면 그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상식을 늘리는 거하고 사회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냥 가볍게

보는 프로그램으로 적당하다고 볼 수 있죠. (60대 A)

4)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 책무 2 - 다양성

(1) 팩트추적

팩트추적의 다양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FGI 참여자들은 다양성을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는 심층적 내용 기반의 수직적 다양성이다. 시사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중요한 요소로 언급되는 심층성과 달리 심층성에 기반한 다양성은 주제를 구성하는 이슈에 대한 심층적인 정보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보도와 표, 그래프 등 시각 자료 그리고 정책적 맥락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시청자의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것이다.

때문에 연령과 관계없이 이슈에 대한 맥락적 이해와 관심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요소들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있었으며, 정책과 후속조치, 정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 다양한 출처의 근거 활용, 문제의 해결책과 향후 전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스튜디오에서 대담하는 부분... 그게 사실 너무 약간 인위적이어서 시간을 재봤어요. 근데 그게 한 3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3분이면 사실 다른 걸 더 깊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진짜 일반론적인 말을 그냥 3분이나 하고 있으니까 사실 앞에는 그냥 그럭저럭 보다가도 제가 만약에 진짜 TV를 본다고 했으면 뒤에 그 당연한 말 나올 때 끝 것 같아요. (20대 A)

서론 부분에는 그래프나 아니면 출처 표기가 다 다양하게 잘 되어 있었는데 끝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외곽에 있는 분들이 왜 혜택을 못 받는지 아니면 소득이 얼마나 이상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다루지 않아가지고 해결책이나 그래프가 조금 더 많았으

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0대 A)

특정 단어에 좀 놀랐던 게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같이 누구나 아는 당연한 얘기를 굳이 그렇게 진지하게 끄덕끄덕하면서 하는 의미가 있나 싶어요. (30대 B)

참여자들이 다양성을 이해하는 두 번째 개념은 수평적 다양성이었다. 이는 수직적 다양성과 달리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에 대한 반영이나 다양한 사례에 대한 제시와 같이 의견과 근거의 다양성을 의미한다. FGI 참여자들의 경우 다양한 국내외 사례, 다양한 삶의 방식, 최대한 많은 의견의 수용 등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었다.

실질적으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나 아니면 그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식으로라도 이제 작게나마 좀 이렇게 나아갔다면 어떨까라는 그런 문구 그런 취지의 뭔가 장면들이 나오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30대 C)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정도면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는 그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좀 더 늘어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줄이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 뭐 저도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건을 가지고 파면 좋겠지만 그런 시사 프로그램도 있는 만큼 이런 구조의 시사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0대 B)

자영업자 관련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큐멘터리식으로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계속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좀 이제 여러 사람을 보여준다든가 기존에 이제 잘 몰랐던 부분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40대 A)

정책 자체에 처음에 수립할 때 무슨 복안을 가지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뒤에 좀 나오다가 말고 그래서 좀 더 이것도 보는 사람들 따라 다르겠지만 보는 사람들이 보는 눈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은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 접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60대 A)

(2) 다큐24

다큐24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인 반응과 다소 부정적인 반응이 엇갈리고 있었다. 긍정적인 반응의 경우 다루고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희망적인 사례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반면, 다소 부정적인 평가의 경우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는 것은 좋으나 정리되지 않은 지나치게 많은 정보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때문에 주요한 사례에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거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영역에 대한 필요성,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례의 추가 등이 주요하게 언급되었다.

예시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조금 난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팩트 체크랑 비교를 하면 길이가 거의 2배 정도 그렇죠 됐던 것 같은데 사례도 거의 2배 이상이었던 것 같아가지고 2배 혹은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서 팩트 체크와 비교해 봤을 때 아나운서랑 앵커가 대화하는 장면만 없고 그냥 구성 자체가 사실 그렇게 차별점이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길어졌는데 사례도 늘어나다 보니까 각 사례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앞서 있던 사례가 뒤쪽에 다시 한 번 또 나오고 이래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조금 남는게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30대 C)

세대 간의 공감의 좀 이게 좀 틀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이거 두 가지만 보자면 첫 번째는 육아의 문제에서 이제 약간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고 요즘 이제 젊은 세대 육아휴직하고 아빠들이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요 사실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치매도 젊은 세대는 이런 게 있구나 우리 부모의 먼 미래에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은 있죠. 세대 간에 그런 거 있죠. 그냥 가볍게 보면은 되지만 이게 막 보면서 공감이 좀 덜 될 수도 있죠. (50대 A)

치매 다큐 프로그램에서 약간 희망적인 것도 봤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도 이제 어르신 남자분이 자격증 같은 거 따시는데 저희 공부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이 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점점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다양한 것들을 보여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50대 B)

치매 같은 경우는 너무 가족이 돌보는 것만 보여주는데 지금 국가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례도 좀 같이 있었으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60대 A)

(3) 킷치 인사이드

킷치인사이드의 다양성은 여러 개의 짧은 콘텐츠를 한 편으로 구성하는 프로그램 구조의 특성으로 인해 팩트추적이나 다큐24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주제와 이슈를 다룬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 킷치인사이드의 다양성에 대한 평가는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 위주였으며, 특히 다루고 있는 주제의 다양성과 일반 시사 프로그램과 차별성을 지닌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내용 구성 방식 등이 주로 언급되었다.

차라리 그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식문화나 아니면 의식주 관련 문화들을 좀 다뤄도 재미있게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왜냐 하면 K-콘텐츠가 유행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여기 있으신 분들 그래서 좀 차라리 좀 새로운 거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20대 A)

시간이 짧은 그 가운데서도 그래도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례를 제시한다면 그래도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임팩트가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좀 보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 자체도 일상적인 것도 많고 어쨌든 저는 제목 자체는 엄청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주제를 되게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았고... (30대 C)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뜨개질을 접근할 때는 보통 시장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하는 뜨개방을 기본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유튜브로 유명한 김대리를 기본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랑 하는 그 뜨개 파티 같은 많이 보여줘요. 실제로도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로 이렇게 올렸을 때 사람들이 되게 호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뜨개질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관심 없이 지나칠 수 있겠지만 이제 관심 있게 하는 사람 입장으로는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너무 이렇게 올드하지 않게 요즘 추세에 맞춰서 잘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 저는 토픽을 되게 잘 뽑았다. 다양하게 그러니까 사람들 연예인의 인터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았던거 같아요. (50대 A)

5)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 책무 3 - 지식

(1) 팩트추적

시청자들에게 적절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FGI 참여자들은 팩트추적을 통해서 기존까지 지식이 많지 않았던 분야에 대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었던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해당 분야의 지식이 많지 않은 다른 시청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이러한 평가는 프로그램의 방향성에도 연결되어 현재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심층성을 강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저는 이런 주제를 평소에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고 이런 쪽에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같이 좀 관심이 없었거나 정보가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고 교제 폭력은 그래도 조금 평소에도 많이 접하고 좀 내용이 막 신선하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서 교제 폭력 쪽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나머지 두 개에서는 그래도 좀 정보를 얻는다는 측면으로 좀 전체적으로 잘 본 것 같습니다. (20대 B)

안 보여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보죠. 짧은 시간에 안 그랬으면 정말 아까 기계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뉴스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량을 계속 늘리거나 아예 집중 거의 탐사 보도 수준으로 거의 그렇게 가야 되겠죠. (40대 A)

반면, 추가적인 정보들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데이터 폭력을 다루는 경우 경찰 신고나 접근 금지 명령 등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대처방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청자들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문제의 경우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방안을 보여주는 부분이 많지 않았던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러한 지적들은 제공되는 정보의 교육 효과를 함께 고려한 것으로 ‘시청자들이 실질적으로 행동하거나 주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제공’ 까지 연결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시각 정보의 노출 시간을 길게 하는 등 정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 구성의 방식이 제안되기도 했다.

상황 대처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아니면 이제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추가적으로 해결책이 나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냥 사고가 났고 부모님은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 너무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30대 A)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사건을 잡고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나 아니면 기후 불평등의 심각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 사건을 잡고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20대 A)

좀 아쉬운 거는 그래프나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싶어도 생각보다 좀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물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멈춰서 보면 되지만 실제로 방송할 때는 좀 어느 정도 그래프를 길게 보여준다든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30대 B)

뭔가 추가적인 취재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취재를 해서 다른 곳에서 보도가 안 됐던 내용이나 잘 몰랐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재미는 있죠. (40대 B)

(2) 다큐24

다큐24에 지식과 학습의 고양 측면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개인에 집중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많은 응답이 나오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에서 소외되었던 부분들에 대한 정보 습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거나 프로그램에 담겨 있는 정보들이 보다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공존하고 있었다. 또한 팩트추적에 대한 지적과 마찬가지로 같은 입장에 처해 있는 시청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언급되기도 하였다.

경계성 지능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과 어떻게 다른지 그런 건 잘 몰랐는데 좀 경계성 지능을 가진 분들이 좀 어떤 증상이 있고 다른 분들과 뭐가 많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어려움을 겪는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알 수 있었고, 좀 더 알려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몰라서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새롭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아서 해당 정보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20대 B)

지금 이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져요. 하나하나씩 조금 더 구체화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붕 뜬 느낌이거든요. (30대 B)

(3) 컬처 인사이드

컬처인사이드의 지식 제공 측면에 대한 평가는 40대 이상 연령층을 중심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20대와 30대의 경우 컬처인사이드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에서는 지식보다 교육적 측면에 대한 평가만이 나타나고 있었다.

반면, 40대 이상 연령층에서는 컬처인사이드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처음 접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시청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재밌는 정보의 전달이라는 인식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문화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나 문화 현상에 대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어요” 같은 부분에 대한 조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옳고 그르다라는 걸 하는 건 아니고 유행 같은 거를 약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40대 A)

연령층마다 다르겠지만 흐름이나 유행에 민감한 사람은 그걸 보고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에 바뀌지 않고 그걸 그냥 지켜볼 뿐이죠. 굳이 공감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소개시켜주는 정도인거 같아요. (40대 B)

컬처인사이드는 그 당시에 사회 문화 같은 걸 추세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뭐 다루는 주제 자체가 많아도 큰 상관은 없죠. 근데 그 내용상 보면은 흥대도 있고 여러 주제들을 다루잖아요. 짧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인 추세가 이렇다 사회 흐름이 이렇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이런 걸 선호하더라 이런 거는 괜찮죠. 문화 프로그램은 괜찮죠. 내용상으로 문화를 다룬거기 때문에 크게 뭐 사람들이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보고 문화적인 동향이 이렇구나 연예인도 이렇구나 영화도 이렇구나 이런 걸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듣고 볼 수 있는 수준인거 같아요. (60대 A)

6)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적 책무 4 - 교육

(1) 팩트추적

시사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정보의 교육적 가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참여자들은 팩트추적을 짧은 길이의 콘텐츠임에도 다루고 있는 정보들이 주제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든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특히 문제의 해결과 관련된 정보들이 정리된다면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청할 수 있으며 교육용 자료로도 활용 가능할 것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교육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보의 부족은 여전히 지적되고 있었다. 특히 팩트추적이 다루는 주제들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지 시청자들이 인식하게 도와주고 이러한 문제를 고민하게 할 수는 있으나 사실 관계에 대한 단순 설명으로 그치는 경우 교육적 효과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도 언급되었다.

그걸 다루는 시사 프로그램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시사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유튜버들도 그런 걸 다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해결책까지 만약에 완벽하게 있다면 그게 나중에 이제 추후에 교육용으로 이제 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계속 이제 남을 것 같고 해결책이 있으면 찾아서라도 볼 것 같습니다. (30대 A)

유튜브 중에 1분 미만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그럼 1분 안에 모든 내용을 알려주면서 앞에서 앞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걸 1분 안에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것처럼 구성을 실질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뭘 신청해야 한다 아니면 뭘 받을 수 있다, 연령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하면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유익한 채널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30대 C)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서로 이제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팩트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주장이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죠. (40대 B)

팩트추적이긴 하지만 이런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정보

들을 주면서 우리가 갖는 생각들을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분석하기보다는 몰랐던 거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50대 A)

팩트추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제가 현 사회의 해결해야하는 문제, 이미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 문제를 다시 재조명하면서 보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게 문제가 있구나를 좀 알려주는 방면이 있고 해결 방법은 사실 거기에 나와 있진 않더라고요 (40대 A)

다시 한 번 그냥 상기시키는 주제로서는 가장 적합하고 기본적인 것들이라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기본적이고 이제 저희들이 다 알 법한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 해소가 안되는 것 같아요 (20대 A)

(2) 다큐24

다큐24의 경우 하나의 주제를 상대적으로 긴 호흡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관점과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끌여가는 프로그램 특성으로 인해 시사 프로그램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보다 많은 논의들이 있었다.

기본적으로는 방송에서 다룬 주제들이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해 그 동안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되고 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적 효과를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휴먼다큐 성격을 지닌 프로그램이 보여주는 밝은 분위기가 과거에 대한 설명보다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긍정적인 평가 역시 존재하고 있었다.

정보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게 장애인 분 중에서 무대 밑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던 거라서 만약에 제가 교사고 반 아이 학생이 예술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직업도 아마 설명해 주고 싶어 할 것 같기는 해요. (30대 A)

사람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다 다르니까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적 가치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하고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30대 B)

그거 자체가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 그냥 그게 기본이고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자조 모임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옛날에는 집에 치매 환자 있으면 아무도 못 움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얽매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조 모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 도우미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의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보여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제목에 그 주제를 담았다 생각해요. 워드 치매잖아요 그러니까 치매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부 지원도 되게 중요하고 뭐도 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워드 치매라고 제목을 정한 건 그거에 나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제목을 뽑는 거에 따라서 약간 이런 것들을 방향성을 제시한거라고 생각해요. (50대 B)

정보에 대한 다양성은 팩트추적 같은 프로그램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팩트추적과 프로그램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보여주는 모습이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치매를 팩트추적과 다른 관점으로 보여줬겠죠.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보여줬겠지만 이거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약간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50대 A)

그러나 프로그램이 다루고 있는 치매, 장애인, 육아, 청년 관련 주제에 대해 직접적인 해당 사항이 없는 일반 시청자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를 활용해 교육적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특히, 정책이나 지원 방법,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위한 정보가 여전히 부족하며 이들을 위한 정보를 보완해 교육적 효과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했다.

정책이나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정리를 안 해주셔가지고 대상이 어떻게 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만들었다면 정보 전달의 목적에서 좀 더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20대 B)

소외계층 부분 왜 소외 계층이 되었는지 그리고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나 그럼 어떻게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조금 더 컸습니다. (30대 A)

제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분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다큐24를 보고 “뭘 신청해서 뭘 받아야 된다”, “당신이 장애인이라면 아니면 고립 청년이라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게 그런 사실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기만 해도 몇 초를 쓰는 거잖아요. (30대 B)

사실은 굳이 어두운 면을 부각한다 하더라도 혜택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 중에 알아서 제도나 정책을 찾는 사람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을 했으면 더 좋겠죠. 내용은 더 무겁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40대 A)

(3) 컬처 인사이드

컬처인사이드에 대한 교육적 효과에 대해서는 주로 젊은 연령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다. 40대 이상 연령층의 경우 컬처인사이드가 다루고 있는 주제들이 대부분 익숙하지 않은 주제라는 점, 이로 인해 교육적 효과보다 지식으로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컬처인사이드의 교육적 효과에 대해 참여자들은 다루고 있는 주제에 따라 충분히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며 대표적인 사례로 리사이클 관련 주제를 지목하기도 했다. 관련 콘텐츠를 통해 재활용과 환경에 대한 인식 제고와 같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저는 리사이클 관련한 주제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듦새가 완벽하지는 당연히 못하지만 그래도 재활용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한번 제고하는 목적에서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30대 C)

리사이클 전용 마켓이나 이런 것도 조금 조명을 해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곳은 그런 곳들인데 그런 곳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주면 그래도 좀 더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30대 A)

실제로 많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기도 하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저도 리사이클 쪽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정보도 그렇지만 교육적 가치 이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0대 A)

IV 결론 및 제언

1. 분석결과 요약

1) 주제 선택의 공정성

심층 인터뷰 결과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사실에 기반을 두고 편향된 시각에서 제작 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전반적으로 YTN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책임성을 갖고 제작되었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그러나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작되고, 내용이 아무리 좋더라도 일단 어느 정도 시청률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다른 방송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를 발굴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실제로 참석자들은 방송사마다 방영되고 있는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내용들이 유사해 차별성을 중요한 요소로 지적했다.

무엇보다 이번 심층 인터뷰의 대상 프로그램이었던 <팩트 추적>, <다큐 24>, <컬처 인사이트> 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와 내용으로 구성되었다는 공통적 입장을 보여주었다.

물론 20~30대 인터뷰 대상자와 40~60대 인터뷰 대상자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정성 요소인 주제 선정과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다.

<다큐 24> ‘모두가 예술’ 중 장애인들이 무대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어시스트 해주는 전문가가 소개되는 내용을 접하고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참가자가 있었고, <팩트 추적> ‘노노(老老)간병’ 편에서는 우리 모두에게 언젠가는 다가올 현실을 담담하게 보여주어 시청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의견도 많았다. 한편, <컬처 인사이트>의 자원 리사이클 편을 보고 재활용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제고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의견도 나왔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20~30대의 경우 <컬처 인사이트>, <팩트 추적>, <다큐 24>의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먼저 <컬처 인사이트>의 경우 프로그램 타이틀 주제와 내용이 가장 잘 맞는다는

의견과 함께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시대상을 반영해 다양한 주제의 쇼츠로 부담없이 시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팩트 추적>의 경우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택해 내용이 구성되었고,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 등 교육적인 주제를 잘 다루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다큐 24>의 경우는 <팩트 추적>에 비해 다소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심층적인 취재 구성을 지향하고 있으나 비교적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 시청자들에게 명확한 인상을 주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편, 40~60대의 경우는 <팩트 추적>, <다큐 24>, <컬처 인사이드>의 순으로 높게 평가해 20~30대와는 다소 달랐다. 먼저 <팩트 추적>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중이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전달해 지식 함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평가했다. <다큐 24>는 <팩트 추적>과는 달리 일상생활 속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자아내게 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비해 <컬처 인사이드>는 재미있게 부담 없이 볼 수 있으나 그다지 정보 제공 효과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젊은 세대와 많은 차이를 나타냈다.

2) 내용 구성의 공정성

내용의 편향성 문제는 다소 한쪽 편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는 점에 기인하는데, 예를 들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예술과 관련된 문제, 경계성 지능 청년과 자립 준비 청년과 관련된 문제 등을 다루는 데 있어 양쪽을 고르게 다루지 못한 점을 들 수 있겠다. 자립 준비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자립 준비 청년의 범위가 사실상 너무 넓어져서 자칫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아울러 비장애인에 비해 장애인에게 조금 더 예술의 필요성을 강조하거나 영상 처리의 경우 장애인 시선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 등은 제작진이 다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제 선정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게시판 댓글 등을 활용해 주제를 공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예를 들어 분기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몰아서 제작하는 방식도 그 중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똑같은 주제라 할지라도 프로그램 성격상 <팩트 추적>과 <다큐 24>는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우선 전자는 다양한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을 통해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

실을 발굴해 내는 반면, <다큐 24>는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이성적 논리와 감성적 표현으로 공감을 자아내는 프로그램으로 평가했다.

<팩트 체크>의 경우 사실 ‘기후 불평등’이라는 제목만 놓고 봤을 때, ‘기후 불평등’이 갖는 일반적인 의미와 실제 방송에서 보여줬던 콘텐츠 내용이 다소 달라 차라리 시청자들에게 혼동을 주는 대주제 보다는 구체적인 부문별 소주제로 기후 불평등 문제를 다루는 것이 의미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지적도 나타났다. 아울러 해결책 제시보다는 어민들이나 농민들의 피해 상황을 그대로 노출시켜 그야말로 팩트만 체크한 수준에 머무른 것 같다는 아쉬움도 제기됐다.

교제 폭력을 다룬 프로그램의 경우도 피해자의 안타까운 소식을 알려주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등 실질적인 해결 방안 제시가 미흡했다는 의견도 많았다. 아무래도 결국은 프로그램 길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 길이를 늘리거나, 아니면 후속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안 등도 제시되었다.

<다큐 24>의 경우는 <팩트 추적>에 비해 방영 시간이 2배 정도 되지만 구성 자체에 차별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일례로 ‘청년자립보고서’의 경우 자립 준비 청년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과 같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있었다면 정보 전달 프로그램의 역할을 충분히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팩트 추적> ‘반쪽 호황’ 편의 경우 폐업으로 몰리는 자영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보여주려는 의도는 좋았지만 실제로 포화상태인 자영업의 문제점은 제대로 짚어주지 못했고, 철거업자들의 호황과 맞물려 구성한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연금개혁’의 경우도 직장인들은 본인들이 50%를 부담하지만, 자영업자는 본인 부담금이 100%라는 문제점에 대한 논의는 부각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었다.

3) 공적 책무 - 상식과 공론장

<컬처 인사이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처음 드는 느낌은 ‘컬처’가 친숙한 대중문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다소 마이너한 문화 영역에 치우쳤다는 의견도 많았다. 일례로 MZ세대가 블로그 활동을 부업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은 전후 맥락이 생략되어 있어 참석자들은 진짜 그럴까 하는 의구심도 보였다. 어르신들 사이에 K-무용이 인기라는 것도 재미있는 주제이기는 하지만 대중적인 현상은 아니라는 입장도 보였다.

물론 반론을 제기하는 참석자도 있었다. 최근 젊은층들에게 블로그 운영이 유행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일상을 기록해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만 <컬처 인사이드>

드> 제작진에게 다소 아쉬웠던 점은 MZ 블로거들에 대한 단순 인터뷰 외에 왜 블로그가 다시 유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통계 자료 등이 시각적으로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팩트 추적>의 경우, ‘연금 개혁’ 이슈를 다루는 데 있어 세대별로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설명해 준 것은 매우 의미 있었다는 의견과 함께, 서로 대립된 의견에 대해 보다 공정하고 이해하기 쉽게 다루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해당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에는 프로그램 시간이 너무 짧아 아쉽고, 도표 등을 통해 정보가 제공되는데 너무 빨리 지나가 주요 정보를 메모해야 한다는 불편함도 지적했다. 실제로 사람들마다 관심사가 다양하기에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만한 주제를 제대로 선정해 이러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해 줘야 한다는 요청도 있었다.

<다큐 24>의 경우는 대체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어려운 난제들을 다루는 경향이 많았다는 평가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어두운 면을 부각시키지 않아 아쉬웠다는 지적도 있었다. ‘위드 치매’의 경우, 가정에서 치매 노모를 모시는 어려운 상황을 조명하면서도 힘든 점 보다는 밝은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과연 현실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물론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시청자들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도 공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가려는 제작 의도는 이해되지만 자칫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책 제시가 아닌 개인적 책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듯한 인상도 있었다는 지적이다. <컬처 인사이드> 경우는 연령층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 질 수 있으나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관심 가질 수 있는 소프트한 문화 활동 소개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어 부담없이 받아들이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였다.

이처럼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YTN은 뉴스전문 채널로서 자리매김 했기에 이러한 점은 매우 철저히 지켜진다고 평가되지만 지나친 기계적 중립성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문제 있는 사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중립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경중을 따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 있었다.

<다큐 24>의 경우 육아휴직이나 치매 간병 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에 대한 소개도 의미 있지만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조명과 함께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등도 매우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무엇보다 대중들의 공감을 이끌어 내야 하기에 너무 긍정적인 측면만 부각시킨다면 대다수 사람들의 공감을 얻을 수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4) 공적 책무 - 다양성

<팩트 추적>에서 ‘노인 간병’이나 ‘교제 폭력’을 다룬 경우에 통계자료 제시 등 구체적으로 분석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특히 ‘교제 폭력’의 경우 심층적인 내용이 다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지적했다. 물론 20분이 채 되지 않는 제한 시간 안에 모든 걸 다 반영하기 어렵겠지만 피해자의 소식과 함께 후속 조치나 예방 상황 등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비중 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외에도 진행자와 취재기자가 마주하는 구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는데, 프로그램 진행 때마다 다소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는 느낌이 있어 차라리 형식을 바꿔 개선책에 대한 시각 자료 등을 제시하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참석자들은 <팩트 추적>의 경우 가장 시의성 있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이므로 ‘교제 폭력’이나 ‘치매 간병 문제’가 매우 적절한 주제로 인식했다.

대다수의 방송사들에서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이 인기몰이를 한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거나 또는 잘 모르는 사실을 밝혀냈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는데, <팩트 추적> 역시 ‘교제 폭력’이나 ‘기후 불평등’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그치지 말고, 이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 제시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팩트 추적> ‘잼버리 폐막 1년 뒤 수습’의 경우도 대중들이 관심 갖는 사안인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처음부터 정책 수립 자체가 잘못된 사업을 되짚어 보는 것보다는 마무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으로 제작되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큐 24>의 ‘당신은 요즘 아빠인가요’의 경우 세대 간의 공감 정도가 매우 다른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래 전에 육아 경험이 있었던 중년 이후 세대의 경우 젊은 세대들의 육아휴직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같은 젊은 세대일지라도 너무나 적극적으로 육아 활동에 참여하는 아빠들에 대해 공감하기 어려운 아빠들도 있을 듯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론 요즘 세태를 조명해 주는 프로그램으로 가볍게 봐도 되겠지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세대 간의 공감이 필요한 주제이기에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컬처 인사이트>는 현재 사회 문화적인 추세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주제를 반영해 준 점이 바람직하다는 평가였다. 전반적으로 사회의 문화적 흐름이 이렇고, 대중들은 무엇을 선호하는지 알려주기에 세대 구분 없이 편안히 받아들일 수 있

는 프로그램으로 평가했다. 또한 내용상으로 볼 때, 어느 분야에 치중되지 않기에 대체로 부담 없이 자연스럽게 시청하는 프로그램이라는 평가도 많았다. 일례로 ‘뜨개인’에 대한 소개의 경우 일반적으로 재래시장이나 어르신들의 뜨개방을 보여주는 데 비해 요새 핫한 유튜브 프로그램인 ‘김 대리의 뜨개질’의 김대리가 출연해 젊은 친구들이랑 함께 뜨개 파티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뜨개인의 새로운 트렌드를 소개해 준 점이 매우 신선했다는 평가였다. 대체로 <컬처 인사이드>의 토픽을 잘 뽑아냈다는 평가가 많았다.

5) 공적 책무 - 지식과 학습의 고양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평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나왔는데, 사회적으로 주요 사안에 대해 정보가 부족한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팩트 추적>과 <다큐 24>의 경우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지극히 당연한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 다소 식상하다는 의견도 많았다.

아울러 <팩트 추적>과 <다큐 24>와 같은 시사 프로그램은 대체로 사회적인 문제를 상기시키는 주제로 구성되어 매우 적합하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했다. 주제에 있어서는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과정에 있어 해결책이나 미래에 대한 방향성 등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아 허탈하다는 입장도 보였다.

특히 <팩트 추적>의 경우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의견과 함께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보다 함축적으로 구성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적 문제 제기과 해결책을 구분해 연속 기획 프로그램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큐 24>의 경우 역시 여러 케이스를 관찰하는 구성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케이스를 한 편에 담으려 하다 보니 주제와 방향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이 많았다. ‘청년자립보고서’의 경우만 해도 경계성 지능의 청년과 다양한 자립 청년들을 한꺼번에 다루려다 보니 방향성이 모호해졌다는 평가가 많았다. 일반인들에게 다소 생소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경계성 지능을 갖는 청년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이 어떠한 실수를 범할 수 있는지 등을 제대로 포착해 사회적 차원에서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면 더욱 의미가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한 참석자는 경계성 지능과 관련해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우리 사회에서 이 정도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이들이 지적 장애인과는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이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에 대해 소상히 알려주었으면 프로그램의 의미가 더 부가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프로그램 형식 차원에서 <팩트 추적>은 ‘궁금한 이야기 Y’ 나 ‘그것이 알고 싶다’의 축소판과 같은 구성으로 하되 후반부에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소한의 해결책 등이 제시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다큐 24>의 경우는 ‘인간극장’과 같은 포맷을 벤치마킹해 주제에 맞는 대상자를 24시간 밀착해 소개하면서 사회적인 공감대를 불러일으키는 방향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그렇지만 대체로 <팩트 추적>의 경우 뉴스 전문 채널의 일상적인 뉴스 프로그램에 익숙해 있던 시청자들에게 추가적인 심층 취재를 통해 대중들이 무관심했거나 잘 몰랐던 내용을 새롭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6) 공적 책무 - 교육적 가치

대체로 해당 프로그램들은 정보의 출처 표기가 잘 되어 있어, 기본적으로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고, 교육적으로 많은 효과를 주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컬처 인사이드>의 경우 ‘지구 구하기’ 나선 패션업계의 자원 리사이클링과 관련한 소식은 교육적 가치가 매우 큰 주제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다큐 24>의 ‘청년 자립보고서’의 경우 경계성 지능 문제에 대해 알게 되었고, 많은 자립 청년들에게 보다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했다고 평가가 많았다. 다만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실제 고립 청년이나 자립 청년들이 보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도움을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교육적 차원에서의 정보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도 많았다.

또한 <팩트 추적> ‘간병’ 프로그램의 경우 정부 지원 대상자가 되는 많은 노인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지원 대상 여부의 판단 기준과 지원 신청 방안 등 노인들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제시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제기되었다.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팩트 추적>과 <다큐 24>의 경우 중요한 사회적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에 집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는 과정까지 보다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실질적으로 수혜자가 늘어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례로 유튜브 ‘1분 미만’이라는 채널과 같이 1분 안에

문제점과 해결책을 함축적으로 알려주는 포맷도 벤치마킹 대상이라 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팩트 추적>의 경우 아무래도 주제가 현 사회의 문제점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현실 문제를 재조명하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문제점을 상기시키는 교육적 효과가 많은 것으로 판단했다. 무엇보다 어떤 사안에 대해 잘 모르는 시청자들이 나중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부각시킨 프로그램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다큐 24>의 경우 치매는 이미 현실적으로 너무 다가온 주제라 시청하며 마음이 무거웠다는 평가도 있었다. 주변에서 보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의 영향인지 치매와 공존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가 많다는 의견도 있었다. 젊은층에게도 치매는 미래 자신의 문제라는 자각과 함께 이에 대한 공부의 필요성을 일깨워 준 ‘워드 치매’와 같은 프로그램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평가가 많았다.

2. 종합 제언

본 연구는 실질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진 YTN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최초의 평가라 할 수 있겠다. 전반적으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시청자의 평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20대부터 60대까지 전 연령층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또한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최근에 방영된 것이기에 인지도가 높지 않아 <팩트 추적>, <다큐 24>, <컬처 인사이드> 등 대표적인 프로그램들에 대해 사전 시청을 요청한 뒤 인터뷰를 진행했다.

심층 인터뷰 결과 연령대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사실에 기반을 두고 편향된 시각에서 제작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이러한 점에서 볼 때 YTN의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은 시청자들에게 의미있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책임성을 갖고 제작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공익적인 목적에서 제작되므로 가급적 다른 방송사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주제를 발굴해서 심층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물론 20~30대 인터뷰 대상자와 40~60대 인터뷰 대상자의 입장이 다소 차이가 있었다.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20~30대의 경우 <컬처 인사이드>, <팩트 추적>, <다큐 24>의 순으로 높게 평가했다.

<컬처 인사이드>의 경우 다양한 문화 영역 소개와 함께 짧은 영상을 선호하는 연

령대의 취향에 맞아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것으로 보인다. <팩트 추적>의 경우는 시의성 있는 사회적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교육적 가치에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다큐 24>의 경우는 <팩트 추적>와 유사한 성격을 갖지만 다소 방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으며, 시청자들에게 강한 임팩트를 주지 못한 점이 지적되었다.

한편, 40~60대의 경우는 <팩트 추적>, <다큐 24>, <컬처 인사이드>의 순으로 높게 평가해 20~30대와는 다소 달랐다. 먼저 <팩트 추적>의 경우는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고, 일반적으로 대중이 잘 알지 못했던 사실을 제대로 알려준 프로그램으로 선호도가 높았다. <다큐 24>는 <팩트 추적>과는 달리 일상생활 속의 모습을 자연스럽게 노출시켜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자아내게 한 장점을 꼽았다. 이에 비해 <컬처 인사이드>는 재미있게 부담 없이 볼 수 있으나 비교적 높은 연령대에는 그다지 어필하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인터뷰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평소 별로 관심을 갖지 않은 분야에 대한 지식의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방향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만, <팩트 추적>과 <다큐 24>의 경우 정부의 노력을 촉구하는 다소 당연한 결론을 이끌어 낸 것에 대해 거부감을 보였는데, 향후 제작진이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본다.

시사교양 프로그램 내용의 편향성 문제도 일부 제기되었다. 일례로 장애인을 다루는 주제에 있어 비장애인의 시각과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시청자들의 눈높이를 고려해 특정 시각을 강요하는 듯한 제작 의도는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주제 선정 시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게시판 댓글 등을 활용해 주제를 공모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 분기별로 시의성 있는 주제를 모아 제작하는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세대별로 <컬처 인사이드>에 대한 의견이 달랐는데, 일반적인 대중문화를 의미하기 보다는 다소 마이너한 문화 영역에 치우쳤다는 의견도 있었다. 앞으로 세대 구분없이 공감할 수 있는 주제 선정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전반적으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중립적인 입장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했는데, YTN은 뉴스전문 채널로서 자리매김했기에 이러한 점은 매우 철저히 지켜진다고 평가되지만 지나친 기계적 중립성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다는 지적도 있었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매우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중립적으로 다루기 보다는 경중을 따져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분석대상 및 심층 인터뷰 범위의 한계이다. YTN은 다양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으나, 대부분 신설 프로그램인 관계로 인지도가 높지 않아 비교적 시청률이 높은 3개 프로그램을 선정해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 역시 20~60대 까지 고르게 진행했으나 각 연령대별로 평균 2명 내외는 다소 부족한 인원이라 할 수 있겠다.

둘째, 연구 여건상 제작진에 대한 인터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인터뷰 대상자들이 지적한 문제점과 제작진의 기획 의도 등을 비교해 향후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셋째, YTN은 24시간 뉴스채널이라는 강한 인상 때문에 다른 채널과 비교해 시사교양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기대감이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지상파나 종편과는 성격이 다른 방송이기에 시청자들을 대표한 인터뷰 대상자들은 다른 채널과 차별화된 시사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지상파, 종편,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비교분석 해 바람직 기획 방향을 잡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연구의 한계점은 향후 연구에서 해결해 주길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 강재원 · 최일우(2023). 방송의 공정성 관련 국내 법원 판례 분석: 공정성의 원칙과 사회적 합의. <방송통신연구>, 125, 7-42.
- 구교태(2016). 종편 시사 프로그램의 자막 현상과 특성에 관한 연구. <언론과학연구>, 16(1), 37-58.
- 김광수(2017). 『방송과 공적 책임』,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상호(2019). 『방송의 사회적 책임』, 경희대학교 출판부.
- 김숙 · 박주연(2014). 텔레비전 시사 및 교양 프로그램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연구. <사회과학연구>, 30권 2호, 281-300.
- 김연식(2009). 방송 저널리스트의 공정성 인식 연구. <한국언론학보>, 53권 1호, 161-186.
- 남지나 · 최윤정(2010). 한국과 미국 TV뉴스의 대선보도 비교: 신 단위의 형식과 내용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한국방송학보>, 24권 4호, 87-120.
- 류동협 · 홍성일(2013). 종합편성채널 시사 대담 프로그램의 차별화 전략과 그 효과. <방송통신연구>, 85, 9-36.
- 문재완(2018). 방송의 공공성과 구조규제에 대한 비판적 검토. <공법연구>, 46(4), 213-244.
- 박인호(2018). 『방송법과 공적 책임』, 한국방송학회.
- 박지훈 외(2016). 학교 폭력을 바라보는 텔레비전의 시선: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17(3), 139-174.
- 방송법(2025년 1월 기준).
- 방송통신심의위원회(2023).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 배진아(2015). 지상파 방송의 공정성 심의. <방송통신연구>, 90, 9-41.
- 송영주(2019). 방송의 형식적 공정성에 대한 규제 방법 : 프랑스 방송의 정치적 다원주의 규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63권 4호. 161-190.
- 윤석민(2015). 『미디어 공정성 연구』, 나남.
- 이강형 · 최현주(2012). 해외 선진국의 방송 공정성 평가체계 연구 : 미국, 영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과학 담론과 정책>, 5권 1호, 71-98.
- 이남표(2012). 공정성 심의·의결 기능의 과잉을 해소해야. <방송문화>, 371, 10-15.

- 이은혜(2024). 한국어 뮤지컬 노래 지도의 경험과 시사점-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전문가 FGI를 중심으로.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8권 3호, 185-198.
- 이종석(2020). 『방송의 윤리와 법』, 고려대학교 출판부.
- 정동우 · 황용석(2012). 공정성 개념에 대한 신문기자들의 인식 차이 연구: 객관주의적 · 탈객관주의적 관점의 통합모형을 중심으로. <언론과 사회>, 20(3), 120-158.
- 조항제(2019). 공정성의 이론적 구성. <방송문화>, 419, 10-35.
- 홍주현 · 조인숙 · 이종임(2022). 『방송 시사·보도 프로그램의 다양성 연구』, 한국언론진흥재단.
- 황성기(2014).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1(1), 93-118.
- Ball-Rokeach, S. J., & DeFleur, M. L. (1976). A dependency model of mass-media effects. *Communication Research*, 3(1), 3-21.
- Bertrand, C. J. (2000). *Media Ethics and Accountability Systems*. Transaction Publishers.
- FCC (2023). "About FCC."
- Gelman, A., Goel, S., & Rivers, D. (2018). The Mythical Swing Voter. *Public Opinion Quarterly*, 82(1), 1-24.
- Hallin, D. C., & Mancini, P. (2004). *Comparing Media Systems: Three Models of Media and Politic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umphreys, P. (1996). *Mass Media and Media Policy in Western Europe*.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McQuail, D. (1992). *Media Performance: Mass Communic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Sage Publications.
- McQuail, D. (2010). *McQuail's Mass Communication Theory* (6th ed.). Sage Publications.
- Ofcom. (2022). *The Broadcasting Code*.
- Schudson, M. (2001). *The Power of News*. Harvard University Press.
- Thussu, D. K. (2000). *International Communication: Continuity and Change*. Arnold Publishers.

별첨 1 FGI 녹취록-그룹 A(20대, 30대)

사회자

시사교양 프로그램 많이들 보세요? 굳이 YTN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라든가 MBC '스트레이트' 이런 것들 많이 보시나요.

①

알고리즘에 뜨면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유튜버에서 알고리즘에 뜨는데 화면 자체나 그 카테고리가 흥미가 있다면 클릭하게 되는 것 같아요.

⑤

저도 앞의 분과 마찬가지로 그걸 따로 챙겨보지는 않고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버가 정말 핵심인 것 같아요. 유튜브 알고리즘이 뜨느냐 안 뜨느냐 따라서 그거를 한 번 보면 다시 알고리즘 또 뜨고 창이 계속 뜨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시작해서 보지 않는 이상은 아예 접근성 자체가 안 나오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그러면 주로 보시는 프로그램을 특정할 수 있으세요?

②

저는 솔직히 범죄나 이런 거 많이 봐서 '그것이 알고싶다'나 '용감한 형사들'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보고 아니면 '김어준의 뉴스 공장' 그런 것도 보고 그거 말고도 범죄 관련된 거는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로 유튜브도 보고 '용감한 형사들'은 TV로 하기 때문에 TV로도 봐요.

③

저는 따로 챙겨보지는 않고 아버지가 집에서 TV 보실 때 가끔 좀 흥미로운 주제가 있으면 그 옆에서 보는 편입니다.

사회자

주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고민해야 될 게 어떤 거라고 생

각하시는지 예를 들자면 신속성이 중요하다. 빠르게 전달하는 거가 중요하다라든지 아니면 사실을 정확하게 보도하는 게 중요하다라든지 아니면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든지 아니면 뭔가를 좀 깊하게 최대한 좀 깊게 파는 게 중요하다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자주 보시는 시사 프로그램을 판단하실 때 어떻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⑤

말씀 주신 예시 중에 '사실에 기반이 잘 되어야 된다' 아니면 '편향성이 있으면 안된다' 같은 부분들은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랑 상관없이 프로그램 자체가 당연히 지켜야 될 원칙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 생각에는 아무래도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든 뭐든 간에 공익적인 목적이든 간에 일단 사람들이 봐야 시청률이 나와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때문에 가능하면 사안을 깊게 다루고 다른 데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발굴해서 보여준다든지 그런 게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핵심적으로 왜냐하면 사실 시사교양 프로그램이 다른 방송사들도 많이 만드니까 사실은 어디서나 비슷한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별성이 좀 있고 세세하게 새로운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②

저도 깊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건 같은 것들을 다룰 때도 좀 그냥 있었던 일 그냥 소개하고 말면 잘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짧은 영상은 사실 쇼츠로 보고 그게 아니면 좀 깊이 있는 영상을 보고 싶을 때 저는 롱폼을 본다고 생각해서 깊이가 있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①

다른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다 기본 베이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중에서 중립을 잘 지키고 양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영상들도 봤을 때 장애인을 다루는 영상들이 있었는데 장애인 시선에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과 또 일반인 시선에서 다루는 것도 조금 차별점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어서 양쪽 의견에 치우치지 않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저는 후속 보도나 이런 것도 좀 들어가 있으면 좋다고 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후속 보도가 필요한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범죄가 일어났을 때 나중에는 어떻게 판결이 났고 이런 것들도 좀 같이 알려주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후속 보도가 나오면 그때 그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고 경각심도 갖게 될 것 같아요. 저는 YTN의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라면 좀 그런 식으로도 차별성을 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긴 해요.

팩트 추적

사회자

그러면 이번에는 프로그램별로 여쭙겠습니다. <팩트 추적>은 전체적으로 흥미나 재미가 있으셨나요? 총평하자면 어떤 것 같아요?

②

저는 사실 생물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데 기후 불평등 그래서 재밌게 보긴 했는데 좀 내용이 포괄적이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후 불평등이 있으면 사실 저는 그 생태계 유해종이나 이런 거 문제도 심각하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붉은귀거북 대량 발생과 같은 이슈도 심각하다고 보는데 좀 차라리 기후 불평등이라는 대주제 말고 좀 소주제로 넘어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었던 것 같아요.

사회자

그러니까 기후 불평등을 주제로 하더라도 그걸 한 편으로 만들기보다 좀 주제별로 나눠서 여러편으로 제작하는 것도 괜찮았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거 같네요.

①

노부모님을 부양하는 편이 조금 인상 깊었는데 저희 부모님도 지금 할아버지를 부양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저의 미래이기도 하고 저희들도 언젠가는 이제 그 상황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조금 더 집중하면서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앞에는 여러 가족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뒤에는 혜택 같은 것들을 못 받는 소외계층들을 보여주셨는데 앞에 부분을 조금 짧게 하고 소외계층 부분 왜 소외계층이 되었는지 그리고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나 그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자세히 다뤘으면 좋겠다는 아쉬운 마음이 조금 더 컸습니다.

사회자

오히려 현상에 대한 설명은 조금 줄여주고 해결 방안 쪽을 좀 더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①

네 왜냐하면 현상은 다들 잘 알고 있으니까요.

⑤

아무래도 간병 관련한 프로그램이 인상 깊었던 게 저희 집안도 비슷한 경험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다 돌아가셨지만 간병인 문제도 있었고... “간병인은 4시간 밖에 안 된다. 그래서 추가로 간병인을 따로 뒤편에 뒀다” 뭐 그런 내용이 실제로 저희는 다 겪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기후 불평등 편은 좀 애매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대로 10년 전에 틀었다고 해도 솔직히 뭐 10년 전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보여줘도 다른 느낌이 딱히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만큼 포괄적인 부분도 있고 해결책이나 뭐 그런 게 딱히 제시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그냥 항상 듣던 얘기 항상 어민들이나 농민들이 당하던 불평등 그냥 그런 얘기인 것 같아서 오히려 관심이 더 안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간병인처럼 현재 저희가 관련이 있거나 아니면 앞으로 관련이 있을 수도 있는 내용이 아니다 보니까 그쪽 종사자가 아니면 사실상 겪을 일은 사실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잘 안 갔던 것 같습니다.

④

사실 지금 시청했던 전체 주제가 세 편이었지만 조금 포괄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던

게 사실이고 그리고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애써 외면하던 것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측면에서 제목만 놓고 봤을 때는 괜찮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후 불평등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실제 방송에서 보여줬던 콘텐츠 내용이 좀 이질적이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대했던 건 뭔가 생태계 관련한 내용이 좀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봤는데 그게 아니라 농어업인들 관련한 얘기들이 좀 많아서 조금 내 예상과는 다르다. 그래서 그게 긍정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약간 이렇게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간병이나 교제 폭력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 자료가 제시되고, 출처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나름 있기는 했는데 제 생각보다 깊게 들어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게 한 20분 정도의 제한 시간 안에 그걸 다 옥여 넣어야 돼서 어쩔 수 없었다고는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게 후속 조치나 아니면 진행 상황 등에 대한 비중 보다 현상 설명에 대한 비중이 좀 많았어요. 이렇게 진행 상황이나 아니면 후속 조치나 이런 거 아니면 해결 방안 이런 부분들의 비중이 적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사회자

결국 앞에서 지적해 주셨던 해결책 제시 같은 심층성이 좀 부족했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④

네 덜했다. 네 그렇죠. 사례를 많이 들고 있긴 했는데 너무 깊이가 얕아진 것 같다. 그런 느낌입니다. 사례에만 집중했는데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①

논문과 비교하면 서론만 거창하고 결과나 과정 마지막 마무리가 중요한데 향후 예상되는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이미 있다는 느낌을 조금 받았습시다.

③

저는 이런 주제를 평소에 관심 있게 보지도 않았고, 이런 쪽에 지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새롭게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과 다르게 저같이 좀 관심이 없었거나 정보가 부족했던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정보를 전달하기에는 좋았던 것 같고 교제 폭력은 그래도 조금 평소에도 많이 접하고 좀 내용이 막 신선하거나 그런 거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서 교제 폭력 쪽에서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나머지 두 편에서는 그래도 좀 정보를 얻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잘 제작된 것 같습니다.

사회자

자연스럽게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그램 주제 선택과 관련된 말씀들을 잠깐 해 주셨잖아요. 주제 같은 경우에 그 해당 시기에 맞게 좀 적절했는지 그리고 너무 한쪽 관련된 주제만 몰려 있다거나 그랬던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딱히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③

제가 생각하기에는 골고루 잘 다뤄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사회자

그러면 프로그램 주제 선택과 관련한 부분들은 그렇고... 이제 내용과 관련해서 사실 부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왜곡이나 이런 거 없이 사실을 그대로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지요?

⑤

사실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렇구나' 하면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표나 그래프 같은 걸 보여야요. 근데 사실 그게 정말 그런지 제가 확인을 하면서 시청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사실이겠거니 어느 정도 신뢰하면서 보는 것 같고요.

그래도 아쉬운 거는 그래프 같은 자료들을 좀 살펴보고 싶어도 생각보다 빨리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요. 물론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멈춰서 보면 되지만 실제로 방송할 때는 좀 어느 정도 그래프를 길게 보여준다든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준다든지 그런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①

세 편을 전체적으로 평가할 때, 인트로 서론 부분에는 그래프나 아니면 자료의 출처 표기가 다양하게 잘 되어 있었는데 끝에 가면은 예를 들어서 외곽에 있는 분들이 왜 혜택을 못 받는지 아니면 소득이 얼마나 이상이 되어야 대상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다루지 않아 해결책에 대한 자료 제시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④

사실 구성에 대한 부분도 좀 말씀드리자면, 앵커하고 취재기자가 인터뷰하는 구성 들어 있잖아요. 뭔가 기계적으로 말하고 기계적으로 반응한다는 느낌이 좀 있어서 차라리 그것을 빼고 아까 말씀하셨던 해결책에 대한 그래프라든지 이런 시각 자료를 좀 더 제시하는 식으로 그걸 좀 대체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지극히 당연한 말을 너무 기계적으로 질문하고 반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긴 했거든요.

①

이렇게 진행자와 기자가 대화하는 장면에서 TV 모니터가 진행자 뒤에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차라리 그걸 사용해서 그래프를 보고 "이렇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든지 리포트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프로그램 간판용이고 두 분은 이야기하시고 아니면 기자분은 이렇게 아이패드 보고 계속 이야기를 하시니까 조금 보고서 읽는 형식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②

저도 그게 사실 너무 약간 인위적이어서 시간을 재봤어요. 근데 그게 한 3분 정도 하시더라고요. 근데 3분이면 사실 다른 걸 더 깊게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진짜 일반론 적인 말을 그냥 하고 있으니까 사실 앞에는 그냥 그럭저럭 보다가도 시청자 입장에서 답답해 그 당연한 말 나올 때 끝 것 같아요.

⑤

저도 공감합니다. 저도 특정 단어에 좀 놀랐던 게 "정부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같이 누구나 아는 당연한 얘기를 굳이 그렇게 진지하게 고덕고덕하면서 하는 것이 의미가 있나 싶어요.

사회자

이 프로그램은 사실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창기 시사교양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겠는데, 대체로 지적해 주신 것이 아마도 포맷 자체가 너무 정형화돼 있다는 좋은 지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프로그램 주제 자체가 그리 신선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요?

⑤

네, 주제는 '노노 간병' 같은 거 보면 요즘 시대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제작 쪽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사실 기후 위기나 그런 것들은 계속 저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잖아요. 사회적 문제다 보니까 아무래도 만들 수 있는 범위가 거기서 거기일 수 밖에 없지 않나... 사실 주제는 딱히 선정할 만한 게 좀 따로 없지 않나 그나마 교제 폭력이나 간병 문제가 과거 시사 프로그램보다는 좀 더 발골을 해서 제작한 주제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회자

그러면 혹시 시청하시면서 이거는 내 생각이랑 좀 다른 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너무 평이해서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신 건가요?

②

맞아요. 저는 사실 이게 내용이 그냥 다 알 법한 내용이어서 막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넘겼던 것 같기도 해요.

①

저도 다시 한번 그냥 상기시키는 주제로서는 가장 적합하고 기본적인 것들이라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기본적이고 이제 저희들이 다 알 법한 내용을 말씀하시니까 오히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데 그거에 대해 해소가 안 돼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자

그러면 예를 들어 논쟁이 될 법한 요소인데... 너무 한 쪽만 좀 다루는 거 아니야? 그런 부분도 딱히 없을 정도로 평이하게 그냥 지나갔다는 말씀이신가요?

④

개인적으로 논쟁은 토론 프로그램 포맷에 더 알맞은 것 같고... 시사교양에는 사실 그런 부분 특히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고려해 봤을 때, 그런 부분은 별로 없을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사회자

팩트 추적의 경우 그 주제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팩트 추적이 앞으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나요?

⑤

주제보다는 구성 자체로 볼 때, 해결책이나 미래의 방향성 부분이 굉장히 휘발적으로 그냥 날아가는 느낌이라서... 물론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아무래도 다른 시사교양 프로그램과는 차별성을 가져야 하니까 미래적인 부분이나 방향성이나 아니면 해결책 아니면 최근에 어떤 방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 그런 거 위주로 짚다든지 아니면 이러한 해결편을 그냥 따로 제작 한다든지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잘했다고 생각한 게 어떤 편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떤 법안이 나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까지 보여주는 경우가 좋았습니다. '노노 간병' 관련 편에서는 의사분이 방문해서 실제 진료하시는 걸 다 보여주면서 인터뷰까지 했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살리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주제 문제라기보다는 결국은 어떻게 이걸 풀어나가느냐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③

네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좀 방대한 내용을 다루려 하다 보니까 좀 깊게 들어가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차라리 사례 하나만 집중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원인부터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랑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살펴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를 다루지 않더라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

‘교제 폭력’ 편은 아무래도 좀 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좀 더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그 프로그램도 현상만 좀 훑은 것 같으신가요?

④

팩트 체크잖아요. 프로그램이 팩트만 딱 체크한 느낌이 좀 강하긴 했어요. 데이트 폭력이나 교제 폭력이 1년에 몇 건 발생하는지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나름 자료를 보여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데이트 폭력을 당한 사람 부모님이 오열하는 장면도 기억이 나고 하는데 딱 거기까지... 그러니까 데이트 폭력이 심하다 그 현상이 심하다 그리고 데이트 폭력은 이제 교제 폭력으로 바뀐다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하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다루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다른 나라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식으로라도 나아갔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①

사실 저는 신고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제가 직접 데이트 폭력을 당한 건 아니었고 그 사람과의 어떠한 관계도 아니었는데... 집 앞까지 찾아와서 기다리고 있어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부모님이 걱정하실까 봐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주변 분들한테도 친한 사람한테만 말했을 때 그분이 “이런 걸수록 네가 어떻게 몰래 당할 수도 있으니까 알려야 되고 어떻게 상황을 대처해야 되는지”를 친한 언니가 알려줬었어요.

상황 대처법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고 아니면 접근 금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받아낼 수 있는지와 같은 추가적인 해결책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아쉬움이 들었어요. 그냥 사고가 났고 부모님은 이제 우리 딸이 이렇게 사고를 당했다. 너무 이거에만 초점이 맞춰 있어서 좀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②

저도 제 친구가 경험한 건데요. 전 남자친구가 집에 몰래 들어와 친구 속옷이나 이런 거 막 훔쳐가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저도 같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경찰분이 솔직히 무단 주거 침입인데 그냥 이사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또 상대가 군인이었을 때 군에서는 군 경찰 안에서 해결하고 싶어 하지 경찰로 넘어가

길 원하지 않더라고요.

아무래도 데이트 폭력이 2030 세대에 거의 집중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면 상대가 군인일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여성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더 깊게 다뤄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했어요.

사회자

실질적인 대안이라든지 대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다룰 수 있겠는데... 최대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보신 프로그램들에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의 경험이나 이야기를 많이 다루었나요?

②

저도 사실 다양한 사람들의 얘기를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어떤 사건을 사례로 그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알려주는 것 자체에 사람들이 흥미를 많이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나 뭐 그런 시사 프로그램들이 뜬 이유가 한 사건을 되게 깊이 있게 다루서 사람들이 흥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잘 모르는 사실을 또 밝혀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심각성을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이나 아니면 기후 불평등의 심각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으니까 그냥 한 사건을 잡아서 그 사건을 어떤 식으로 해결해 나가는지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⑤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정도면은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례는 그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좀 더 늘어나는 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줄이면 그만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사실 뭐 저도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건을 가지고 파면 좋겠지만 그런 시사교양 프로그램도 있는 만큼 이런 구조의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노노 간병' 같은 경우에는 사건 같은 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 만큼 이런 구조는 10년 전 20년 전부터 계속 해 왔던 시사교양 프로그램 구조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 자체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질문에 맞게 다양하게 답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그럼 다양한 정보 제공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⑤

해결책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는 아까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각하는데 방송 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2편으로 제작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계속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해도 뭔가 논문을 쓰다 만 것처럼 갑자기 중간에서 잘라버리는 느낌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결국은 길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길이를 늘려주거나 그 여건이 안 되면 비판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사실을 알려주는 그 차원의 정보들은 이미 충분한 것 같은데 이제는 그 뒤에 따라와야 할 교육적인 차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①

네 그렇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런 주제를 다루는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은 많다고 생각해요. 시사교양 프로그램 아니더라도 유튜버들도 그런 걸 다루는 분들이 많은데... 만약 해결책까지 제시된다면 추후에 교육용으로 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거고... 의미 있는 해결책이 있다면 찾아서라도 볼 것 같습니다.

⑤

저도 공감하는 게 유튜버 얘기하셨는데 상황에 대한 부분은 조금만 조사를 하면 유튜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요즘 어디든 찾아가서 인터뷰하고 그런 것도 다 유튜버들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YTN이든 다른 방송사든 그런 곳에서 만든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만드는 건데 유튜버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면 사실 전문성에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나 시청자들은 어느 정도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보기 위한 건데 그게 유튜브에서 보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다면 사실 볼 이유가 있나 싶습니다.

그래서 해결책 제공 차원에서 기자나 이런 분들만이 알아낼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의미가 있을까 합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 자체의 이름이 팩트 체크니까 팩트만 체크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아무래도 저는 그런 해결책 같은 좀 더 심층적인 정보가 있어야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회자

방영된 일부 프로그램만 시청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가 있나 한번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지요?

⑤

내용 자체는 그냥 괜찮았다 정도인데 끝나면 바로 휘발적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요.

③

저도 그냥 가볍게 보기는 좋았는데, 따로 추가로 더 찾아보거나 하진 않았고 그런 정도의 매력까지는 못 느낀 것 같아요.

④

제목만 보고 제가 관심 있는 주제와 관련된 것같다면 그걸 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스킵할 것 같아요.

다큐24

사회자

일단 총평으로 인상 평가를 하시자면 어떠셨어요?

④

예시가 너무 많아서 솔직히 조금 난잡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팩트 체크랑 비교하면 길이가 거의 2배 정도 그렇죠 됐던 것 같은데... 사례도 거의 2배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2배 혹은 그 이상이었던 것 같아서 팩트 체크와 비교해 봤을 때 기자랑 앵커가 대화하는 장면만 없고 그냥 구성 자체가 사실 그렇게 차별점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분명 프로그램이 다른 프로그램이고 러닝 타임도 다르고 한데 뭔가 앞서 봤던 프로그램과의 차이점을 크게 느끼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이제 그 시간이 길어졌는데 사례도 늘어나다 보니까 각 사례에 집중하는 시간이 길지는 않았던 것 같고... 앞에 나왔던 사례가 뒤쪽에 다시 한 번 또 나오고 해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남는게 없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②

저는 사실 장애인 예술은 앞에 분과 같은 느낌을 덜 받았는데 그 뒤에 자립 준비 청년은 좀 사례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장애인 예술은 사실 비슷한 사례들을 다루었는데, 자립 준비 청년의 사례는 너무 많아서 이게 과연 너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이렇게 되니까 좀 저도 정신 사나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느끼기에는 사실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약간 편향되어 있더라는 느낌은 받았어요. 장애인도 그렇고 자립 준비 청년도 그렇고... 사실 저는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센터에서 얼마간 일을 도운 적이 있는데 거기 사회복지사분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이제 자립 준비 청년 범위가 너무 넓어 가지고 거기서 2년 이상 머물면 지원금이 나온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거의 힘든 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다시 본 가정으로 돌아가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이면도 있다고 들었어요. 좀 다양한 면을 보여주기보다 너무 힘든 면만 부각시켰다는 느낌은 받았던 것 같아요.

③

저도 '자립준비 청년'편을 보면서 조금 인상이 깊었는데... 저도 이제 나중에 독립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립 준비 청년이 될 텐데요. 관련해서 정책이나 지원 방법이나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정리를 안 해주셔서 대상이 어떻게 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이나 그런 걸 좀 더 자세히 소개해 주는 약간 그런 식으로 만 들었다면 정보 전달의 목적에서 볼 때 좀 더 좋아졌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

주제 선택 자체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⑤

오히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내용들을 주제로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①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다큐 24잖아요. 그래서 다시 듣고 여기서 생각해 보면 24라고 하면 한 사람 또는 많으면 두 세 사람이 24시간 동안 생활하는 모습을 관찰하고, 다음으로 경계성 지능 장애인의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를 했는지 그런 걸 포착해서 담고 그걸 짧게 편집하고 그 다음 신으로 넘어가서 또 다른 장애를 가진 분에 대해서 다루는 관찰식 구성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자

편향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봤으면 하거든요. 편향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한 쪽의 이야기가 너무 많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보면 특정 문제에서 지나치게 한쪽 면만 부각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②

자립 준비 청년에 한정해서 말을 하자면 자립 준비 청년이 사실상 혜택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맞긴 한데 그 자립 준비 청년의 범위가 과거에 비해서 너무 넓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이 없더라고요.

과거에는 자립 준비 청년이 시설에 3년인가 4년 이상 있어야 자립 준비 청년으로 인정되고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 기간이 많이 줄어서 사실상 자립 준비 청년에 해당되지 않는데 그 혜택을 다 받아서 해외여행을 간다든가 아니면 명품 숭에 가서 쇼핑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사회복지상에서 많이 문제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한 달에 거의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를 수령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이면들에 대한 얘기는 없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들의 힘든 점만 좀 나열되어 있고 진짜 복지를 못 누리는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뭔가 뭉뚱그려 놓은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①

저는 전공이 예술 쪽이라서 그런 건지 장애인 예술을 조금 더 유심히 보던 와중에 한 여성 장애인분께서 조금 위험한 발언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요. 우리는 장애인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예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어요.

근데 장애인이니깐 예술을 조금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비장애인들은 예술에 대해서 조금 더 해야 할 필요성이 없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 자체가 조금 위험한데 라고 느꼈어요. 아무리 장애인 예술을 다루더라도 제작진이 조금 편향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자

말씀 듣고 보니 주제들이 시청자들에게 그다지 큰 관심을 끌지 못했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 실제로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정보의 가치는 어떻게 보시나요?

①

정보의 가치는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게 장애인 분 중에서 무대 위에서 도와주는 어시스트처럼 무대 밑에서 도와주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었던 거라서 만약에 제가 교사고 반 아이 학생이 예술적으로 관심이 많은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직업도 아마 설명해 주고 싶기는 해요.

근데 또 아쉬운 게 거기에 나온 장애인 분들을 보면 조금 장애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만 나오신 걸 다루셨더라고요. 그래서 장애 등급이 좀 높다면 어떤 예술을 하셨을지 그런 것도 다루는게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사회자

다양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지 않았다는 앞선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일단 의도된 틀을 만들어 놓고 제작한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겁니다.

⑤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뭐 프로그램이 기억에 남는 경우가 사실 내 얘기거나 나랑 비슷한 얘기거나 할 때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만약에 제가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분들과 같은 상황이라면 다큐24를 보고 "뭘 신청해서 뭘 받을 수 있다" 라든지 "당신이 장애인이라면 아니면 고립 청년이라면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라" 이런 내용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건 사실 그냥 간단하게 알려주지만 해도 몇 초를 안 쓰는 거
않아요.

예시를 들면 유튜브 중에 '1분 미만'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1분 안에 모든 내용을 알
려줍니다. 앞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에 대해 설명하고 뒷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야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로 정리합니다. 그걸 1분 안에 다 설명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구성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서 뭘 신청해야 한다. 아니면 뭘 받
을 수 있다", "연령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고 하면 도움
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오히려 유익한 채널로 인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③

경계성 지능 관련해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다른 분들과 어떻게 다
른지 그런 건 잘 몰랐는데 경계성 지능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증상이 있고 다른 분
들과 뭐가 많이 달라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약간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알려주면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몰랐던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좀 새롭게 느껴질 수 있었지만 해당 정보
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똑같은 것을 본다고 했을 때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을 정
리해 주는 단순 정보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교육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정보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다큐 24 같은 프로그램은 어디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②

저는 방영시간이 거의 40분이나 되고 또 일반적인 내용 같은 경우는 다른 시사 프로
그램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 하거든요. 특히 유튜버나 이런 데서도 되게 많
이 다룬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론적인 설명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40분 동안 차라리 깊게 들어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경계성 지능인 분들의 경우 장애 혜택을 못 받는다고 알고 있는

데, 그런 분들이 실생활에서 20살 전까지는 어느 정도 혜택을 받다가 20살 딱 되고 나서 혜택을 못 받는 현실을 차라리 사례로 보여준다던가 차라리 그런 한 가지 주제에 집중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팩트 추적과 다큐 24는 어떤 측면에서 확연하게 구분될 수 있을까요?

①

사실 인터뷰를 위해 사전 시청을 하면서 이걸 팩트 체크고 이걸 다큐 24라는게 처음에는 구분이 전혀 안 됐어요. 이거는 몇 분 짜리고 저거는 몇 분 짜리라는 시간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벤치마킹을 하자면 저 같으면 다큐 24는 '인간극장'처럼 24시간 이렇게 포맷을 짤 것 같고요.

팩트 체크는 '궁금한 이야기 Y'나 아니면 '그것이 알고 싶다' 축소판 처럼 만들어서 뒷부분에 해결책 이런 내용은 그냥 전공 교수님의 자문을 받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자막이나 포맷 자체를 조금 많이 다르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③

팩트 추적은 일주일에 한 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주에 좀 핫했던 주제들이나 사람들이 많이 알 만한 주제들을 그래도 좀 폭넓게 다루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다큐 24는 그래도 한 달이라는 시간이 있으니까 좀 더 특정 사례를 깊이 있게 다루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회자

제공하는 정보의 수준을 볼 때, 현재보다 좀 더 다양하고 복잡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 수준보다는 좀 더 알기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②

저는 복잡함보다는 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용어가 어려울 필요는 없는데 그 단어에 대해서 더 깊게 다뤄야 된다는 생각은 있어요.

①

지금 딱 괜찮은데 여기서 조금만 더 체계적이었으면 좋겠다고 느껴요.
하나하나씩 조금 더 구체화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붕 뜬 느낌이거든요.

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난잡함'과 이어지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지양해야겠죠.

사회자

사실 타이틀도 중요합니다. 기후 불평등 같은 경우도 타이틀하고 좀 안 맞게 보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⑤

개인적으로는 이게 YTN에 그런 지침이 있나 꼭 이렇게 범위가 큰 대주제로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부 주제에서 매주 아이টে을 바꿀 필요가 없으니까 매주 어느 정도 좀 자세하게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뭉뚱그려서 만들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거든요

컬처 인사이드

사회자

일단 여쭙보고 싶은 건 재미 있으셨어요?

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시 뜨는 고전 SNS 블로그'의 경우, 재밌는지도 모르겠고 공감도 잘 안 되는데 진짜인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MZ세대에 블로그가 다시 유행하고 있으며, 블로그 활동이 현실적으로 부업이 되기도 하는데, 이는 옛날 추억과 정적인 감상을 느끼고 싶은 MZ 세대가 늘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 "진짜 그럴까, 웬지 아닐 것 같은데"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니어 어르신들이 K-무용에 관

심이 있다든지 하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인 것 같았고요.

④

컬처 인사이드라고 했을 때 사실 처음 드는 느낌은 컬처가 어쨌든 대중문화라는 느낌이 좀 강한데 다루는 주제들은 어찌 보면 살짝 마이너 한 쪽으로 치우친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환경 리사이클 편에서는 환경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사실 그 리사이클 제품을 사는 사람이 메이저 한 대중일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발레도 마찬가지로... 유일하게 메이저라고 좀 느꼈던 건 그나마 K-콘텐츠 오징어 게임이랑 그 다음에 디즈니 플러스가 제작한 '조명 가게'에 출연한 주지훈, 박보영 이런 배우들이 한 데 모여서 홍보하는 그 정도 가 그나마 좀 메인 쪽이지 나머지는 메인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컬처라고 하는 게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을 통틀어 말하는 거라면 그러려니 하지만 대부분의 대중들이 '컬처 인사이드'라는 제목을 들었을 때 과연 그렇게 느낄까 라고 하는 거에 좀 의문이 들었어요.

②

저는 '컬처 인사이드'라고 해서 사실 대중문화를 떠올리진 않았고, 문화를 좀 더 자세하게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은 했어요.

제 친구는 백종원씨가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음식 소개하는 '스트리트 푸드파이터' 그걸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보고 보고 또 보거든요.

그냥 차라리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식문화나 아니면 의식주 관련 문화들을 좀 다뤄도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K-콘텐츠가 유행한다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좀 새로운 거를 알려주면 좋겠어요.

사회자

약 3분 정도의 프로그램을 두 편 많으면 네 편까지 모아 한꺼번에 방송이 되는 시스템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3분의 1 정도는 인터뷰예요.

물론 3분이라는 시간이긴 하지만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대중문화를 가장 많이 폭넓게 향유하고 있는 연령대에 속한 분들이신데 주제들이 공감은 되세요?

②

K-무용은 사실 저도 공감 안 가진 했는데 리사이클 많이 쓰는 거는 제게 와닿긴 한 것 같아요. 제 친구들도 생일 선물 고를 때 리사이클 된 가방이나 이런 걸 선물을 해서 서로 돈 모아서 사주고 하거든요. 그런 건 공감되긴 했는데 무용은 잘 모르겠어요.

①

사실 저는 거기에 나온 영상들 다 보고 주변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공감이 잘 됐던 편이거든요. 특히 또 저보다도 더 어린 친구들 인스타에 가면은 아래 링크를 달 수 있어요. 그러면 링크 거기에 이제 자기가 주기적으로 쓰는 친구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12월 이러면서 12월에 먹었던 거라든지 간략하게 사진 밑에 이렇게 적어놓기도 해요. 특히 여행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 말씀이 "한국 유튜브 네이버 블로그가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런 분 때문에 또 이제 블로그 작성들도 많이 하시기도 하고 예전에 알았던 지인은 그걸 부업으로 해서 직장인 월급보다 더 많이 받기도 하고... 그런걸 보면 다시 이제 붐이 오는 것 같기도 해요.

K-무용의 경우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이 보여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어린 아이 키우는 분들은 이제 무용선이나 이런 걸 예쁘게 하기 위해서 한국 무용 같은 것도 하고 주변에 인스타 스토리 보면은 발레도 등록을 해서 다니시기도 하고요.

그런데 조금 아쉬웠던 점이 있는데... 블로그 하시는 분을 인터뷰해서 작성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 했는데 왜 블로그가 유행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조금 잘 다뤄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통계상 블로그가 왜 재조명되는지 MZ세대 기준으로 이런 게 조금 다뤄지거나 통계 자료로 보여줬으면 시각적으로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런데 K-무용은 잘 보여주셨고, 스테이지 파이터 이런 것도 보여주셔서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사회자

주제 범위가 너무 넓은 것 같기도 한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⑤

저는 이 세 가지 프로그램 종류 중에는 가장 방향성에 맞게 만들고 있지 않나 생각

해요. 왜냐하면 3분인 거 보니까 짜투리 시간에 넣으려고 만드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맞는 같아요.

저는 K-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미미할 거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통계 자료를 보여줘서 이게 생각보다 별로인데... 이려고 넘어가지 않을까 싶어서 통계자료를 안 쓰게 잘했다고 봐요. 통계를 내기도 좀 어렵기도 하겠구요. 그렇지만 아직 시작 단계라 하더라도 문화적 관점에서 마이너 한 문화지만 소개도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 세 가지 중에 시사교양 프로그램 방향성에 가장 적합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

전체 프로그램 리스트를 보셨으면 그거 말고 나머지 것들을 포함해서 어떤 게 더 좋았어요?

③

저는 그나마 K-컬처가 좀 와닿았던 것 같고 나머지는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 그냥 그렇구나 하면서 약간 본 것 같습니다.

①

한국 무용 편은 가장 잘 만들어져서 보기에 깔끔하고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시 자료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 엠넷에서 하는 무용수 관련 경연 프로그램들이 소개되어 방향성에 맞게 만들어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학원에 가서 직접 인터뷰까지 한 과정이 저는 깔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④

저는 리사이클 관련한 주제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만듦새가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재활용과 환경에 대한 인식을 한번 제고하는 목적에서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조금 보완했으면 했던 거는 리사이클 전용 마켓이나 이런 것도 조금 조명을 했으면...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방문할 수 있는 곳은 그런 곳들인데 그런 곳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 제공해 주면 그래도 좀 더 좋은 콘텐츠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은 해요. 어쨌든 환경에 대한 리사이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면에서는 그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②

저도 리사이클인 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 또 환경에 대한 관심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제일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정보도 그렇지만 교육적 가치 이런 것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다른 분들 이야기를 듣고 난 후 총평을 다시 한 번 부탁 드릴게요.
보신 프로그램 중에 순위를 매기셔도 됩니다.

⑤

순서를 말씀드리면 그냥 살펴본 프로그램 반대 순으로 1 2 3순위인 것 같아요. 컬처인사이드가 1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방향성에 잘 맞는 것 같아서 1위인 거고 그 다음이 다큐 24였죠. 다큐 24가 훨씬 잘 만들었다라기 보다는 3위인 팩트 추적이 구성도 그렇고 좀 자기들끼리 대담하기도 하고 전문가가 따라 나오는 것도 아니라서 팩트 추적이 3위입니다. 그래서 다큐 24가 2위인 것 같고 사실은 비슷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

결국은 주제에 맞게 가장 잘 만든 것이 컬처 인사이드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⑤

이름도 잘 지었다고 생각 합니다. 3분 가량의 짧은 시간을 위해 대본도 잘 작성하고 목적성에 딱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④

1순위는 컬처 인사이드고, 2순위가 팩트 추적, 3순위가 다큐 24인데 우선은 1순위로 뽑았던 거는 시간이 짧은 가운데서도 최대한 많은 사례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많은 사례를 제시한다면 그래도 시간을 좀 짧게 해서 임팩트가 있게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 자체도 일상적인 것도 많고 어쨌든 저는 제목 자체는 엄청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주제를 되게 다양하게 가져가는 것도 좋았고 해서 1순위로 그거를 뽑았고요.

그다음에 2순위 3순위가 갈려진 기준은 편향성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다큐 24에서 두 편을 봤는데, 다른 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 사례에 치우친 면이 있다는 점에서 편향성 측면에서 공감이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편향적인 측면에서 팩트 추적이 그래도 좀 덜 했던 것 같거든요.

다큐24 보다는 물론 길이가 짧은 것도 무시 못하겠지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따졌을 때 사실 두 번째가 팩트 추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큐 24의 경우는 길기도 긴데 좀 편향되어 있는 것도 있었고, 다큐 24라는 이름을 떠올려봤을 때는 말 그대로 뭔가 24시간 관찰 형식이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사실은 했긴 했거든요. 근데 막상 보니까 또 그런 거는 아니어서 근데 보통 기대치랑 다르면 실망하기도 하고 의외네 좋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데 전 전자였어요.

24에 대한 의미가 제대로 구현 되지 않은 것 같아서 3위로 뽑았습니다.

②

저는 다큐 인사이드가 1순위고 다큐 24가 2순위, 팩트추적이 3순위입니다.

이제 유튜브 숏폼이 3분으로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딱 3분짜리니까 쇼츠로 뜯다고 하면 가끔 볼 것 같아서 다큐 인사이드가 1순위이었고, 다큐 24는 사실 깊이만 좀 더 깊어지면 저는 주제가 흥미가 가면 볼 것 같아서 그렇게 골랐고, 팩트 추적은 사실 프로그램 이름이랑 그 주제가 연관이 있는지도 솔직히 모르겠고 그 20분 안에 뭔가 깊이 있는 걸 다루려면 그렇게 대주제를 가져가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번째로 선택했습니다.

사회자

너무 호흡이 긴 주제였다. 그게 이제 좀 감점 요인이 된 거네요.

①

보완을 만약에 잘했을 시에 순위를 꼽는다면 팩트 추적이 1등이고요. 컬처 인사이드가 2등이고, 다큐 24가 3등입니다.

팩트 추적을 1위로 꼽은 이유는 플랫폼이나 구상을 조금 더 보완하고 해결책 그리고 마무리 정리 단계를 확실하게 영상으로 보여준다면 깔끔하고 주제도 저는 가장 교육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예상인데 만약에 대주제로 이렇게 제목을 길게 나열한 게 혹시 유튜브에 올라갔을 때 검색이나 아니면 비슷한 용도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기후 변화했을 때 자세하게 놓어준 이러면은 검색에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크게 포괄적으로 적으셨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컬처 인사이드는 지금 딱 적당한데 크게 보완을 해도 여기서 막 크게 활성화되거나 올라가고 그러진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중간 정도이고, 다큐 24는 조금 많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서 3위로 뽑았습니다.

사회자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모를 정도로 마치 백화점식으로 펼쳐놨다는 앞선 지적과 연결되는 거 같군요.

③

저는 컬처인사이드를 1등으로 뽑았고 2등을 팩트 추적으로 했고, 3등을 다큐 24로 했는데 우선 컬처 인사이드를 1위로 뽑은 이유는 요즘 같은 시대에 짧은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많고 긴 영상을 약간 보기 힘들어 하는 분들이나 좀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시대상을 잘 반영했다고 생각을 해서 컬처인사이드를 1위로 뽑았습니다.

2등은 팩트 추적을 선택했는데 다큐24와 차이가 약간 사례만 좀 더 많아졌을 뿐이지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거나 그런 전문성의 깊이는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팩트 추적의 예시가 그렇게 적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팩트 체크가 더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그럼 반대로 이 주제는 좀 별로였던 것 같다고 느끼셨던 것들은 없었을까요?

①

다큐 24에서 자립 청년들 다루는 거에서 경계성 지능 장애는 장애인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근데 좀 다른 자립 청년들과 비교해 언밸런스 했던 것 같아요.

사회자

경계성 지능은 장애인 입장에서 다루면서 별도의 주제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신가요?

①

네. 그렇죠. 장애인 자립의 경우 일반 자립과 경계성 지능을 좀 다르게 다뤄도 되지 않을까하는 의견입니다.

⑤

동일하게 자립청년 편에서 조금 의아했던 게 저는 최근에 취업을 그냥 하든 준비를 하든 아니면은 포기를 했든 간에 장기 취준생이 많아지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장기 취준생 문제를 안 다룬 게 오히려 신기했던 게... 어떤 불우한 가정이나 있다든지 아니면 과거가 있다든지 그런 경험만 다루고 오히려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옆에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내용을 안 다룬 게 더 신기했어요. 물론 다뤘으면 더 난잡해졌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왜 빠졌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자

오히려 일반적이고 더 포괄적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문제가 다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의 말씀이시네요

⑤

네 제목을 보고 그 부분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물론 다른 분들도 다 문제가 되고 사회적 문제이지만 최근 들어 이슈가 되는 사회적 문제는 그냥 아무 문제도 없는데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사회자

내용적 측면에서 균형성을 좀 잃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아까 장애인 관련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는 했었죠.

①

다큐 24 장애인 예술편에서 출연자 분이 세금이랑 돈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은 조금 위험한 발언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사회자

사회적 상식이나 공적 책무와 관련해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⑤

세 가지 유형의 프로그램 모두 오히려 공적 책임에 제일 부합했던 것 같아요. 프로그램의 목적이 공정성이나 공적 책임과 같은 의무에 부합해야 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주제로 제작해야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 낮은 시청률에도 불구하고 제작하는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정보 제공 측면에서는 어떠세요?

⑤

사람마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다 다르니까 이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교육적 가치도 일부 있었다고 생각하고, 교육적 가치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정리해 향후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별첨 2 FGI 녹취록-그룹 B(40대 이상)

사회자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은 주로 즐겨 보시나요?

⑤

100분 토론 같은 프로그램들이나 다른 시사교양 프로그램들도 자주 보는 편입니다. 주로 TV로 시청하는 편입니다.

①

저도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보는 편이긴 한데 TV보다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는 편입니다. 알고리즘에 뜨면 보는 것보다 직접 검색해서 시청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은 그 안에서만 움직이다 보니까 직접 검색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네요.

⑤

유튜브로 시사 프로그램을 시청하는 경우는 일을 하면서 모니터 두 개를 사용하다 보니 한 쪽에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틀어놓고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TV는 생방송으로 하지만 유튜브 같은 경우는 틀어놓고 들으면서 일하면서 듣는 편입니다.

사회자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으로 보시나요?

⑤

공정성이나 사실성도 중요하긴 하지만 시청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어요.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을 보면 항상 자기들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서로 대립만 하고 있으니까 실제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야 판단을 하는데 출연자들이 자기들 얘기만 하기 때문에 어느 의견

이 맞는지 판별을 못하니까 그냥 “여기도 그럴 듯하고 저기도 그럴 듯하네” 하면서 국민들만 헛갈리게 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보다는 시청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는 내용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야 그 다음 이야기를 알아들을 수 있을텐데 두서없이 자기 주장만 하면 별로 공감이 안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니까요. 초반에 주제에 대해 사람들의 이해를 돕는 내용들이 충분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②

서론 본론 결론처럼 시사 프로그램에 주로 흐름에 있어서 마지막에 의견이 나오잖아요. 보통 이런 거는 그 의견에 대한 근거나 증거가 좀 공정했으면 좋겠어요. 시사교양 프로그램에도 의견이 들어가는 건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논문 쓰듯이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서론 본론으로 나오잖아요. 주장들이 좀 공정하게 결론이 났으면 좋겠어요.

④

YTN에서 저희가 본 시사교양 프로그램들은 다큐 형식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그냥 어떤 사람의 생활을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요. 국민연금 개혁 같은 주제에 대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현재 어떤 이슈가 있고 장점과 단점 같이 서로 대립된 의견이 있으면 그걸 공정하게 소개시켜 주면서 그런 이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①

사실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신은 기본이지만 너무 기계적인 중립을 내세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게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부 보여준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 같아요. YTN 같은 경우가 좀 약간 그런 식이라고 생각하구요. 저는 그런 거를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팩트 추적

사회자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주제가 선택이 됐다고 판단하시는데 대해 좀 궁금합니다.

③

팩트 추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제가 현 사회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이미 벌어진 어떤 사건에 대한 문제를 다시 재조명해 보는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로 하여금 그게 문제가 있구나를 좀 알려주는 측면이 있는데, 해결 방법은 사실 거기에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 다른 주제도 마찬가지로요.

팩트 추적 그리고 다큐 24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다큐를 포맷으로 했는데 다른 것도 좀 보다 보니까 우리 일상 시민들의 문제인데 이거는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해결하지 못하고 같이 어떻게 떠안고 가야되는 건가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방향을 달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참 좋은데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는 다큐들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리고 킬처 인사이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냥 총체적으로 얘기하면 문제가 아닌 것인데, 지금 약간 연령층이 좀 차이가 나긴 한데 현재 문화와 관련된 경제활동이나 문화 현상에 대해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좋아하고 있고 각광을 받고 있어요” 같은 부분에 대한 조명에 가까운 것 같아요. 옹고 그르다는 걸 하는 건 아니고 유행 같은 거를 약간 알려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모두 시사로 보면 결국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아니면 팩트 추적 같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문제에 대해 알려주면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좀 살펴보세요”, “어느 동네에 무슨 문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 거를 보여주고 같이 집단지성을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꼭 풀어보자고 이야기하는 방향성을 가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꼭 정치적으로 참여한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런 방향도 상당히 좋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프로그램을 볼까 하다가 YTN 시청자 비평 프로그램을 한 번 봤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있더라고요.

지금 말했던 것처럼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걸 다루고 있었다라는 걸 한번 다시 한번 코멘터리 달듯이 그렇게 보면서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시사는 재방송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다시 하니까 그렇게 참 좋고요...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렇게 각 전문가 교수님들이 나오셔서 가지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코멘터리 달면서 다시 한 번 조명하는 게 YTN 채널에 아주 적합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다른 프로그램들도 시사라고 해서 꼭 정치가 아니고 이렇게 포맷을 달리해서 팩트 추적이나 컬처 인사이드처럼 이렇게 문화면 문화나 아니면 현 사회에 있는 어떤 현상에 대해서 재조명 해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정말 팩트 추적처럼 어떤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를 굉장히 큰 영향을 나중에 미치게 될 건데 "이거 모르고 있으면 큰일나요"라고 하면서 다시 한 번 재조명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이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

편향성에 대해 지적하실 부분은 없었나요?

⑤

팩트 추적에서 자영업하고 연금하고 잼버리 편들을 저희가 봤잖아요. 그런데 팩트 추적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팩트가 아닌 게 많이 있었어요. 특히 자영업 같은 경우는 그렇다 해도 연금 같은 거는 좀 팩트가 아닌 게 좀 많이 보여서 좀 더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내용 자체의 흐름이 지금 방송사에서 처음에 기획했던 대로 쪽 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기들이 이런 걸 하려고 취재하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원하는 결론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정보를 모으고 모은 정보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처음부터 기획했던 거를 "오늘은 팩트 추적에서 이 부분만 결론을 내겠다"라는 식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이 흡수가 안 되는 거 같아요.

일반인이 보기에는 그냥 뭐 "자영업이 망해 가지고 철거 업체가 돈을 번다", "연금

개혁이 시급하다”, “잼버리가 좀 문제가 많다” 처럼 그 정도 선에서 문제가 많네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이걸 조금 글자 그대로 팩트 추적이라는 내용으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연금도 그렇고 자영업도 그렇고... 그냥 자영업이 망하는 거야 계속 망하고 흥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자영업이 왜 많이 생겼는지도 얘기를 좀 했지만은 왜 많이 생겨 가지고 망하는지, 망해 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사실 철거업자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하지만은 사실 호황이라는 게 좀 서로 안 맞는 얘기고 연금도 마찬가지로 연금 개혁이 필요한데... 서로 세대 간 갈등도 많고 이런데... 거기에 대한 사실 내용을 보면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도 직장인들은 50% 부담하는 거 아니에요. 자영업자는 100% 부담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조금 약간 어설픈 내용 같고 잼버리도 마찬가지로 이게 처음에 정책 자체를 잘못 수립한 건데... 그리고 또 정책을 처음에 수립할 때 무슨 복안을 가지고 한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뒷부분에 좀 나오다가 말고 그래서 좀 더 이것도 보는 사람들 따라 다르겠지만 보는 사람들마다 보는 눈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많은 의견을 들어서 거기 접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연금의 경우 자영업자는 재산까지 포함해서 하는데 그거는 내용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게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고 잼버리도 마찬가지로 “전북에서 새만금 개발하려고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다” 그런 의심이 든다면 뭐 한다는 내용도 없어요. 의심은 다 누구라도 들죠. 근데 이 정도 내용은 그냥 일상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선에서 아는 내용을 그냥 풀이한 것 뿐이고 이걸 가지고는 팩트 추적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냥 뭐 흘러가는 얘기를 그냥 한 것 뿐이지 이게 팩트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팩트라고 하면 국민들이 모르는 거를 집어주는 게 팩트지 그냥 일반인이 다 아는 내용을 갖다가 방송하면 뭐 해요? 그렇잖아요.

연금 개혁 다 알지. 뭐 해야 되는 거 아는데도 서로 돈 내기 싫어하고 근데 사실 연금 개혁의 핵심은 기업도 문제지만 국민연금과 다른 연금 홍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는 사실이죠.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나중에 늙어서 이거 가지고 풍요롭게 살라고 주는 돈은 아니야. 사실은 자기가 낸 돈을 가지고 은행에 적금 붓고 20~30년 해도 그

돈 못 받아. 은행에 내도 적금을 해도 그러니까 그 홍보부터 좀 문제가 있는 거야.

국민연금만 받으면 "난 늙어서 잘 살 수 있다" 아니지요.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다 그냥 연금은 내가 내는 돈 가지고 정부에서 뭐 하는 거 아니냐 돈을 조금 내면서 그러니까 내가 한 달에 20만원 내가면서... 늙어서 그 돈 40년 모아봤자 한 40만 원밖에 안 되는데 그 돈 가지고 평생 어떻게 살아? 그런 부분을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걱정마라 하니까 그거 가지고 먹고 살자 그러고 계속 싸우는 거 아니에요? 소득 대체율을 40% 주니 50% 주니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제대로 말하는 방송사가 없지. 욕먹을까 봐 안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지적해야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이게 내용을 아니까 지금은 전부 다 연금에 대해서 대강만 아는 거 아니에요. 난 9% 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인데 사실 20만 원씩 내 가지고 어떻게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조금 좋은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실제적인 내용을 방송해 주라 그거죠.

사회자

실제로 그 사건이나 이슈를 이해할 수 있는 추가적인 정보들이 더 필요할까요?

⑤

그렇지... 좀 더 사실적으로 접근해야지. 그냥 뭐 좋은 얘기만 쪽 하면은 방송이 무슨 의미가 있어 다 좋지.

③

방송을 제작할 때 뉴스처럼 하는 거 하고, 지금 같이 시사교양 프로그램 식으로 하는 거 하고... 제작자가 뉴스는 벌어진 사건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예를 들어 새만금 잼버리에 대한 문제를 미리 설정 해놓고 그 방향으로 결과를 미리 결정하고 방송을 내보내는 제작 의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뉴스처럼 그냥 사실만 짚 나열해 주고 연금 같은 것도 각 자영업자랑 일반 근로자 관련 그래프나 표를 갖고 앞으로 몇 년 후 고갈되는 그래프를 다 일일이 설명만 해주고 "평가는 여러분이 하세요"라고 하는 게 올바른 건지 사실은 모르겠어요.

사실만 나열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방송시간도 한정돼 있고 그거를 다 정보별로 한꺼번에 정리하는 장점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안 보고 싶은 사람들은 안 보고 보는 사람들은 뉴스와 다른 목적으로 그걸 시청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뉴스는 정말 밥먹으면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보는데,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선택적으로 방송을 섭취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미리 설정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도 생각합니다.

⑤

저는 개인적으로 팩트 추적이라는 방송을 하면은 뭐가 팩트인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제목 그대로 팩트 추적인데... 근데 뭐가 팩트인지를 내가 모르니까요. 그냥 흘러가는 얘기를 쭉 해버리고 방송할 때 기획 의도를 명확하게 정해 놓지 않고 아무것도 없이 한 쪽으로 몰아가지는 안잖아요. 그러니까 팩트 추적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차라리 지금 말씀하신 예를 들어 프로그램을 한 편으로 끝내지 말고 세부 주제로 나눠서 제작하면 여러 각도에서 보지 못했다는 지적을 보완할 수 있을까요?

⑤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시간이 짧으면...

④

그러니까 이제 뉴스 같은 거 보면 맨날 똑같은 내용을 여기저기서 막 수십 군데에서 기사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맨날 똑같은 내용을 보면 지겹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뭔가 추가적인 취재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추가적인 취재를 해서 다른 곳에서 보도가 안 됐던 내용이나 잘 몰랐던 내용을 추가적으로 이렇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재미는 있죠.

⑤

방송국에서 알아야 할 거는 요즘에 나이 드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종편에서 보면 그 주구장장하잖아요. 똑같은 패널들이 이 방송으로 갔다가 저 방송으로 갔다가 똑같은 거죠. 거의 전 국민들이 계속 공부하는 거야. 계속 그냥 그래서 종편이 역할도 많

이 하지만 편가르기 역할도 엄청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상식 수준은 많이 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편가르기를 엄청 많이 하는거죠.

방송도 이제 국민들 수준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를 좀 봐야 한다 그거죠. 자기들 눈만 보는 게 아니고 국민들 수준을 봐야 해요. 국민들이 딱 봐가지고 방송 이거 뭐 뻔하네 이러면 안볼거 아니에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지. 국민들 그 수준을 좀 그 생각을 해야 되겠죠.

사회자

팩트 추적을 보셨을 때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실성이나 편향성 관련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③

밸런스가 살짝 안 맞는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입장을 조금씩 다루고 는 있는데 그래도 방송 시간으로만 보면, 약간 하나의 입장이 조금 더 부각되고 인터뷰도 좀 그쪽 사람이 조금 더 있는 것 같고 그런 거는 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프로그램 자체가 편집된 거니까 그걸 분량으로 보면 그것도 의도된 편집이라고 할 수는 있겠죠.

기획 방향을 가지고 방송 제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프로그램을 보는 시청자 수준이 많이 높아졌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식이나 상식을 함양하기 위한 정보들을 지금보다 더 정제해서 제공해주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프로그램 내용의 기계적 균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팩트 추적을 봤는데 한 주제에 대해 약간 심도있게 다루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아요. 심층적인 얘기를 풀어낼 때 저는 인터뷰가 되게 좋았거든요. 연금 개혁 이슈를 예로 들면 세대별 인터뷰를 다 하는 건 좋았는데... 자영업자의 의견 자체는 들어가지 않고 기본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다뤘잖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걸 편향이라고 보기에 심층적으로 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수박

걸핍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이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계속 그래픽을 내보내고 수치를 내보내고 이 건 40%고 일본이 64세에 받고 막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모니터 하면서 계속 이렇게 쓰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따라가려면 내가 메모를 하면서까지 이런 거를 봐야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얘기하고 싶은 건 알겠는데 시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그거를 그냥 계속 "우리는 공정하다", "우리는 이런 거를 많이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를 계속 이렇게 수치로 내보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사회자

그러면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어쨌든 정보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①

그렇죠. 정보가 좀 정제돼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일본 사례는 그렇고 프랑스는 그래서 이제 총선에서 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사회자

흘러가는 정보량은 많은데 확실한 결론이나 의견 또는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의견이신가요?

②

저는 약간 이 제목 자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나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니까 연금 같은 경우도 나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일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문제를 던져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영화도 그렇잖아요. 영화 같은 경우도 그걸 보면서 여기서 내가 느끼는 게 뭔가 그게 가장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팩트 추적이긴 하지만 이런 짧은 시간에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정보들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거를 분석하기보다는 몰랐던 거를 알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④

이게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 서로 이제 다양한 생각이 있는데 문제는 기본적으로 팩트를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서로 뭐 사실관계에 대해서 잘못 인지하고 있다거나 아니면 모르고 있다거나 그러면은 주장이 왜곡이 될 수가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쉽게 설명해 주는 게 중요하죠.

⑤

아까 말씀드린 건 이 정도 팩트 추적이면은 그냥 상식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큰 공감 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지.

사회자

그러면 단순한 지식 제공과 교육적 차원의 정보 제공 중 팩트 추적은 어떤 측면에 더 집중하는게 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⑤

팩트 추적은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하나를 하더라도 좀 국민들이 꼭 알고 싶어 하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쪽 끌고 갈 게 아니고 뭐 하나 하더라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이것저것 다 훑고 가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내용이 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정확히 팩트를 알려면 하나라도 정확히 집어 가지고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거를 알려 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이라는게 필요하긴 한데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하니까 많이 아는 사람들은 "뭐 이거 별로 별거 아니다" 생각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보기에 새로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건 보는 사람 생각과 성향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가급적이면 국민들이 꼭 알아야 할 만한 것, 놓치고 있는 거를 찾아가지고 그런 거를 좀 집어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④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취재를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기존에 알려진 거 외에 좀 그런 것들을 찾아서 알려 줘야죠.

사회자

그냥 이미 다 알고 있는 수준은 적어도 넘어서야 된다 라고 하신 거잖아요?

⑤

그래야 팩트 추적이죠 상식 추적이 아니라....

사회자

정보의 편향성이나 다양성 측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⑤

내용 자체는 시청자들 중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거의 평균적인 수준을 가정한 거라고 생각해요. 특정 주제에 대해서 이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하는 그 수준에 맞춘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보 자체도 거기에 맞춰져 있는거 라고 봅니다.

①

30분 분량에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1시간 정도 된다면 정보들이 더 충실해질 수도 있겠지만 이 30분을 잘 활용해서 그 정도의 정보는 적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⑤

그러니까 정말 화두만 던져주는 정도인거 같아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 판단은 너네가 해라 정도의 수준인 거죠.

③

근데 이제 그거를 안 보여줬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역할을 했다고 보는거죠.

저는 그래서 아까 다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나한테 그냥 적용되는구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적용되는구나 그럼 나한테 적용되는 거를 나만 생각해 보고 내가 혼자 문제를 고민해 봐야 어차피 내가 직접 해결하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자기가 혹시 문제가 된다고 하면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짧은 시간에 안 그랬으면 정말 아까 기계적으로 어떤 입장을 정확하게 분리해서 뉴스처럼 중립적인 입장에서 분량을 계속 늘리면서 아예 집중 거의 탐사보도 수준으로 그렇게 가야 되겠죠.

분량을 늘려서 정확하게 캐고 나가려면 그리고 심지어 문제에 대해서 그 뒤로 어떤 일이 계속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할은 충분히 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더 깔끔하게 쉽게 표현하느냐는 늘 이제 그거를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사회자

일단 주제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①/⑤

주제는 충분히 사회성이 있는거 같아요. 필요한거죠.

사회자

다만 내용적인 차원에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전달 또는 정보 제공으로서의 역할들 충분히 하고 있다 정도로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아까 20~30대 분들이 포맷 얘기를 좀 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거 한번 여쭙보고 싶은데... 기자하고 그 다음에 진행자 둘이 마주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좀 뭐라 그럴까요? 너무 형식적인 장면이 좀 많았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런 느낌이 있으신가요?

①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좀 약간 어색한 측면이 있기는 했어요.

⑤

어차피 원고를 보면서 하는 거니까 둘이 대화하는 테크닉이죠.

③

뉴스처럼 안 보이게 하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뉴스가 아니니까...

사회자

지나치게 형식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들이 있어서요.

④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둘이서 대화하는 건 거의 안 들어올 정도로 되게 짧게 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③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사실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기자가 취재해 온 것만 영상에 놓고 기자가 설명하는 방식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팩트 추적에 대한 총평 부탁드립니다.

⑤

내용은 필요한 내용인데 주제 같은 건 괜찮다고 볼 수 있고요.

내용도 거의 평준화된 내용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크게 거부감은 없는데 이제 좀 조금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약간 모자란 부분이 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④

자영업자 관련 내용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다큐멘터리식으로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계속 진행하는 방식보다는 좀 이제 여러 사람을 보여준다든가 기존에 이제 잘 몰랐던 부분들을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 어렵다는 건 사실 너무나 다 아는 얘기거든요.

연금이나 쟀버리는 시기 적절했다고 보이고요. 어떤 프로그램의 질을 좌우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기존의 보도가 안 됐던 내용들을 뭔가 심층적으로도 파고들어야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①

근데 음악이요.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처음에 자영업자 관련 내용이 심각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알고 싶다' 처럼 그런 주제는 아닌데 음악이 약간 좀 으스스 하다고 그럴까 그게 좀 거슬리긴 했어요.

보기에는 괜찮았는데 처음에 사장님의 눈물과 서글픔 그거 할 때 좀 약간 이렇게 무슨 심각한 그런 음악처럼 좀 들리긴 했어요.

⑤

근데 그 자영업자가 망하는데 그 철거 업체가 포항이다 그리고 내용을 쪽 쓴 거 아니야... 자영업자가 망해가는 과정을 쓰고 뒤에 철거 업체가 이렇게 우리는 흥한 거지만 좀 안타깝다. 근데 그게 흐름이 맞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흐름이 사실은 진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들이 안타까운지 맨날 "야 어디 망할 놈 없어" 찾아 다니는 건지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게 좀 똑같은 시간을 비중을 두고 하는 게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싶긴 하거든.

①

저는 그 팩트 추적 프로그램 리스트를 찾아보니까 암표상 추적기 같은 내용도 있어서 주제 선정은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다큐24

사회자

일단은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인상이나 이런 건 어떠셨나요?

②

이것도 대주제는 사회성이 있으니까 괜찮죠. 주제는 근데 이제 아주 논의하기 어려운 내용은 없는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내용을 그냥 풀이한 것 같아요.

③

치매도 그렇고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한 것 같고... 그리고 누구나 그러니까 그냥 누구나 될 수 있는 거라서 그런지 약간 분위기는 어두운 면을 강조를 안 하더라고요.

프로그램이 사실은 그거 지금 되게 힘들게 살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거는 아니고 아까 제가 또 처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누구에게나 벌어질 문제가 있는데 치매를 해결할 약이 나오지 않고서는 어떻게 안 되잖아요.

그냥 근본적인 문제는 제도적으로 아무리 해도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좀 편하게 어떻게 하면 힘들지 않게 여러 사람에게 부담을 덜 주면서 이 문제를 같이 끌고 가느냐 약간 그런 방향으로 가서 마음은 가벼웠어요.

생각보다는요. 당장 가족 중에 치매가 있는 분이나 아니면 혼자 애가 셋인데 남편이 육아휴직을 하고 쉬고 있는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분명히 힘들 텐데 그걸 생각보다는 힘든 면을 강조를 안 해서 마음은 좀 편하더라고요.

알 만한데... 그렇게 보여주는 게 그래도 좀 밝은 내용을 보여줘서 그런 입장에서의 다큐다 보니까 당연히 한 달에 한 편 하는 것도 사실은 그 사람의 일상을 계속 옆에서 해야 되니까 정해놓고 가족 같은 경우 그러니까 그 정도 시간도 사실 부족하다고 보는데... 아무튼 그런 거를 아까 말했듯이 주제에 관련된 건데 치매나 육아 이런 거는 불특정 다수 모두에게 일어날 일들이니까 잘 선정을 했다.

그거를 해결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결국 이 문제를 안고 어떻게 같이 살아가느냐로 한 것 같아서 그거는 마음 가볍게 시청할 수 있었어요.

②

저도 두 가지만 보면은 세대 간의 공감에 좀 틀릴 것 같아요.

왜냐면은 두 가지만 보자면 첫 번째는 육아 문제로 이제 약간 우리 세대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저런 게 있구나... 이렇게 끝나는 거고 요즘 이제 젊은 세대 아빠들이 육아휴직하고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공감하지 못해요 사실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치매도 젊은 세대는 이런 게 있구나... 우리 부모의 먼 미래에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약간 그런 부분은 있죠. 세대 간에 그런 거 있죠. 그냥 가볍게 보면은 되지만 이게 공감이 좀 덜 될 수도 있죠.

사회자

공감의 문제가 단순히 이렇게 아직 나에게 다가오지 않은 이유이기 때문일까요?

②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 아이를 키웠을 때의 그 모습과 지금 젊은 세대들의 모습이 또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데 좀 약간 이렇게 뼈뺌하게 볼 수도 있죠.

이제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약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치매 같은 경우도 이거는 이제 생각보다는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고민할 부분은 아직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점에서 공감이 좀 없을 수도...

④

육아 관련 편은 약간 정책적인 의도가 포함되어 있는 시사적인 내용을 많이 포함한 것 같더라고요.

①

저는 육아편 보면서 요즘 세대를 반영하는 걸 보면서 많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러니까 말씀드린 저희가 아이 키울 때하고 많이 다르구나 그런 것들 그리고 기본적인 생각 자체가 다른 거잖아요. 맞벌이를 해도 옛날에 했던 사람들과 지금 젊은 아빠들이 다르구나 그렇게 다름을 느낄 수 있어 좋았어요.

그리고 '워드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기 전에 되게 마음이 되게 무거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50대고 주변의 어른들이 이제 치매 시어머니도 계시고 한데... 그래서 치매는 공존할 수 없다가 기본적인 현실이고 그래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세대들은 기본적으로 치매 환자 케어를 위해서는 자격증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워드 치매'를 보면서 이게 가능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걸 집에서 하시는 분들이 직접적으로 나와서 얘기하잖아요.

요양 보호사 자격증을 따도 안되는 수준에 다다르면 시설에 보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인데 '워드 치매' 편에서 보여준 것처럼 가능하다면 해 볼 수 있겠다... 약간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워드 치매'를 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치매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들이 약간 어두우니까 마음을 안정시키고 하루 지나서 봤거든요.

근데 보면서 되게 저는 약간 희망적인 것도 봤고, 그리고 사람들이 거기서도 이제 어르신 남자분들이 자격증 따시는데 저희 공부할 때 보면 그렇게 많이 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점점 공부를 하면서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다양한 것들을 보여줘서 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④

저는 치매 같은 경우는 너무 가족이 돌보는 것만 보여주는데 지금 국가에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사례도 같이 있었으면 좀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⑤

육아나 치매를 다큐 24에 방송하는 걸 보면 좋은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젊은이들이 육아 휴직 내서 방송처럼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과연 몇 개나 있겠느냐는 거죠. 너무 좋은 면만 방송을 하지 않나 싶거든요.

치매도 마찬가지로 딸이나 남편이 나와 가지고 이러는데 내용을 들어보면 “치매는 그냥 이렇게 집에서 관리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사실은 그건 일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적인 지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육아 휴직도 안 하는 데가 더 많잖아요. 작은 기업들은 거의 없잖아요. 거의 없는데 그런 곳 더 초점을 뒤편이 되지 않을까 해요. 많이 하는 대기업이나 공기업들, 공무원들 대상으로 육아휴직 다 내고 직장에 어린이집 있고 그런 거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육아 휴직이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사각지대를 좀 부각시켜야 되지 않을까 해요. 그런 걸 좀 어떻게 좀 잘 되게 하는 거, 치매도 마찬가지로 잘하는 식구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치매 환자가 있으면 고통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치매 환자 가족들에 대한 심리적 보살핌 같은 내용들이 나오긴 하는데 주 내용을 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는 게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육아 휴직 내가지고 집에서 애들하고 아빠하고 노니까 좋아요 이거야. 거기서 웃기는

거는 옛날 아빠들은 이렇게 안 했다 그거죠. 물론 사실이고 옛날 사람들이 다 나가 돈 번다고 안 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랬던 거죠.

지금은 사회적인 분위기가 옛날과는 다르고 또 맞벌이도 많고 하지만, 이제 옛날 사람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방송에서 내 보내니까... 아버지들이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그렇고 또 사회적인 현상이 그러니까 그런 거지... 원래 그런 사람들이 다 아니거든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지.

치매도 마찬가지로 너무 좋은 것만 보여줘 가지고... 사실은 별게 아닌 게 아닌데, “치매 뭐 내가 할 수 있네” 이 정도까지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딸이 이렇게 케어해 주고 남편이 해주고 하면 되네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그렇잖아. 그런 사람들은 사실 치매도 아니야 사실은 그 정도 나오면 치매도 아니야.

근데 그런 식으로 그려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사실 치매라고 하면 정말 어려운 병이기 때문에 힘든 상황을 보여주고 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좋은 것만 하니까 이것도 그냥 뭐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거죠.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공감을 못하죠. 공감이 떨어지죠. 보는 사람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공감을 못하죠.

사회자

크게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보여주지 않는 이면이 어떻게 보면 편향성일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치매에 대한 상식 그리고 육아에 대한 상식이랑 지금의 상식이랑 잘 안 맞는 부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실질적인 것들을 따져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치매가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다 라던가? 또는 남편이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는 직장이 얼마나 되냐 라던가? 어떻게 보면 그게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는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신지요?

⑤

지금 같이 하는 방송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육아휴직은 자기 아빠하고 놀이하고, 육아휴직 내가지고 뭐 좋다, 남자끼리 모여 가지고 동호회 하고 그거야 뭐 저녁에 하루하고 마는거지 그렇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보고 따라 하겠죠. 이슈가 될 수 있겠죠. 그것도 보는 사람 따라 다르

기 때문에 필요하기도 하겠죠. 사실은 없는 것 보다는 낫겠죠.

사회자

여기 계신 분들의 상식에는 맞으신 건가요?

③

안 맞습니다. 사실 이질감이 있죠. 근데 그게 또 얘기하면 약간 그 그런 거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다루고 보여주는 부분에서 외면당한 그런 부류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 사람들과 관련된 좀 더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실제 그렇다 하더라도 직접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서 마음이 불편하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회적 이슈를 다뤘을 때 그게 모든 사람의 현실과 일치하지는 않더라도 프로그램에서 보여주는 모습처럼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형편이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유의미하다고 봐요.

물론 보여지는 부분의 이면을 알고,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는 있겠지만 보여지는 모습이 예쁘니까 약간 찝찝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거죠.

⑤

다큐 24라는 제목이 적절한지 모르겠어요. 그냥 뭐 육아 휴직자의 일상 생활 그 정도 수준인데 육아 휴직이 좋은 점 뭐 그런 거 그냥 홍보하는 역할인 것 같은데... 물론 자신이 실제 그러면 다크가 되는 거지.. 한 쪽 측면 만의 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사회자

그러면 만약에 “한쪽 측면을 지나치게 부각하고 있다” 라고 했을 때는 그 한쪽 측면이 부각되는 정보라도 쓸 만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③

사실은 굳이 어두운 면을 부각한다 하더라도 혜택 받지 못하는 어려운 분들 중에 알아서 제도나 정책을 찾는 사람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는,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을 끌고 갈 수 있는 내용을 했으면 더 좋겠죠. 내용은 더 무겁겠지만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⑤

사각지대를 얘기하면은 사회적으로 좀 우울해하고 그러니까 안 하는 것도 있겠지만 가끔 필요하기도 하지... 나오기도 하잖아요. 가끔 나오잖아요. 방송하잖아요. 그런 것도 또 사람들도 보기도 싫어하죠. 사실 너무 심하니까. 애들 학대하거나 치매 환자가 막 이상하고 이런 거 일단 그래도 또 보기도 별로 안 좋잖아요.

③

사람들도 안 보거든요. 그 후원해 주세요. 불쌍한 사람 나오고 같이 하면 채널 돌려 버리거든요. 저는 저런 사람도 있다 하고 좀 같이 보자 그러는 마음은 있는데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나빠서가 아니고 그런 어두운 면을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해하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죄책감도 있고...

⑤

지금 국민 수준이 이걸 보고 감동할 정도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감동하지 만 지금은 계속 이걸 보고도 감동 안 하잖아요.

애들이 부모 모시고 이러면 칭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잘한다 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국민들이 옛날 70년대 80년대 수준이 아니고 그러니까 방송 수준도 맞춰야 한다 그거죠.

①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거 자체가 칭찬할 만한 일이 아니라 그냥 그게 기본이고 이제는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아가야 된다 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도 육아 휴직을 쓰는 아빠들도 꽤 많고 엄마들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주 특별한 케이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거를 보는 시각에 따라 물론 다르겠고 모든 걸 다 보여줄 수는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계속 자조 모임을 하면서 이제 자기를 좀 이렇게 풀어가면서...

옛날에는 집에 치매 환자 있으면 아무도 못 움직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얽매어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자조 모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그 도우미도 쓸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에 대한 방향성을 한번 보여주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⑤

시설 관련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다양한 상황에 맞는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사람들이 나와서 치매 환자도 이렇게 관리하니까 뭐 충분하더라 이 정도 아니에요. 현실적인 게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현실감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사회자

어쨌든 그거는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하나만 더 여쭙보고 싶은 것은 '다큐 24'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팩트 추적'에 비해서는 길이가 훨씬 길잖아요. 거의 한 2배 정도 되는 건데 그럼 실제로 거기에도 치매나 다양한 사례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의견들도 되게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한쪽 면만 너무 부각되는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③

치매는 치료약이 나오지 않는 이상 없어지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러면 안고 가자라는 분위기로 가는 건데 이렇게 가는게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 해주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은 그게 틀렸다고 보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잘 사는 사람, 보통인 사람들이 100원 주는 거 하고 못 사는 사람한테 100원 주는게 다르듯이 그런 사람은 알아서 잘할 테니 좀 어두운 면이긴 하더라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을 조명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힘들게 혜택을 보려고 했지만 혜택이 제외되고 사각지대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다크도 좋다고 봐요.

①

제목에 그 주제를 담았다 생각해요. '위드 치매' 잼아요. 그러니까 치매를 바라보는 관점은 여러 가지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정부 지원도 되게 중요하고 뭐도 하고 뭐도 중요하지만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서 '위드 치매'라고 제목을 정한 건 그거에 나는 이런 식으로 보여주겠다 라는 걸 보였기 때문에 제목을 뽑는 거에 따라서 방향성을 제시한거라고 생각해요.

⑤

그러니까 기획 의도 자체가 치매와 함께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걸

보면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는 알아라 그 정도라고 생각해요.

사회자

공통적으로 사회적 공감을 만들어내기 위한 노력을 했는가와 여러 가지 면들을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①

프로그램 성격상 이거는 다큐 24이고, 정보에 대한 다양성은 팩트 추적 같은 프로그램에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홈페이지 기획 의도에서 팩트 추적은 제가 봤더니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는다” 라고 나와 있었고, 다큐 24는 “우리 사회를 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이성적 논리와 감성적 표현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했어요. 프로그램 성격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보여주는 모습이 당연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를 팩트 추적에서 보면 다른 관점으로 보여줬겠죠.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보여 줬겠지만 이거는 다큐멘터리이기 때문에 방향성이 약간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회자

앞선 팩트 추적과의 가장 큰 차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⑤

이거 팩트 추적하고 다큐 24가 내용으로 봐 가지고 일부는 구분되는 것도 있지만은 안 되는 것도 있죠.

③

동일하게 사회적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다루고 있는 주체나 원인이 전혀 다르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잼버리 같은 경우에 이거는 누가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다고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지만, 치매는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기는 힘들고 그것을 앞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다르죠.

육아 휴직도 저출생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왜 저출생이 발생했는지? 요즘 사람들이 왜 아이를 출산하지 않는가와 같이 사회적 문제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

만 개인이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콕 집어서 할 수는 없는거죠. 이런 점에서 팩트 추적과 비교하면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점이 다큐 24는 약하죠.

그거 자체가 저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다루고 있는 문제는 같은 문제일 수 있지만 하나는 잘못을 했으니까 다음에 또 잘못을 안 하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하거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방향이지만 다큐 24는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루는 방향 자체가 다르고요. 이런 방향성을 감안해서 기획하신 것 같아요.

컬처 인사이드

사회자

컬처 인사이드는 길어도 짧고 다루고 있는 주제들 광범위하기도 하고 공정성 이슈와는 좀 거리가 있는 프로그램이라 질문에 얽매이지 않고 그냥 자유롭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⑤

글자 그대로 컬처 인사이드는 그 당시 사회 문화적 추세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다루는 주제 자체가 많아도 큰 상관은 없죠. 내용상 보면은 흥대도 있고 여러 주제들을 다루잖아요.

짧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사회적인 추세가 이렇다 사회 흐름이 이렇다 이런 거는 사람들이 이런 걸 선호하더라 이런 거는 괜찮죠. 문화 프로그램은 괜찮죠.

④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피규어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모이고 방문하고 그런 거는 알게 돼서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상식 같은 정보들도 많고요...

⑤

내용상으로 문화를 다룬 거기 때문에 크게 뭐 사람들이 부담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보고 문화적인 동향이 이렇구나... 연예인도 이렇구나... 영화도 이렇구나... 이런 걸 그냥 뭐 부담 없이 그냥 듣고 볼 수 있는 수준인 거 같아요.

사회자

공감은 되시나요?

⑤

그냥 단순히 요새 이런가 보다 정도예요. 요즘에 이런 게 있어 대단하네... 뭐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구먼 이 정도 영화가 이런 게 잘 되는구나 그런 정도죠...

③

연령층마다 다르겠지만 흐름이나 유행에 민감한 사람은 그걸 보고 바뀔 수도 있는데, 그냥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거에 바뀌지 않고 그걸 그냥 지켜볼 뿐이죠.

⑤

공감하는 사람들이 반만 돼도 그런 많은 거라고 생각해요.

④

그거를 굳이 공감시키려는 의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소개시켜 주는 정도인거 같아요.

①

예를 들어 뜨개질 같은 경우에 저도 뜨개질 관련된 일을 하기 때문에 되게 관심 있게 잘 봤거든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이 이제 뜨개질을 접근할 때는 보통 시장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하는 뜨개방을 기본으로 많이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유튜브로 유명한 김 대리를 기본으로 해서 젊은 친구들이랑 하는 그 뜨개 파티 같은 거 되게 많이 해요. 저희 안에서 모여서도 많이 보고요. 혼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고 유튜브나 인스타로 이렇게 올렸을 때 사람들이 되게 호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뜨개질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관심 없이 지나칠 수 있겠지만 관심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 너무 올드하지 않게 요즘 추세에 맞춰서 잘 만들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생각보다 저는 토픽을 되게 잘 뽑았다. 연예인 인터뷰는 다른 데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괜찮았던거 같아요.

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그런 거지 뭐... 특별히 내용도 없지만... 짧아서 내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이런가 보다 뭐 그 정도죠 필요하긴 필요하죠. 어차피 사회에 좀 흘러가는 것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누구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필요하긴 좀 필요하지.

③

그러니까 지금 그룹이 크든 작든 약간의 유행 정도 어차피 지금 그 방송에 나왔던 사람들이 1년 전에 없었던 사람도 아닐 거고 계속 10년 전부터 살았던 학생 30대 40대이기 때문에 유행이라고 봐야죠.

결국엔 그것도 한 달 뒤 1년 뒤 어차피 다 바뀌고 다른 걸로 계속 꾸준히 하는 사람도 있겠죠. 뜨개질도 했던 사람이 계속 그 사람의 처지나 상황이 바뀌지 않고 마음에 변화가 없으면 그냥 계속하듯이 그냥 유행이라는 마음으로 보면 저런 게 유행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거죠. 저게 인구가 100명이면 한 5명이 하는데 5명이 저런 걸 하네. 여기서 한 20명은 또 이런 걸 하네. 그냥 그 정도로 알고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보는 거고 그런 의도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가벼운 가십거리 정도의 프로그램이라고 보거든요.

사회자

특정 세대에 쏠렸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③

앞으로 나오기는 하겠지만 시니어 세대까지 아직은 도달하지는 않은거 같아요. 아직은 10대 부터 20~30대 관심 사안을 다루고 있죠.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시니어 관련 소재들도 나오겠죠.

⑤

근데 이 프로그램에 등장하는 세대를 보면 명확하게 의도적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기 상식을 늘리는

거하고 사회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그냥 가볍게 보는 프로그램으로 적당하다고 볼 수 있죠. 없는 것보다는 낫죠. 오히려 길게 가는 것보다 한번 보고 흘러갈 것 같으면 쇼츠같이 그렇게 가볍게 하는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③

근데 나중에는 조심을 해야겠더라고요. '생생정보통' 처럼 될까 걱정이예요. 흥대나 어떤 특정 장소 소개, 다른 방송 예능 프로그램 보면 여기 '식당 땡땡' 이렇게 하잖아요. 맛집 프로그램처럼 그렇게 돼버리면 광고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간접 광고가 될 수 있어서 그런 걸 좀 피하면 나름 공공의 목적에 따른 그런 프로그램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사회자

YTN의 공적 책임, 책무를 다 하기 위해 다른 방송사와 어떻게 차별성을 가져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③

뉴스는 YTN이랑 채널A랑 성향이 다르잖아요. MBN이랑도 성향이 다르고 JTBC랑 성향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굳이 따지면 뉴스만 보면 YTN이 굉장히 중립에 가깝구나 생각이 듭니다.

MBC랑 YTN이랑 뉴스를 보시면 성향이 확 다르죠.

뉴스 데스크랑 그냥 봐도 달라요. 대통령에 대한 정치 뉴스만 봐도 보도하는 앵커의 멘트라든지 이런 것만 봐도 그냥 다 다르잖아요.

YTN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뉴스만 봐도 굉장히 중립에 가깝기 때문에 계속 중립에 최대한 가까운 걸로 노력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기서는 좀 편파적인 걸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정말 사실에 최대한 가깝게 얘기를 하는구나... 시사교양 프로그램도 좀 믿고서 볼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⑤

종편은 대부분 한쪽에 치우쳐 가지고 중간에 앵커들이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YTN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뭐 하니까 좀 뉴스가 좀 지루한 느낌이 있죠.

그냥 평이하게 그냥 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러 면은 거의 재미가 없잖아요.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하면서 이쪽 물어보고 이런 다른 데 같이 이쪽 편을 들고 막 맞부딪히게 되는데... 종편 때문에 시청률이 좀 많이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렇다고 어느 한 쪽을 편들 수도 없지만 그래도 기계적 중립보다는 YTN 자체에 대한 그런 의견도 좀 조금씩은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지만 그래도 자기들 방송사의 의견도 어느 정도 피력하면서 중립적으로 가지만 그래도 바른 말을 하네. 그 정도로 가야 되는데 바람직하겠죠.

③

다른 채널이 워낙 아까 말씀하신 재미있는 채널이 많아서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엄청 다들 그렇게 자극적이고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지만 YTN은 그러지 않는 게 장점이고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⑤

이게 뉴스 채널이기 때문에 신속을 요하는 채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남보다 빨리 방송해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④

중립이고 뭐고를 떠나서 정보의 깊이에 있어서 다른 채널이랑 차이가 없으면 뉴스 전문 채널이라는 장점이 전혀 부각이 안 된다는 느낌이거든요. 각종 유튜브 정보 채널에 비해서 정보가 더 깊이가 있으면 될 거 아니에요.

③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YTN은 하루 24시간 온갖 뉴스 시간대에 편성을 해 놔서 깊이는 없지만 다른 데보다 더 자주 보여주고 똑같은 소식을 8시부터 9시까지 못 본 사람들을 위해 11시부터 12시에 그때 방송 볼 수 있는 사람 뉴스 봐 그런들에게 보여주는 편리성도 장점이지요.

④

근데 저는 깊이가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독점 인터뷰를 한다든지... 그런 정보의 깊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데서 보도 안 되는 내용은 뭔가 추가적으로 보도가 돼야지 차별성이

있는 거지 다른 데도 다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달리한다고 해서 차별성이 생긴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③

더 빨리 하거나, 자주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장점인 것 같아요.

⑤

저도 YTN 많이 봤었는데 요즘에는 잘 안 봐요. YTN은 거의 좀 지루하게 진행을 하고 아나운서 멘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잘 안 보게 되죠.

다양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뉴스가 종편 틀어도 똑같이 나오는데 이제 더 상세하게 얘기하고 그러는데... 차별성이 없어 보이는 거죠.

사회자

언론의 공적 책무라고 했을 때 상식, 지식, 교육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논의한 프로그램들이 어디에 해당되고 얼마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③

이 세 프로그램으로만 얘기하면 거꾸로 걸쳐 인사이드는 약간 학교 수업으로 따지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 약간 특별 활동 정도의 과목이라고 보고요. 팩트 추적은 국영수 정도가 될 것 같고요. 타규 24는 사회탐구나 도덕, 윤리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국영수는 비중을 한 50% 줘야 되고, 사회 탐구도 중요하니까 한 30%, 그리고 특별활동 같은 경우 취미 활동이라고 생각하면 걸쳐 인사이드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나에게 별로 손해가 없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해요.

이 프로그램들이 앞으로 제작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제작 의도 자체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⑤

저도 세 가지는 필요한 방송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부담 없이 그냥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시청자들이 볼 때 좀 보는 사람이 정확한 사실을 중심으로 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내용이 좀 하나라도 접목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②

팩트 체트는 그러니까 얘기하신 대로 지식 전달에 가깝고요. 다큐 24는 교육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구요. 나머지는 그냥 뭐 약간 유튜브 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우연히 유튜브를 보다가 그 지식을 알게 되고 거기에 또 더 파고 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①

저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면 팩트 추적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큐 24는 공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컬처 인사이드는 상식이라고 생각해요.

④

컬처 인사이드는 그러니까 흥미 위주로 유튜브 보듯이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것 같고 팩트 추적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기존에 이제 몰랐던 사실을 추가적으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이제 지식을 좀 더 함양시킬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큐 24는 예전에 다큐 3일처럼 그냥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듯하지만 거기에 제작진의 의도가 이렇게 숨겨져 있어서 기획 의도에 따른 제작진의 생각을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

각 프로그램들의 성격이 모두 다르지만 순위를 매긴다면?

⑤

저는 첫 번째 팩트 추적, 그 다음에 다큐24, 그리고 컬처 인사이드 그 순서예요.

④

저도 팩트 추적, 다큐 24, 컬처 인사이드 순입니다.

②

저도 딱 잘라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아무튼 처음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게 먼저 팩트 추적, 다큐 24, 그 다음에 컬처 인사이드 순인 거 같아요.

③

저도 동일합니다.

①

저는 다큐 24 그게 제일 먼저 공감적인 면에서 뽑고요. 그 다음에 팩트 추적 그 다음에 걸쳐 인사이드 뽑겠습니다.

팩트 추적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연금에 대해서 제가 더 관심이 생기면 좀 심도 있는 다른 프로그램을 더 보게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보들이 너무 빠르게 너무 많이 쏟아져 나와서 이해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내용을 알고 싶다면 다른 걸 더 찾아서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근데 다큐 24는 약간 좀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회자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잘 정리해 향후 YTN 시사교양 프로그램 제작 방향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